

# 2026 북미 진출전략



# Contents

## I. 진출 환경



### 1. 경제 환경 04

### 2. 정치(정책) 환경 11

- |                  |    |
|------------------|----|
| 가. 정부 현황         | 11 |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12 |

### 3. 주요 이슈 Pick 19

- |                                |    |
|--------------------------------|----|
| 가. (통상) 미국發 새로운 무역질서 속 공급망 다각화 | 19 |
| 나. (경제) 끈적이는 물가, 노동시장 둔화와 금리인하 | 27 |
| 다. (정치) 2026년 미국 중간선거          | 31 |
| 라. (사회) 보수화되는 이민·노동정책          | 33 |
| 마. (산업) AI 중심 첨단기술 및 산업 인프라 확장 | 35 |
| 바. (문화) 웰니스 트렌드, 라이프스타일로 확대    | 38 |

## II. 시장 분석



### 1. 시장 현황 40

- |          |    |
|----------|----|
| 가. 시장 특징 | 40 |
| 나. 무역    | 44 |
| 다. 산업    | 59 |
| 라. 투자    | 61 |

### 2. 유망 산업 74

- |             |    |
|-------------|----|
| 가. 반도체      | 74 |
| 나. 인공지능(AI) | 76 |
| 다. 에너지·전력   | 80 |
| 라. 기계       | 83 |
| 마. 자동차·부품   | 86 |
| 바. 조선       | 89 |
| 사. 제약·바이오   | 93 |
| 아. 소비재      | 96 |

### 3. 협력 기회 99

- |              |     |
|--------------|-----|
| 가. 통상·G2G    | 99  |
| 나. 프로젝트      | 102 |
| 다. 공급망(자원개발) | 107 |

## III. 진출전략



### 1. PEST/SWOT 분석 110

### 2. 진출전략 112

- |                                      |     |
|--------------------------------------|-----|
|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 140 |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 151 |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161 |
|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163 |

#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11 |
| 3. 주요 이슈 Pick | 19 |

# I 진출 환경



## 1. 경제 환경

### □ '25년 하반기 북미 경제는 둔화, '26년에는 완만한 성장 전망

- (미국) '25년 미국 경제는 1.4~2.0%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26년에는 2% 수준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5년 하반기 미국 경제는 미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및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성장세 둔화 예상
    - \* '25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연율 약 2.3~2.8% 범위 내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연준의 2% 목표치를 상회(BLS, '25년 7월)
  - '26년 경제는 트럼프 감세안(BBB)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단기적 부양으로 경제 성장률이 2%에 도달 전망(Tax Foundation, '25년 7월)
  - 연준은 '25년 10월까지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3.75~4.00%로 인하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12월 1일부로 중단, 12월 금리 결정만 남겨 놓은 상황
- (캐나다) '26년 캐나다 경제, '25년 대비 완만한 개선 전망
  - '26년 세계 성장률은 3.1%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캐나다는 '25년 1.2%, '26년 1.5%로 완만한 성장세 시사(IMF, '25년 10월)
  - 캐나다 중앙은행은 '25년 하반기 성장률을 1% 미만 수준으로 제시하고, '26년과 '27년 성장률은 1.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BOC, '25년 10월)
  - 물가는 '26년 2% 목표 부근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26년 2분기에는 소비자 탄소세 폐지 종료와 미국발 관세 효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재가중될 가능성 농후(BOC, '25년 10월)
    - \* '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4%로 전월 1.9% 대비 0.5%p 상승(Stat Can, '25년 10월)

### □ (호재 요인) 소비 호조가 경기 둔화를 완충하는 호재로 작용

- (미국) 소비지출 증가, 2분기 수입 급감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25년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
  - \* 2분기 수출(-1.8%) 및 투자(-15.6%) 감소 대비 수입이 대폭 감소(-30.3%)하며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으며, 개인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695억 달러 증가(BEA '25년 7월)

- '25년 9월 기준 실업률 전월 대비 0.1%p 상승한 4.4%, 월별 임금 상승률도 8월 기준 비농업 부분 전월 대비 0.3% 상승
  - \* (소비자물가) '25년 1월 2.9% → '25년 6월 2.4% / (근원물가) '25년 1월 3.2% → '25년 6월 2.8%(BLS, '25년 7월)
- 관세 수입으로 인한 정부 재정 확대, '26년 발효 예정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감세 조항 등이 기업 투자를 촉진할 것(컨퍼런스 보드, '25년 8월)
  - \* 미 의회예산국(CBO)은 '25년부터 '35년 미국의 관세 수익으로 연방 재정적자가 이자 비용 절감 등 포함 시, 총 2조 8천억 달러 재정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
- OECD는 '25년 9월 발표한 경제 중간 전망에서 미국의 '25년 성장률 전망을 6월 전망 1.6%에서 1.8%로 상향, '26년 성장률 전망은 1.5%로 유지
- (캐나다) 물가 안정 진전과 가계소비의 점진적 복원
  - 관세·환율·주거비 등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균형을 이루며, 물가가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BOC, '25년 10월)
  - 소비는 '25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 '25년 2분기 가계소비는 연율 4.5% 증가로 내수 견인, 7월 월간 GDP 잠정치도 전월 대비 +0.1%를 기록하며 회복세 시사(Statistics Canada, '25년 8월)

## □ (부진 요인) 고율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 노동시장 둔화

- (미국) 고율 관세 정책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부담 가중 및 소비심리 위축
  - 보호무역 강화 및 고율 관세 정책은 소비와 투자, 수출입 활동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단기적 물가 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 초래
  - 고율 관세로 인한 원자재·중간재 수입 비용과 생활필수품·소비재 가격 상승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가계에 부담 초래해,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 \* 고율 관세로 인해 의류·섬유 17%, 식품 2.8%의 가격 상승, 단기 소비자 물가 1.8% 상승, 평균 가구당 연간 약 2,400달러의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Budget Lab, '25년 7월)
  - 연준의 긴축통화 정책 장기화는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 부문의 성장세를 제약하고, 경제성장을 고통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 미 연준은 '25년 기준금리를 4.25~4.50%로 4차례 연속 동결, 9월 0.25%p 인하(4.00~4.25%), 10월 0.25%p 인하(3.75~4.00%)
  - 10월 FOMC 종료 후,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전망 및 리스크에 대한 참석자 간 견해 차이가 커 향후 정책 경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12월 회의에서의 금리인하는 미리 정해진 결론(foregone conclusion)이 아니라고 답변

- (캐나다) 대미 통상 불확실성·관세 리스크 상존

- 미국 관세와 정책 가변성으로 수출·투자에 하방 압력이 가중, '25년 2분기 이후 순수출·설비투자가 모두 둔화세를 보임(BOC, '25년 10월)
- 정부의 대응에도 통상 불확실성은 '26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 제조업 등 교역 의존 업종 리스크 지속 우려(BOC, '25년 10월)

##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376	378	379	380	383	385	387	390
명목 GDP	십억 \$	23,283	23,030	25,748	28,244	29,986	31,540	32,979	34,568
1인당 명목 GDP	\$	61,994	60,991	68,007	74,258	78,338	81,887	85,130	88,749
실질 성장률	%	2.5	-2.3	6.1	2.6	2.8	2.6	1.8	1.8
실업률	미국(%)	3.7	8.1	5.4	3.6	3.6	4.0	4.2	4.4
	캐나다(%)	5.7	9.6	7.5	5.3	5.4	6.3	7.0	7.2
소비자물가 상승률	%	1.8	1.2	4.6	7.9	4.1	2.9	2.7	2.8
재정수지(GDP 대비)	미국(%)	-5.8	-14.1	-11.4	-3.7	-7.8	-8.0	-7.4	-7.9
	캐나다(%)	0.0	-10.9	-3.1	0.6	0.1	-2.0	-2.2	-2.4
총 수출	미국(백만 \$)	2,554,094	2,172,846	2,584,068	3,058,445	3,092,536	3,232,524	1,690,273	-
	캐나다(백만 \$)	446,618	389,549	503,610	403,902	562,234	534,148	505,700	555,000
(對韓 수출)	미국(백만 \$)	81,147	69,693	86,500	96,876	91,927	93,930	47,403	-
	캐나다(백만 \$)	4,183	3,514	5,052	6,676	5,157	5,564	2,612	
총 수입	미국(백만 \$)	3,113,364	2,818,888	3,421,342	3,982,174	3,866,741	4,136,057	2,266,164	-
	캐나다(백만 \$)	453,430	404,468	489,641	378,040	554,634	567,185	538,100	585,000
(對韓 수입)	미국(백만 \$)	89,210	86,562	109,137	132,205	132,520	148,589	73,395	-
	캐나다(백만 \$)	7,163	7,179	8,306	10,272	10,302	12,308	6,451	
무역수지	미국(백만 \$)	-559,270	-646,042	-837,274	-923,729	-774,205	-903,533	-575,892	-
	캐나다(백만 \$)	-6,812	-14,919	13,968	25,862	7,600	-33,037	-32,400	-30,000
경상수지	미국(백만 \$)	-441,963	-593,498	-858,632	-993,134	-928,002	-1,185,301	-656,030	
	캐나다(백만 \$)	-45,183	-44,789	-487	-13,123	-20,429	-14,974	-39,058	
환율(연평균)	미국	1	1	1	1	1	1	1	1
	캐나다	1.30	1.34	1.25	1.30	1.35	1.37	1.44	1.40
해외직접투자	미국(억 \$)	318	2,269	2,395	2,971	2,732	3,037	N/A	N/A
	캐나다(억 \$)	1,028	585	1,329	1,096	1,299	1,280	604	
외국인직접투자	미국(억 \$)	2,425	959	3,861	3,308	2,897	2,847	N/A	N/A
	캐나다(억 \$)	670	343	770	603	652	916	722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기입. '25년 총 수출입 및 對韓 수출입은 1~7월 누적액 기준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25년 11월), International Monetary Fund('25년 10월), World Trade Atlas('25년 8월),

미국수출입 및 對韓 수출입은 8월 누적액 기준(U.S. Department of Commerce, '25년 9월), 미국 경상수지는 '25년 2분기

기준(U.S. Department of Commerce), '25년 대한 수출입은 7월 누적액 기준(Global Trade Atlas), 캐나다 '26년 전망은

IMF 기준('25년 10월), 캐나다 중앙은행('25년 10월), 캐나다 통계청('25년 10월)

##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 미국발 관세에 따른 수출입 감소로 경제성장을 변동
  - (미국) '25년 2분기 실질 GDP는 3.8% 증가, 1분기는 0.6% 감소하였으며, 실질 GDP 2분기 증가 요인은 수입 감소(GDP 산정에서 차감 요인)과 소비지출 증가
    - \* 다만, 투자와 수출 감소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있음
  - (캐나다) '25년 1분기 미국발 관세부과 이전 선행 교역으로 전기 대비 2.2% 상승하였으나, 2분기에는 관세 영향 및 수출 급감으로 1.5% 하락
- (소비) 인플레이션 및 관세 리스크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비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여행 및 외식 등 재량 지출을 축소하고 있음
    - \* (미시간대 '25년 소비자심리지수) 1월 71.7 → 3월 57.0 → 6월 60.7 → 9월(Preliminary, 예비치) 55.4
  - (캐나다) 가계저축률은 6.0%에서 5.0%로 1.0%p 하락, 소비 여력이 일부 회복되는 가운데 소득 둔화 병존
- (물가) 물가 수준은 높은 편으로, 관세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상승
  - (미국) '25년 9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0%, 식품은 3.1%, 에너지는 2.8%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1년, 4.8%)는 전월과 동일하였으나, 장기(5년, 3.9%)는 전월 대비 상승
    - \* '25년 미국 소비자물가(Headline CPI, 전년 동월비) : 7월(2.7%) → 8월(2.9%)<sup>0.2%↑</sup> → 9월(3.0%)<sup>0.1%↑</sup>
  - (캐나다) '26년 동안 2% 목표 부근에서 등락하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 '25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7%로 전월 1.9% 대비 0.2%p 하락(Stat Can, '25년 8월)
- (금리) 미국은 '25년 하반기 기준금리 2차례 인하, 캐나다는 금년 들어 4차례 기준금리 인하 결정
  - (미국) 9월 연방기금금리 25bp 인하(4.25~4.50% → 4.00~4.25%)에 이어, 10월 2차 인하 (4.00~4.25% → 3.75~4.00%) 결정
  - (캐나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2.5% → 2.25%)하여 올해 4번째 하향 조정
- (환율) 미국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확대, 주요국 통화 강세 등으로 연초 대비 약세 추세
  - \* 달러인덱스('25년 월말 기준) : 1월 108.4 → 2월 107.6 → 3월 104.2 → 4월 99.5 → 5월 99.3 → 6월 96.9 → 7월 100.0 → 8월 97.8 → 9월 97.8 → 10월 99.8
- (대외교역) '25년 상반기 미국 누적 무역 적자는 5,82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 캐나다는 2분기 교역 적자 확대 추세
  - (미국) '25년 8월 기준 미국의 수출은 2조 2,517억 달러, 수입은 2조 9,65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7,135억 달러

### 미국의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수출	2,584,068	3,058,445	3,092,536	3,232,524	2,251,707
수입	3,421,342	3,982,174	3,866,741	4,136,057	2,965,302
무역수지	-837,274	-923,729	-774,205	-903,533	-713,595

자료: BEA('25년 11월)

- (캐나다) 2분기 총 수출은 자동차·금속·에너지 등 대미 의존 품목 위축과 원유 출하 차질로 전 분기 대비 7.5% 감소, 총 수입은 1.3% 감소
- (민간 투자) 미국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전략적 민간 투자 유치로 '25~'26년 확대 전망, 캐나다는 '25년 하반기 회복 기대
  - (미국) AI·에너지·첨단산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 추진 및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투자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나 통화 정책 효과의 시차로 투자 관망세 지속 가능성 존재
    - \* 제조업 투자는 첨단산업인 AI·반도체에 집중(50.9%)되어 있으며, 자동차·철강 부문은 50% 고율 관세로 인해 10% 투자 축소 예상(미 연준, '25년 7월)
  - (캐나다) 2분기 설비투자 0.6% 감소, 주거 투자 2% 하락했으나 주택 거래·신규 착공이 증가세로 전환하며 하반기 회복 기대
- (산업생산) 글로벌 공급망 조정과 기업 비용 상승으로 산업생산 활동 위축
  - (미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기업 비용 상승에 따른 압력으로 산업생산은 둔화세에 진입, '26년 회복 속도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EIU, '25년 8월)
    - \* '25년 2분기 산업생산 0.5% 증가, 제조업 생산(자동차·철강 중심)은 관세로 1.3% 감소(미 연준, '25년 8월)
  - (캐나다) '25년 2분기 상품생산 전 분기 대비 1.2% 감소, 서비스 생산은 0.2% 증가에 그치며 산업 전반의 성장세 제약
- (투자 유입) '24년 말 기준 미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321억 달러 증가하여 5조 7,077억 달러
  - (미국) 증가분은 주로 유럽으로부터의 투자가 2,047억 달러 증가한 데에서 비롯, 그중 영국이 529억 달러, 독일이 397억 달러 증가
  - (캐나다) '25년 2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CAD 185억으로, 전 분기 CAD 302억 대비 CAD 117억 감소,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미국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업종은 제조업·경영관리 중심

### 미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원가 기준)

(단위: USD백만)

연도	전체 국가 합계	아시아·태평양	한국
2024년	5,707,721	1,081,842	92,050
2023년	5,375,582	997,712	79,452
2022년	5,124,179	935,073	65,286
2021년	5,066,419	924,552	66,141
2020년	4,613,481	884,928	60,548
2019년	4,398,763	872,020	55,606
2018년	4,179,984	748,061	57,998
2017년	3,952,314	721,264	55,568
2016년	3,561,808	620,189	42,426
2015년	3,354,907	579,708	39,784

자료: BEA('25년 7월)

- (투자 진출)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 잔액(누적 투자 규모)은 '24년 말 기준 2,063억 달러 증가하여 약 6조 8,326억 달러를 기록
  - (미국) 주로 유럽, 특히 룩셈부르크와 독일에서의 투자 증가가 주도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 특히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증가 견인
  - (캐나다) '25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는 CAD 268억 기록(전 분기 대비 194억 증가), 절반 이상이 미국향이며 금융·보험 및 자주회사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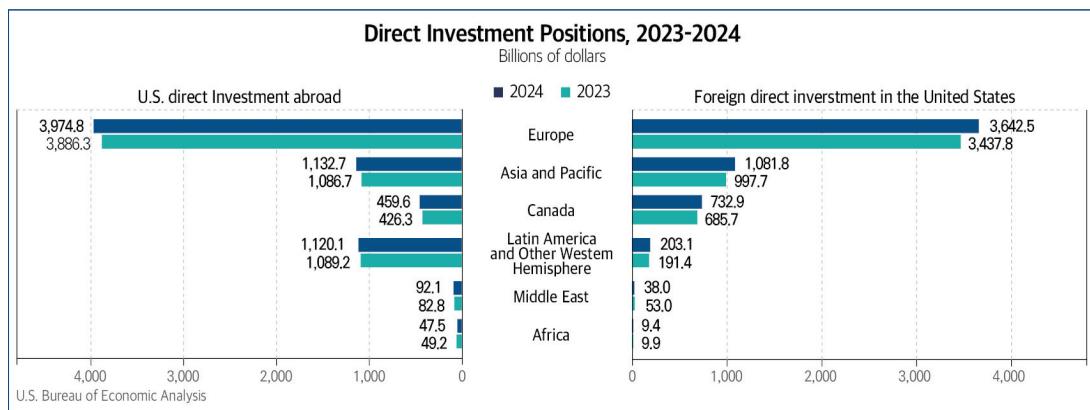
###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금액(원가 기준)

(단위: USD백만)

연도	전체 국가 합계	아시아·태평양	한국
2024년	6,826,786	1,132,698	36,387
2023년	6,620,475	1,086,692	34,355
2022년	6,244,702	971,894	29,726
2021년	6,229,992	985,690	38,181
2020년	6,063,288	940,473	37,550
2019년	5,836,983	922,502	37,992
2018년	5,792,290	879,968	37,282
2017년	6,097,690	938,668	40,237
2016년	5,518,644	867,916	39,278
2015년	5,289,071	847,102	38,608

자료: BEA('25년 7월)

### 〈미국의 투자 유치, 투자 진출 동향〉



자료: BEA('25년 7월)

## 2. 정치(정책) 환경

- (미국)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로 경제 불확실성 확대
  - 에너지 르네상스 추진, AI·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 등 경제안보 기조 강화
- (캐나다)
  - 자유당 소수정부 재집권과 마크 카니 총리 취임에 따른 국정 동력 재확보 시도
  - Bill C-5·Buy Canada 정책, 내수 단일시장 구축 및 대외 통상 불확실성 대응
  - 청정에너지·탄소정책 강화

### 가. 정부 현황

□ (미국) 트럼프 2기, 의회 다수당 공화당 집권 등으로 강력한 통치 기반을 확립하였으나, '26년 중간선거 등 향방 주목 필요

- (행정부) 제45대 대통령에 이어 이례적으로 비연임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1기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전개

#### ※ 주요 정책 기조

- 보호무역 강화 :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 리쇼어링·해외직접투자(FDI) 유도
  - 화석연료 개발·수출 확대, 파리협약 탈퇴 → 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 전망
  -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촉진
  - 이민 규제 강화, 첨단산업 고급 인재 비자 발급 요건 강화
- 
- '25년 1월 대통령 취임 아래, 수백 건에 달하는 행정명령, 각서, 포고문을 잇달아 발효하며, 입법 절차를 우회하고 권한을 행정부 내부로 집중
  - 특히, 행정명령(E.O. 14215, 2.18)으로, 독립기관에 중앙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법 해석 권한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위임하는 등 중앙집권적 체제 강화
- (입법부) '24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며 의회 권력 장악
    - 약 4.5조 달러 규모의 감세 및 지출 법안이 공화당의 일방적 지지 속에 통과되는 등,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
    - 다가오는 '2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

- (사법부)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우호적 기류
  - 현직 대법관 9명 중 6명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사로, 보수 성향의 압도적 우세 유지
  -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대법관 3인 지명
  - 트럼프 1기 정부에 이어 2기에도 대법관과 연방판사에 대한 대통령 지명권을 적극 활용해 장기적 보수 사법부 체제 구축을 진행 중
  - 상호관세에 대한 심리가 연방대법원에서 개시(11월 5일), 대통령의 IEEPA 권한이 관세부과까지 포함되는지, 의회의 무역입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내년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 (캐나다) 자유당 소수 정부, 리더십 교체로 국정 동력 재확보 시도

- '25년 2월 총선 이후 자유당 재집권, 마크 카니 총리 새 내각 출범
  - 자유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 소수 정부 형태로 하원 운영을 지속하며 신민주당(NDP)과 협력 구조 유지
  - 제1야당 보수당(피에르 푸알리에브르 대표)의 지지율 우세가 지속되어 정국 불안정성은 여전히 상존
  - 대미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카니 정부는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조업 기반 강화 및 대미 협력 복원을 병행 추진

##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통상〉

#### □ (미국)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 통한 제조업 육성 및 경제안보 강화

- (상호관세) 183개국에 대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근거, 상호관세 부과
  - EU 포함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율 확정
  - (상호관세) 183개국 대상 발표<sup>'25년 4월 1일</sup>, 68개국 및 EU 대상 상호관세율 발표<sup>'25년 8월 1일부</sup>

美 USTR(무역대표부) 산식		美 USTR 상호관세 산식 설명
$\Delta \tau_i = \frac{\text{관세의 무역탄력성} \times \text{가격전가도} \times \text{수입}_i}{4 \times 0.25 =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th>\max(-\Delta \tau_i / 2 \times 100, 10)</math></li> <li>* <math>\Delta \tau_i</math> : i국 대상 미국의 순수출, 즉 순수입인 무역 적자 의미 = "무역수지 적자 <math>\times 1/2</math>"과 "10%" 중 큰 값을 상호관세율로 적용한다는 의미</li> <li>* 만약 미국이 흑자면, 상호관세는 0+기본 10% 상호관세 → 무역 적자 규모와 상호관세율 비례</li> </ul>
$\frac{\text{수출}_i - \text{수입}_i}{\text{수입}_i}$		

자료: USTR 기반 KOTRA 재가공('25년 11월)

-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50% 품목관세 부과, 반도체 및 의약품 부과 예고
  - (자동차) 美 상무부, 232조 적용 자동차 부품 관세 품목 확대 절차 착수

- (개요)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 추가 절차를 위한 임시 최종 규칙 발표(9월 16일)에 자동차 부품을 신규 추가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수립하도록 규정
  - 이번 임시 최종 규칙은 해당 관세 목록 확대를 위한 절차 개시를 목적
- 美 상무부, 업계 의견 수렴 후 60일 내 신규 관세 대상 확정 예정
  - 산업안보국(BIS)은 매년 1·4·7·10월 총 4차례에 걸쳐 미국 자동차 업계 의견을 수렴. 첫 번째 접수는 10월 1일부터 시작해 14일간 진행

– (철강·알루미늄) 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접수 개시

-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요청 접수 공고
- 산업안보국(BIS)은 232조 철강·알루미늄 50% 부과 대상 파생상품 목록 추가를 위한 신청 진행 ('25년 10월)

#### □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제조업 육성 정책

-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역량 강화 적극 추진
  -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 및 국가안보 목적 품목별 관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미국 제조업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
-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원 확보
  - 미국 반도체 제조사 인텔(Intel)에 정부가 투자하는 조건으로 지원 10% 확보
    - \* △ US Steel 정부 지원(골든 세어) 확보 △ MP Materials 희토류 지원 취득 △ 엔비디아·AMD 對 중국 매출의 15% 징수 등 전략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직접 개입 확대

#### □ (캐나다) 주간(州間) 무역 장벽 완화 및 ‘Buy Canadian’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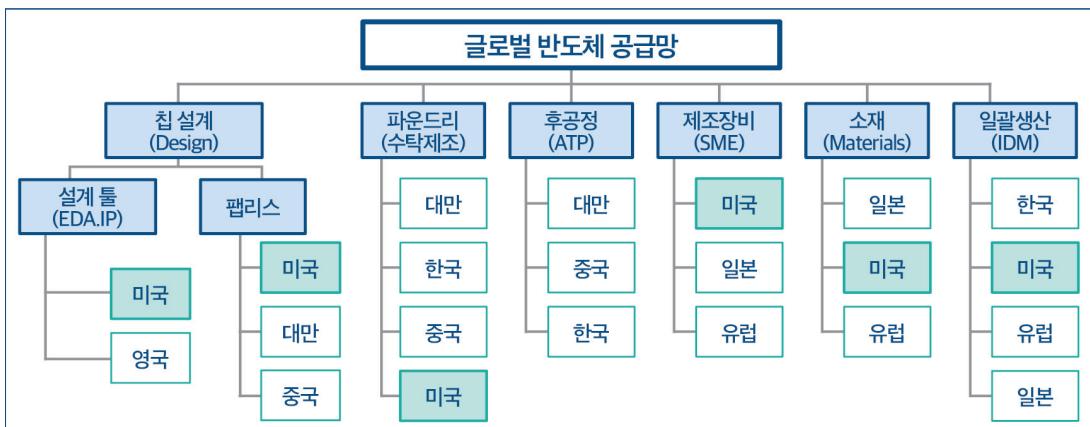
- '25년 6월 정부는 'One Canadian Economy' 법안(Bill C-5)을 통과시켜 연방-주 간 규제 장벽 완화 및 내수시장 통합을 추진
  - 주별로 상이했던 면허·규제 체계를 단일화해 상품·서비스·노동 이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전국 단위 사업 운영 환경을 개선
  - 동시에 정부 조달 시 캐나다산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Buy Canadian' 정책을 시행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
  - Bill C-5와 Buy Canada는 연방 차원의 '단일시장 정비+자국 산업 보호'라는 이중 전략으로, 대외 교역 리스크 속 경제 자립성 제고를 목표로 함

## 〈공급망〉

###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어 엔비디아 H20 등 對中 반도체 수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파급 영향에 대한 관심 고조

- 미국은 '22년부터 14nm 이하 반도체 공정을 규제 및 엔비디아 H800 등 中 우회용 반도체 수출도 차단, 對中 첨단 반도체 기술 유출 견제
  - '25년 8월에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에 대한 칩 판매 허가를 조건으로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공유(Revenue-share)하는 계약을 체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2년)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 통제 조치 발표('25년 8월)
  - \* 美 상무부가 VEU 지위를 승인한 외국 사업장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장비 등 특정 품목을 개별허가 없이 반입 가능(허가가 면제되는 품목의 종류는 기업별 상이)
    - VEU 지위 철회 기업은 120일 유예 후 '25년 12월 31일 발효,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 건별로 미 상무부 수출 허가 필요

### □ (캐나다) 공급망·경제안보 전략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경제안보 강화 전략'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
  - 미국·EU와 핵심광물,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투자 인센티브 및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

- '25년 7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심사법(ICA, Investment Canada Act)을 통해 AI·양자·국방·우주 분야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 GDP 대비 국방비를 2% 수준으로 확대('25/'26년 회계연도), 방산·첨단 제조업 및 동맹국 간 공동 조달 프로젝트 참여 확대
- 'Five Nation Project'를 출범시켜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와 전략 인프라·방위산업 공급망 공동 구축

## 〈전력·에너지〉

### □ (미국) 전통 에너지 산업 르네상스 추진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환경 규제를 유예함과 동시에, 석유·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대통령 권한을 전면적으로 활용
  - 공공토지 내 석유·가스 채굴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원자력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본격 시행
  - 에너지 안보 확보, 기술 선도 지위 유지, 초당적 지지 기반 확보 위해 국제 협력 강화와 세액공제·재정 지원, 법·규제 개선 통해 원자력 산업 활성화
    - \*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100GW에서 2050년까지 400GW로 확대하고, 규제 허가 절차(NRC licensing) 가속화, 실험 및 파일럿 원자로 건설 촉진, 원자력 연료 재처리·재활용, 핵연료 공급망 강화 추진(美 연방에너지부, '25년 6월)
- 재생에너지 사업 승인 취소 및 세액공제 축소 등 청정산업 규제 및 지원 삭감
  - Wind & Renewable Energy 제약·조정, 해상 및 일부 육상 풍력 프로젝트의 리스 및 허가를 일시 중단 또는 철회(Sidley, '25년 1월)
  -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세제혜택 조정 본격화
    - \*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1대당 \$7,500) 폐지('25년 9월) 등
  - 美 OBBBA 등 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25~'30년 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전망이 전년 대비 약 50% 하향 조정됨(IEA, '25년 10월)
- '25년 2분기 미국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는 총 680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
  - 이는 전체 민간 고정투자의 4.8%에 해당하며, 3분기 연속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청정 투자 기반이 일정 부분 유지

### 〈분기별 청정 투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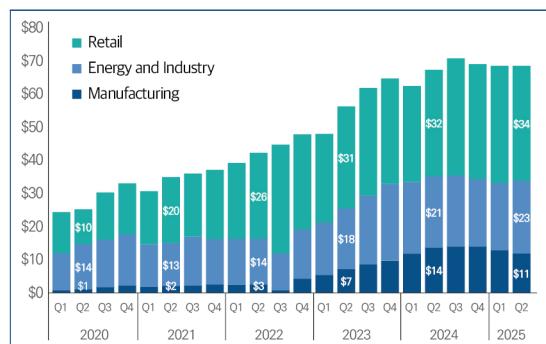
(단위: USD 십억)



자료: 로듐 그룹, 청정 투자 모니터(Clean Investment Monitor)

### 〈부문별 청정 투자 동향〉

(단위: USD 십억)



자료: 청정 투자 모니터,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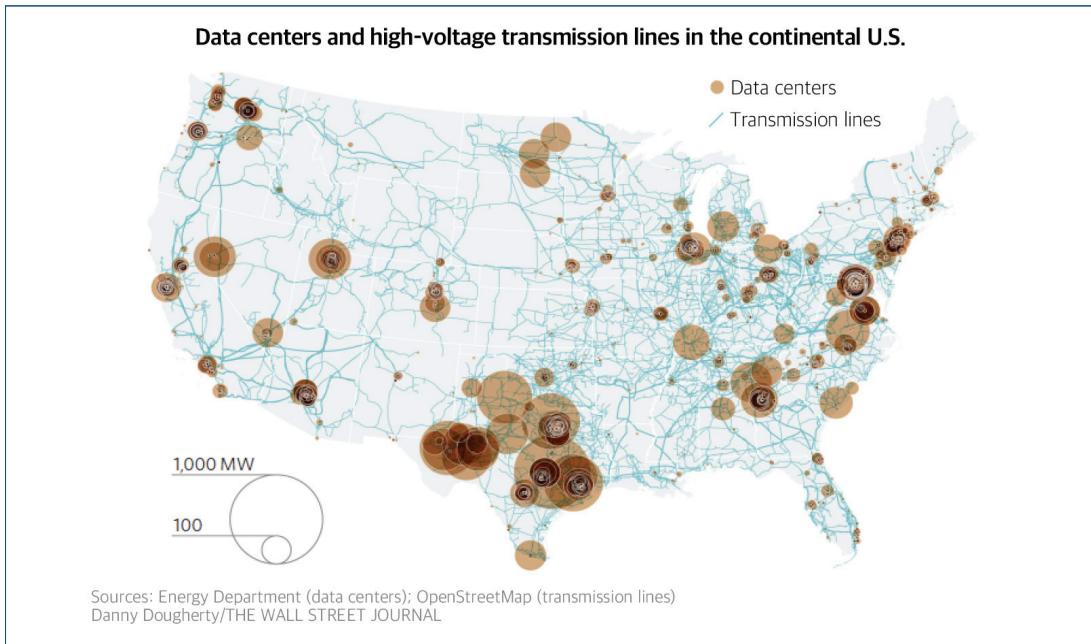
### □ (캐나다) 청정에너지·기후 변화 대응 정책 강화

- 미국은 원자력·석유·가스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반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2035년 무탄소 전력’ 목표를 재확인, 청정에너지 전환을 국가 성장축으로 설정
  - SMR,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포집(CCUS)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확대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톤당 CAD 80('25년)에서 '30년까지 CAD 170으로 단계적 상향 예정
  - '26년 전기차 20% 의무판매 목표는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시 유예, 전환 속도 조정
  - 우리 기업에는 원전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CCUS 설비 등 진출 기회가 확대되거나, 철강·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비용 상승 부담 상존

### □ (미국) AI 산업 투자 확대

- 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장 및 전력계통 강화를 위해 ‘America’s AI Action Plan’ 및 관련 행정명령 발표('25년 7월)
  - 연방정부가 AI 인프라(특히 AI 데이터센터), 송전선 등의 구축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화

### 〈데이터센터 및 고전압 송전망 분포 현황〉



자료: WSJ('25년 10월)

### □ (미국) 2050 원자력 에너지 3배 확대 달성 로드맵 발표('24년 11월)

- 미국은 지난 COP28에서 다른 24개 국가와 함께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총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선언
  - 자국의 원자력 발전 총량 3배 확대는 서약국의 의무가 아니라, 미국의 청정경제 확대와 더불어 평화로운 원자력 에너지의 국제적인 확산을 선도
  - COP29에서 6개 국가가 '2050 원자력 에너지 3배 선언'에 추가로 동참
    - \*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케냐, 코소보, 나이지리아, 튜르키예
- '50년까지 신규 원자로 건설, 기존 원전 출력 증강, 폐쇄된 원전 재가동 등 추진하여 200GW의 신규 발전용량 확보 예정
  - '35년까지 35GW 증설, '40년까지 15GW의 증설을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 산업역량(공급망 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

## 2050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3배 로드맵 주요 실행 과제

연번	실행 과제	주요 내용
1	신규 대형 원전(기가와트급)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액공제 제공, 파이낸싱 지원, 프로젝트 지원, 수요자 매칭, 인허가 단축, 국제 협력 등</li> </ul>
2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이낸싱·연구개발 지원, 군·연방부지설치 검토, 연료 확보, 신규 규제 프레임워크 등</li> </ul>
3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규제 프레임워크, 연료 확보, 프로젝트 관리, 군·연방부지 설치 검토</li> </ul>
4	운영 연장, 출력 증강, 폐쇄원전 재가동 등 기존 운영 원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 운전 하가 검토 협의, 설계 수명 연장 연구, 출력 증강·재가동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 출력 증강 기술 개발, 재가동 원전에 대한 재정지원 등</li> </ul>
5	인허가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 절차 효율화, AI 등 신기술 활용, 인력 충원, 신규 인허가 프레임워크 도입 등</li> </ul>
6	인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력 개발을 위한 에너지부 보조금, 노조와의 협력</li> </ul>
7	기자재 공급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망 기업 세액공제, 북미 공급망 협력, 신규 공급망 기업 인센티브 제공, 일반 등급 부품 활용 확대 등</li> </ul>
8	핵연료 공급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 내 우라늄 역량 농축 확대, 샤포로5 국제 공조, 재정지원, 폐우라늄광산 정화 등</li> </ul>
9	사용 후 핵연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간저장시설 설치, 장기저장 위한 기준 마련, 지속 가능한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등</li> </ul>

자료: 백악관(24년 11월)

### 3. 주요 이슈 Pick

#### 가. (통상) 미국發 새로운 무역질서 속 공급망 다각화

##### □ 텐베리 체제 선언, 상호관세 부과 → ‘트럼프 라운드’ 양자 무역협상 전개

- 미국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 도입 발표(‘25년 4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기본 관세와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57개국을 대상으로, IEEPA에 근거해 기본 관세에 더해 추가적으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 ※ 상호관세 부과 현황

- 대상 : 모든 국가
- 적용 시점 : 8월 7일부터 시행 중
- 근거법 :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 주요국 관세율 : 한국(15%), EU, 일본(15%), 베트남(20%) 등
- 적용
  - 부속서 I에 협상 완료 혹은 진행 중인 69개 주체별 관세율 명시
    - \* 협상 이후에도 관세율이 수정될 수 있음.
  - 부속서 I 내 명기되지 않은 기타 국가에는 10% 관세 부과
  - 유럽연합/일본/한국은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범위에 따라 상호관세 적용 상이

구분	유럽연합/일본	그 외 국가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 15%	= 15% * 최대 15%를 넘지 않음 (최혜국대우 관세/한-미 FTA 관세 + 상호관세)	최혜국대우 관세 + 상호관세 = 최종관세
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 > 15%	= 최혜국대우 관세(상호관세 無)	

- 중국은 본 포고문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적용 예외 사항
  - 232조 품목 관세 대상(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구리 등)
  - USMCA 협정 준수 품목(캐나다, 멕시코)
  - 수입품 가치의 최소 20%가 미국산인 경우, 미국산은 관세 예외
  - 부속서 II에 명시된 품목 : 반도체 소재,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 50 USC 1702(b)\* 해당 품목 : 정보 출판물, 인도적 목적의 식량 등
    - \*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하에서 대통령이 외환·지급/이체, 수출입 거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문의 예외 항목을 명시

## □ 美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 첫 심리 진행('25년 11월 5일)

- 앞서 1심 국제무역법원('25년 5월)과 2심 워싱턴 D.C. 연방순회 항소법원(8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
- 트럼프 정부는 대통령 비상권 발동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인해 미국 경제와 안보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관세 정당성을 주장
- 반면 소송을 제기한 대리인은 관세는 곧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되어 있다고 반박

### ※ 주요 쟁점

- ① IEEPA 관세 법적 근거 및 권한 해석
  -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의회의 통상·조세 권한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
  - IEEPA는 금융·외환·투자 통제 중심의 제재 수단으로 설계,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해석상 이견 존재
- ② 국가 비상사태 요건 충족
  - 무역 적자·산업경쟁력 저하가 IEEPA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타당성 논쟁
    - \* △ 특이·비범한 위협, △ 해외 기원, △ 비상사태 선포, △ 그 위협 대응 목적
  - 행정부는 무역 적자 확대 및 제조업 기반 약화를 비상 위협으로 주장했지만, 다수 전문가는 무역 적자가 국내 저축·투자 구조 등 내생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
- ③ 삼권분립 및 중대질문\* 원칙 적용
  - 입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행정부의 정책 재량 행사를 제한하는 대법원 원칙
  - IEEPA를 구조적 무역정책·상호관세 수단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의회의 통상·조세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 쟁점화
- ④ 경제적 사실 및 제조업 영향 검증
  - 제조업 약화·공급망 위험 주장 대비 실제 산업 생산·수출·부가가치 지표 검증 및 관세의 기업 비용·투자 영향 논쟁

자료: KOTRA('25년 11월)

- 판결 시기는 미정(통상 3~6개월 소요)으로, 최종 판단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 및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위헌 판결 시, 행정부는 기존 관세 철회·환급 절차를 이행하고,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통상법 제301조 등 기존 법률 수단으로의 전환 예상
    - \* 무역법 제338조, 제122조 등 기존 무역법 조항을 통해 제한적 관세 부과는 가능하나 IEEPA와 같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조치는 불가능
  - 합헌 시, 행정부의 IEEPA 관세 권한 해석이 정례화될 경우, 향후 대외 협상에서 비상경제권 활용 확대 및 동맹국 대상 관세 활용 증가 가능

### 트럼프 행정부 주요 대안

법률	관세 부과 근거	관세율 제한
무역법 제338조	미국 상업에 대한 차별	최대 50%
무역법 제122조	국제수지 불균형	최대 15%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 위협	없음
무역법 제201조	국내 산업 피해	50% 인상(1년 후 단계별 축소)
무역법 제301조	무역협정 위반 또는 미국 기업 차별	없음

자료: KOTRA('25년 11월)

### □ 제조업 부흥과 미국 내 일자리 증가, 공급망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 품목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로 품목별 관세 시행 및 추가 조사를 통한 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알루미늄·철강 등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 추가적인 제232조 조치 발표 예고
  - 의약품의 경우 100% 품목관세 부과를 '25년 10월 1일부로 예고했으나, 시행시기 연기

### 품목 관세 부과 현황('25년 11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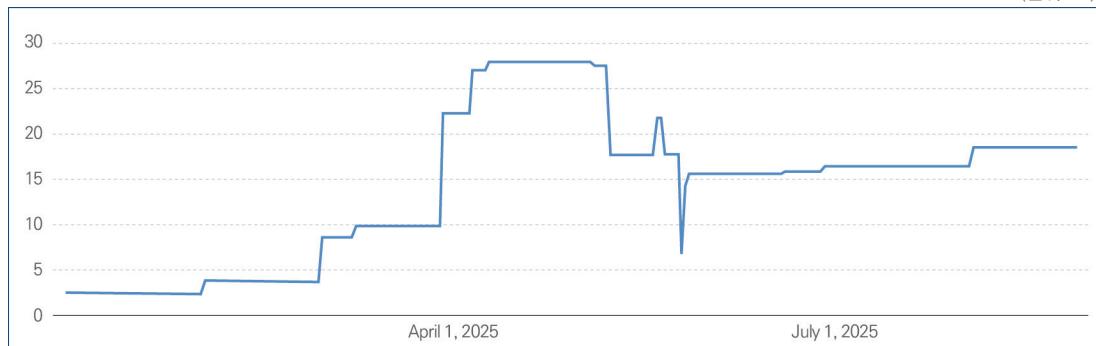
품목	관세율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 50%(철강 알루미늄 함량 가치 외는 상호관세 15%)
구리	• 50%(구리 함량 가치 외는 상호관세 15%)
자동차·자동차 부품	• 일, EU 15%, 영 10%, 기타 25%
중대형 트럭·버스	• 25%/10%

자료: 미국 정부 관보발표('25년 11월)

- \$800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소액소포 면세(De Minimis) 폐지
  - 미국에서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 또는 복잡한 통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었으나, '25년 5월 2일부 중국 및 홍콩발 소포에 대하여 면세 제도 폐지
  - '25년 8월 29일부 모든 국가 대상 de minimis 면세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되어, 어느 나라에서 보내온 소포든지 저가 물품도 부과 대상
  - 새 규정에는 국제 우편 배송 물품에 적용되는 단일세율(flat rate duty) 또는 종가세 방식으로 (ad valorem)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
-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 소액 소포의 무관세 종료 등은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을 크게 끌어올림
  - \* 8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 18.61%('25년 8월 6일까지 미 정책 반영 기준, The Budget Lab)

### 〈'25년 1~8월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 변동〉

(단위: %)



자료: The Budget Lab at Yale('25년 8월)

### □ 상호관세 부과 이전, China+1 공급망 상황

-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 아세안은 중국, 미국, 일본 등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거점이자 수출시장
  - 중국의 생산비용 증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다변화, 아세안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외국 투자 증가

### 아세안 국가 대상 FDI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17,721.01	212,236.32	230,786.26	208,340.30	225,956.59
한국	6,670.27	10,429.88	15,135.73	3,725.11	7,579.51
중국	7,182.60	17,313.92	15,641.57	17,341.00	19,321.25
EU	10,532.04	28,768.28	28,794.56	19,658.92	20,015.53
미국	20,077.17	32,028.86	24,785.16	84,420.77	42,126.70

자료: Aseanstats('25년 10월)

- 아세안 5개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중간재 비중이 높은 편
  - \* '22년 아세안5 전체 수입에서 한·중·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이며, 이들 3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상당 부분이 중간재(한 89.0%, 중 66.6%, 일 75.9%)
- 아세안 국가들은 글로벌 제조업 분화 속에서 한·중·일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미국 등으로 최종재를 수출하거나 중국 등 인접국으로 다시 중간재를 수출하는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 중
  - \* '22년 아세안5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17.1%), 중국(15.7%), EU(10.4%) 등이며 대미·대EU 수출은 최종재가 절반 이상(미 64.3%, EU 51.4%)을 차지,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70.5%)이 높음
  - \* '23년 우리의 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83.7%이며, 최종재 비중은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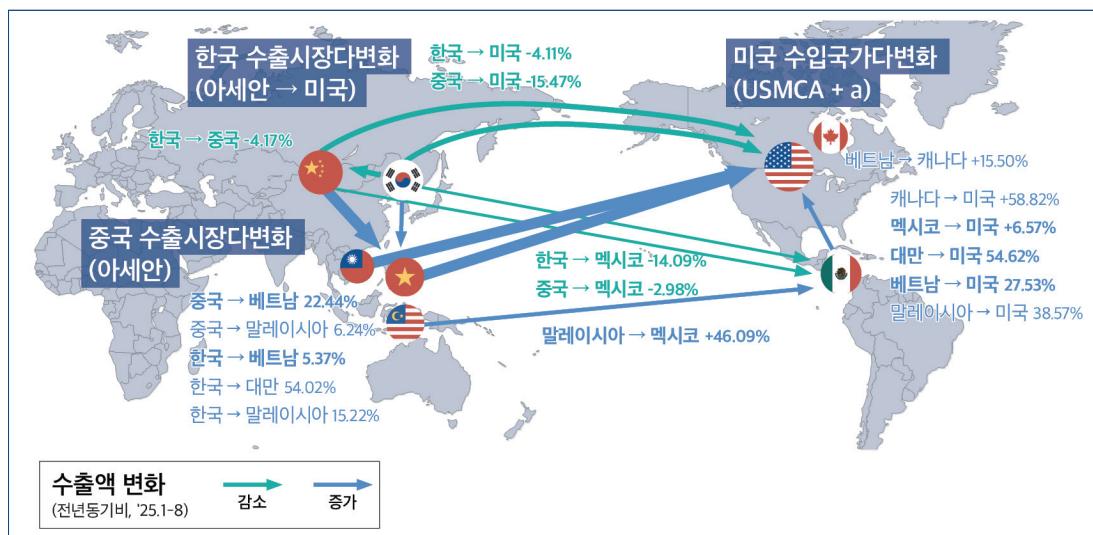
## □ 지정학적 역학에 따른 북미 공급망 재편, 미국의 내향적 통상 기조 강화

- 글로벌 트랜지션 리포트\*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조달 확대할 의사를 40%로 밝혔으며, 듀얼소싱 32% 등 이중 공급망 구축도 선호
  - \* 31%의 기업은 새로운 규제 영향 완화를 위해 공급망 전략을 조정할 계획, 아울러 32%의 기업들이 듀얼소싱 확대 의사, 46%의 기업이 시장다각화(Trade in Transition 2025 리포트)

## □ 관세 부과 후 무역 경로 변화 및 공급망 재편(하기 '25년 8월 기준 수치)

- 한국은 대미·대중 수출 감소 → 대만, 아세안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 한국 대미 수출 4.11% 감소, 대중 수출 4.17% 감소
  - 베트남으로 수출 5.37% 증가, 대만 수출 54.02% 증가
- 중국은 대미 수출 감소 → 아세안 수출 증가
  - 중국 대미 수출 15.47% 감소, 중국의 베트남 수출 22.44% 증가
- 아세안은 대미국, 멕시코 수출 증가
  - 베트남의 대미 수출 27.53% 증가, 말레이시아의 멕시코 수출 46.09% 증가
- 대만의 대미 수출 54.62% 증가, 반도체 수출 증가에 기인
- 미국은 대중 수입 감소 → 아세안, 멕시코로 수입시장 다변화
  -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 6.57% 증가, 대말레이시아 수입 38.5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각 국별 교역 현황 변화('25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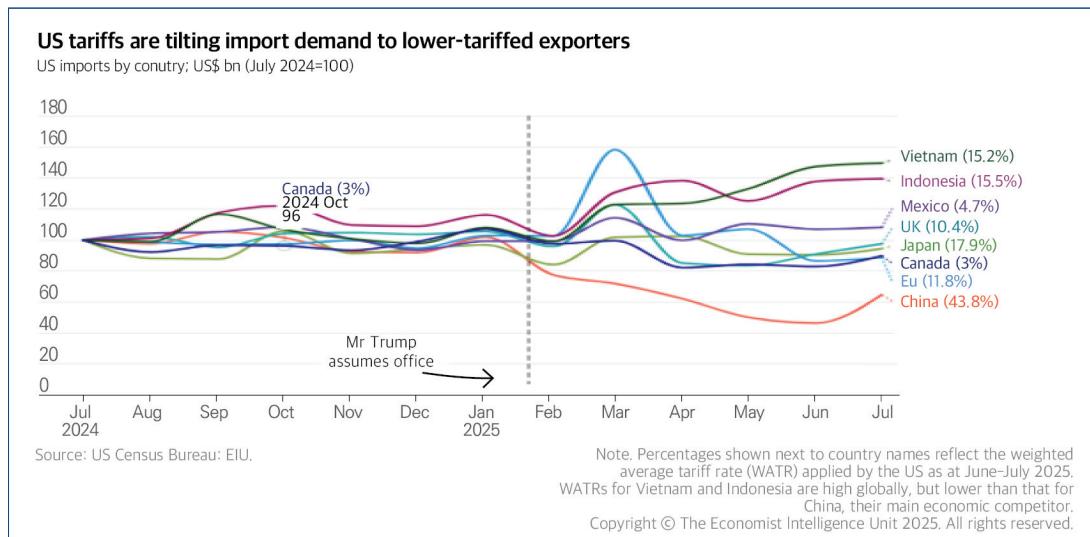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KOTRA('25년 8월)

## □ 우리 기업 미칠 영향 및 기회 요인

- (미국 기업의 수입선 다각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축소하고, 한국 및 아세안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을 확대 중
  - 미 글로벌 유통망, 제조기업 등 공급선 다각화 추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변화〉



자료: EIU('25년 9월)

- (상대적 시장 경쟁력) 상호관세율 15% 및 한-미 FTA 효과 유지
  -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감소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25년 9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소폭 감소, 102억 4,000만 달러 수출 달성,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 및 시장접근력 유지
- (아세안 진출)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중국산(상호+펜타닐+301조) 대체 수요 활용
  - 특히, 중국산 동남아 우회수출 단속 강화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생산제품으로 수입 전환 유리
    - \* 베트남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중국산 우회수출에 대해 40% 추가 관세 부과 예고
- (USMCA 개정) '26년 7월 USMCA 개정 논의 예정 및 최근 멕시코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의 관세율을 1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25년 9월)함에 따라 USMCA 활용 불확실성 증가
  - USMCA 활용한 대미 수출은 가능하나 원산지 충족 부담, 對멕시코 관세 인상 가능성, 노동·정치 불안정, '26년 개정 검토 등 리스크가 상존
  - 반면, 중국 대체 공급망으로서 한국 기업 선호도가 높아지고 북미 OEM과의 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등 멕시코 생산의 비용 절감 및 시장 연계 이점은 여전히 유효

### ※ 멕시코 정부, 수입 관세 인상 계획 발표(9월 15일)

- 주요 내용

- 멕시코 정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서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의 관세율을 1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
  - (적용 품목) 17개 전략 분야는 자동차(경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의류, 가전 등이며, 품목 수로는 1,463개(세부 품목은 미공개)
  - (관세율 변화) 1,463개 제품의 현재 평균 관세율은 16.1%인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평균 관세율이 33.8%까지 인상될 전망
  - (적용 국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 \* 현재 멕시코는 미국·캐나다·EU·EFTA·일본 등 50개국 이상과 FTA 체결, 우리와는 미체결
- 시행시기 : 연방의회의 정부 예산안 승인 후 수입관세 인상 관련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면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
  - \* 시행기한(효력기한)은 '26년 12월 31일까지

자료: KOTRA('25년 9월)

연번	전략 분야	품목		현 관세(%)	목표 관세(%)
		개수	백분율(%)		
1	자동차 부품	141	9.6	0~35	10~50
2	자동차(경차)	13	0.9	15, 20	50
3	의류	308	21.1	10~35	35, 50
4	플라스틱	79	5.4	0~35	10~35
5	철강	248	17.0	0~50	20~50
6	전자기기	18	1.2	0~35	35
7	장난감	37	2.5	0~15	35
8	섬유	398	27.2	0~35	10~50
9	가구	28	1.9	0~35	35
10	신발	49	3.3	0~35	35
11	가죽 제품	18	1.2	0, 20	35
12	제지·판지	47	3.2	0~35	15~50
13	오토바이	8	0.5	0, 15	35
14	알루미늄	21	1.4	0~50	35
15	트레일러	1	0.1	0	35
16	유리	25	1.7	0~35	35,50
17	비누, 향수, 화장품	24	1.6	10, 15	35,50
비고		1,463	100	평균 16.1%	평균 33.8%

자료: KOTRA('2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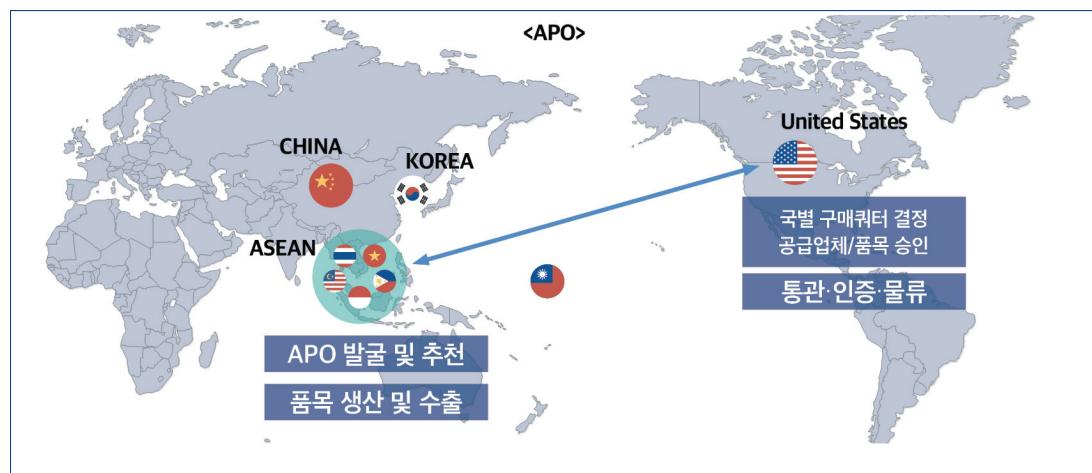
- (APO 활용) 미국 글로벌 기업의 중국 이외 타 아시아 국가로 소싱 다변화 움직임
  - 중국산에 의존하던 소싱 구조 변경을 위해 베트남 등에 구매 오피스를 신설·확장하는 등 멀티 소싱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중
  - 아세안 국가의 평균 상호관세율이 19%로 한국의 15%보다 높은 편이나, 저임금 구조와 미국 글로벌 기업의 아세안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고려, 아세안 진출 기업의 북미 수출 적극 추진 필요
  -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무역협정, 태국·베트남과 프레임워크 합의
    - \* 캄보디아·말레이시아와의 무역협정에는 투자 심사, 수출통제, 관세우회(회피) 방지 등 제3국(특히 중국)을 의식한 조항 명시

#### 미국의 동남아시아 4개국 대상 상호관세율 및 주요 합의 내용

국가	상호 관세율	협정 체결 현황	비고
말레이시아	40 → 19%	무역협정 체결 ('25년 10월 26일)	주요 농·공산품 추가 개방, 미국 투자 700억 달러 약속
캄보디아	35 → 19%	무역협정 체결 ('25년 10월 26일)	미국산 관세 완화, 투자·수출 통제, 종국 관련 규정 강화
태국	35 → 19%	프레임워크 합의 ('25년 10월 26일)	공급망·항공기·수출 통제 협력, 추가 협상 예정
베트남	40 → 20%	프레임워크 합의 ('25년 10월 26일)	공급망·관세 회피·수출 통제·시장개방 등 구체안 명시, 추가 협상 예정

자료: 백악관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종합('25년 10월)

#### 〈미국 글로벌 기업의 APO를 통한 구매 프로세스〉



자료: KOTRA('25년 11월)

### ※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아세안으로 수입전환 추진 사례

- 사례1 : 글로벌 유통기업 아시아 구매본부 중국 구매 실링(Ceiling) 부여, 한국산이나 한국의 기술을 보유하고 저렴하게 생산 가능한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으로부터 소싱 희망
- 사례2 : 글로벌 유통기업 아시아 구매본부 베트남으로 이전, 한국 화장품 소싱 희망
- 사례3 : 기존에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던 미국 바이어, 중국 고율관세로 아세안 진출, 한국 기업으로 수입선 전환 희망

자료: KOTRA('25년 10월)

## 나. (경제) 끈적이는 물가, 노동시장 둔화와 금리인하

### □ 미국, 3%대에서 끈적이는 물가

- 정책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미국 경제성장 둔화 전망
  - '25년 2분기 미 경제는 우려와 달리 강력한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이는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감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
    - \* '25년 美 GDP 성장률(%), 전기비 연율) : (Q1 확정치)-0.5, (Q2 확정치) 3.8
  -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과 높은 수준의 금리는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적
  -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품목관세의 후방산업(down stream) 전가로 자동차 부품, 건설 등 원가 상승 및 불확실성의 확산과 경기 둔화는 투자 위축, 고용시장의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관세에 따른 상승된 소비자 물가 전이는 예상보다 느린 편, 그러나 미국 수입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수입자물가지수는 '25년 8월 기준 전월 대비 0.3% 상승, '25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
  - 9월 가솔린 지수는 전월 대비 4.1% 상승, 모든 품목의 월별 증가에 가장 큰 영향, 에너지 지수는 8월에 1.5% 상승, 식품 지수는 0.2% 상승
  -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의 영업마진 확대로 소비자 전가는 50~70%에 그치고 있으며, 유통업체들은 관세 비용의 약 30%를 부담하더라도 여전히 2010년대 평균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 가능
  - 수입 자동차에 대한 15% 이상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9월 자동차 평균 가격 3월보다 약 1.1%로 소폭 상승
  - 자동차 제조업체 이익률 제고로, 제조업체들이 관세 비용의 약 80%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그 중 20%만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

## □ 미국, 금리인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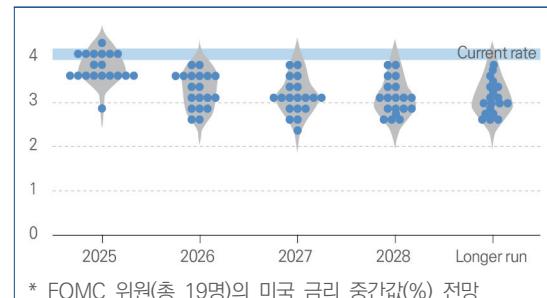
-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0.25%p 인하 발표
  - 경기둔화우려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하며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

〈2000년 이후 연준의 금리 변동〉



자료: Federal Reserve, WSJ 인용('2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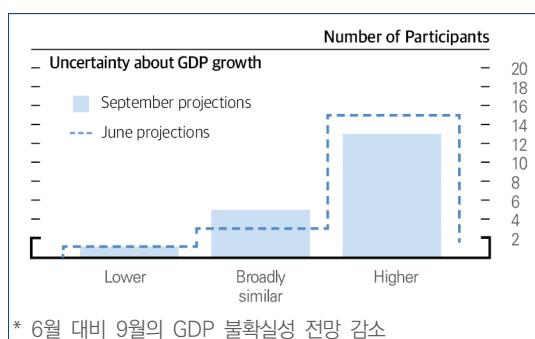
〈미 FOMC 위원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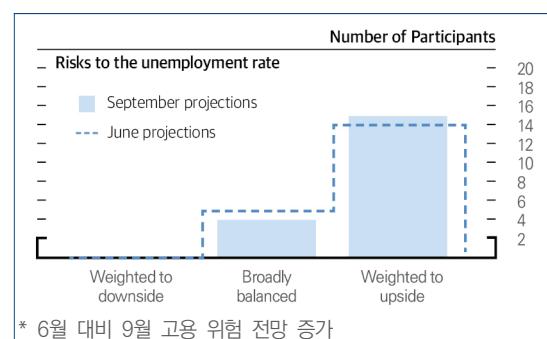
자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T 인용('25년 9월)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점도표가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는 것과 달리 다소 매파적인 입장을 명확히 발언, 신중한 통화정책 운용 기조 전망
  -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고 평하며, 인플레이션과 고용 간 위험 균형이 변화했다고 설명
  - 이번 점도표에서 '25년과 '26년 경제 성장을 전망이 상향 조정된 점을 언급, 이번 금리인하를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라고 판단
  - 미국 경제 상황 관련 “나쁜 것은 아니며, 경제 기본체력은 견조하다”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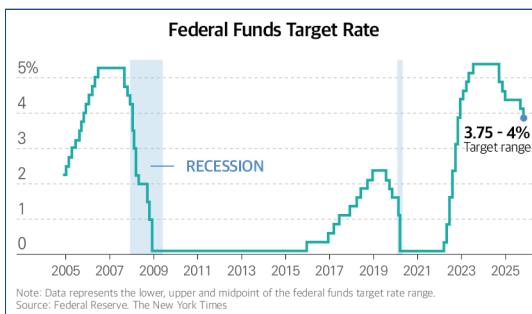
〈FOMC 6월 및 9월의 GDP와 고용 불확실성 및 위험 점도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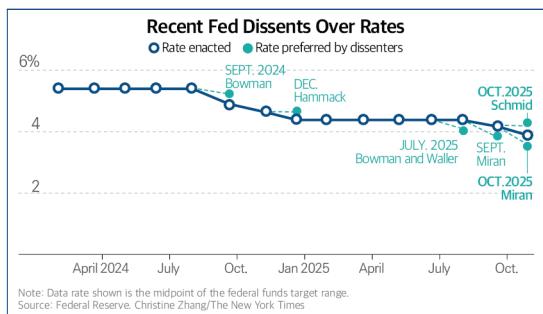
자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Projection('25년 9월)



- 10월 FOMC에서는 연방기금금리의 목표범위를 25bp 인하하여 3.75~4.00%로 유지하기로 결정
  - 아울러 FOMC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12월 1일자로 중단하기로 결정
  - 파월 의장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되었으며 8월까지 실업률은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았음. 최근 데이터도 동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
  - 시장에서는 정책금리 25bp 인하, 대차대조표 축소 종료 발표 등은 예상에 부합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인하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점과 금리동결 등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 등장에 반응
  - \* (소수의견) 빅컷(50bp) 인하(Miran 이사) 및 금리 동결(Schmid 이사) 의견이 각각 존재

**<2000년 이후 연준의 금리 변동>**

자료: New York Times('25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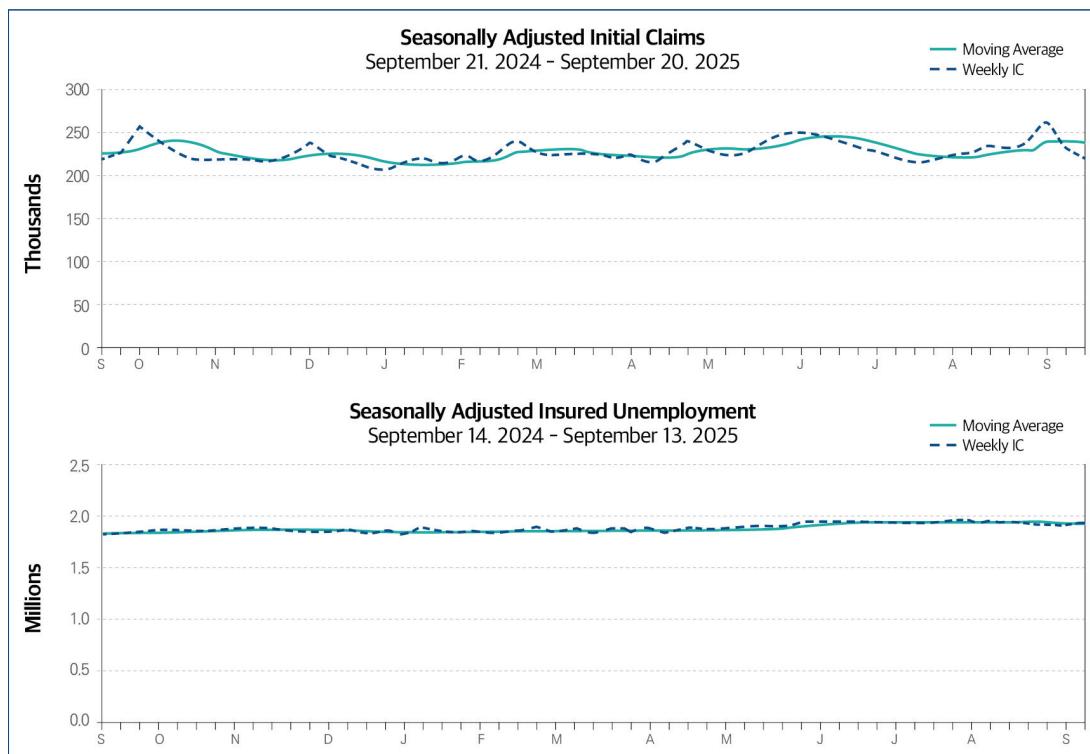
**<미 FOMC 위원 소수의견>**

자료: New York Times('25년 11월)

## □ 미국, 고용시장 둔화

- 9월 20일 종료 주간 계절조정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잠정치는 21만 8천 건, 전주 수정치(23만 2천 건) 대비 1만4천 건 감소
  - 같은 기간 계절조정 보험수급 실업자 수 잠정치는 192만 6천 명으로, 전주 수정치(192만 8천 명) 대비 2천 명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8월 62.3% → 9월 62.4%)은 9월에 8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7월 4.3% → 8월 4.3% → 9월 4.4%) 또한 상승세

### 〈계절 조정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자료: 미 노동부 고용훈련청('25년 9월)

- '25년 10월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해고 계획이 약 15만3천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약 20년래 최고 수준
  - 대표적 사례로 Amazon이 약 14,000명의 기업 내 사무직을 감원할 계획 발표, 이는 AI 등 기술혁신 외에도 과잉 채용 및 팬데믹 수요 정리, 비용 절감, 수요 둔화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

### □ 우리 기업 미칠 영향 및 기회 요인

-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 금리인하 속도 둔화, 가계 실질소득이 압박을 받게 되어 소비재 수요가 위축 가능
- 고금리·물가 압력 때문에 미국 바이어들이 중저가 제품, 대체 공급선 발굴
  - 한국 중견·중소기업 수출 기회. 또한,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 또는 유지 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수출기업은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 확보
- 주택 관련 소비 위축, 가구·가전·건축자재 수요 둔화 예상

## 다. (정치) 2026년 미국 중간선거

### □ '24년 대선 이후 이어지는 여론 지형 변화

- '24년 대선 이후 이어지는 정치적 후폭풍(제도적 정당성, 지지율, 여론 변화 등) 및 중간선거 준비, 공화당 내부 프로젝트(Project 2025) 등이 언론의 관심사
- 중간선거일 : '26년 11월 3일(화)
  - 상원의원 선거 : 전체 100석 중 약 35석(Class 3+특별선거 포함)
  - 하원의원 선거 : 전체 435석

### 의석수 현황

의회	정당	의석수	비고
상원	공화당	53	
	민주당	45	
	무소속	2	민주당과 연대(caucus) 중
하원	공화당	219	
	민주당	213	
	공석	3	

자료: 美 상원·하원 공식 웹사이트('25년 10월)

### 하원 및 상원 구성

구분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Senate)	근거
인원	435명, 인구 비례	100명, 주별 2명	헌법 제1조 §2, §3
임기	2년	6년	헌법 제1조 §2, §3
주요 권한	세입법안 기원, 탄핵 소추	조약 비준, 인사 인준, 탄핵 재판	헌법 제1조 §7(세입), §2(탄핵), §3(조약·인사)
성격	민심 반영, 단기적 변화	안정성, 장기적 관점	헌법 및 의회 안내 자료

자료: 美 상원·하원 공식 웹사이트('25년 10월)

- 대통령 임기 중간선거로, 현 대통령·여당의 지지도와 정책 집행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이며, 의회(상·하원) 의석수 지형 변화 가능성 존재
  - 민주·공화 양당은 정책 메시지, 당내 리더십, 유권자층 변화 등을 재평가 중이며, 예로 민주당은 사회 이슈에서 경제 이슈 강조로 무게를 이동 조짐
- 선거구 개편, 2020 인구 센서스 이후 최근 동향
  - 텍사스·플로리다 :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획정하였으며, 텍사스 하원 의석 5개 추가 가능한 안으로 개편
  - 캘리포니아 : 하원 의석 5개 추가 가능한 안으로 개편

- 최근 오프 이어(Off-year) 선거 동향

- \* (오프 이어 선거) 대통령 선거나 중간선거가 없는 훌수 해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의미
- 뉴욕 시장 선거에서 'Five Boroughs Against Trump' 선거 캠페인을 벌인 무소속 후보 조란 맘다니 당선, 최초의 무슬림 및 밀레니얼 세대 뉴욕시장
-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판버거 당선, 4년 만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주지사 교체, 부지사, 주법무장관 등 모두 민주당이 석권
-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주로 대선 후 열리는 주지사 선거라는 점에서 전국적 정치 기류의 가능자로서 역할, 더불어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민주당이 승리

##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 매년 12개 세부 부문별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나, 의회 상하원 간 불일치, 의료 및 복지 지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 '25년 11월 12일 임시 예산에 합의하며,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 임시 예산 등 양당 합의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행정안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셧다운 기간 중 약 70만 명의 연방공무원 복직과 '26년 1월 30일까지 인원 감축(RIF) 금지, 공무원 임금 소급 지급 추진</li> </ul>
의회 및 감사 기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원(GAO) 예산 식감안을 철회하고 FY202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CRS·CBO 등 의회운영기관의 FY2026 예산을 소폭 증액하여 감사 및 입법기능의 연속성 보장</li> </ul>
주요 부문 FY2026 본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건설·재향군인(MilCon-VA) 및 농무부·식품의약국(USDA·FDA) 부문에 FY2026 전액예산을 반영하여 의료·복지·식품안전·농업R&amp;D 등 핵심 기능 지속</li> </ul>
정부 운영 임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안보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은 FY2025 수준에서 45일간('25년 12월 말경) 임시 예산을 연장하고, 신규 정책 및 복지보조금 항목은 제외</li> </ul>

자료: KOTRA('25년 11월)

## □ 우리 기업 미칠 영향 및 기회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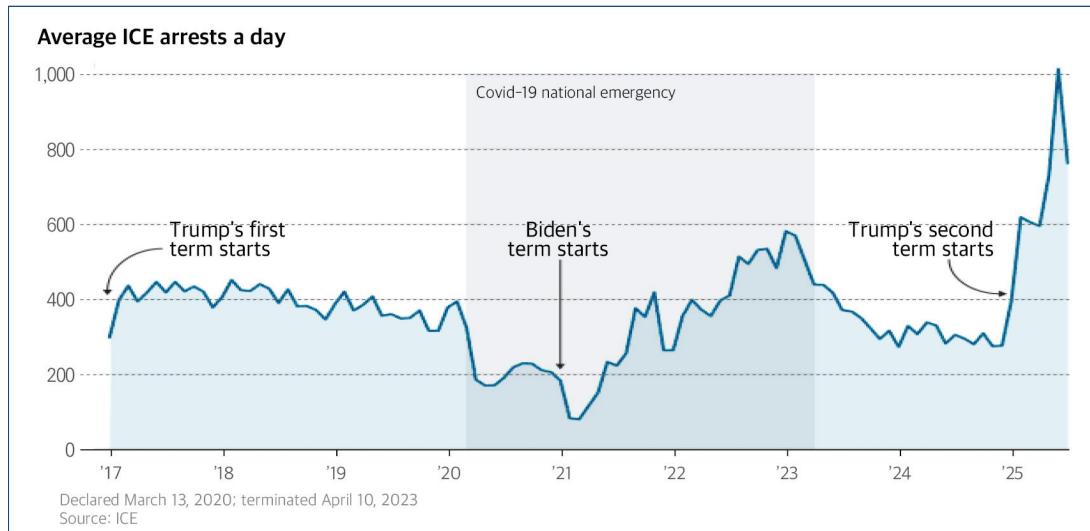
- '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 및 최근 선거 동향 등을 통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력의 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의 미 의회 및 행정부 대상 아웃리치 활동 시 기업의 니즈를 미국 국내 이슈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 일례로 공장 설립 등 기업의 이슈 제기 시, 미국 내에서 중요한 이유와 왜 상대방의 정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지를 미국 측에 설명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연방의회를 상대로 하는 전통적 로비를 넘어서서 백악관 등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중요해짐

## 라. (사회) 보수화되는 이민·노동정책

### □ (미국) 이민·국경 및 시민권 우선순위 증대

- 여론 조사에서 이민이 중요 의제로 부상 중이라는 보도가 반복
-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 등 체포 활동이 급증하였음

〈ICE의 일 평균 체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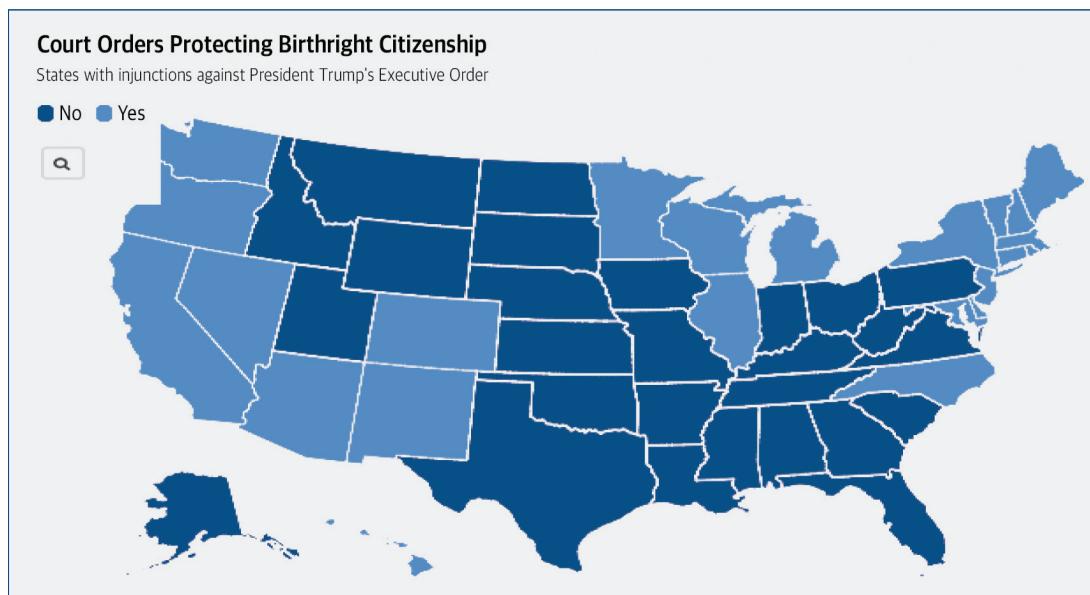


자료: WSJ('25년 10월)

#### • 미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발동

- 행정명령 14160호('25년 1월)가 시행되면서, 부모가 불법 또는 일시 체류자인 경우에는 USCIS가 시민권 발급을 일시 보류하거나 거부 가능
-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등 22개 주는 연방 행정명령이 헌법 제14조 (출생지 시민권 보장)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 '25년 6월 27일 대법원 판결 결과, '하급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전체를 전국 단위로 막는 보편적 가처분(universal injunction)을 발부할 수 없다'고 결정, 행정명령이 일부 주에서는 효력이 남고 다른 주에서는 소송 진행 중인 상태로 혼재

### 〈행정명령 14160호에 대한 소송 제기한 주〉



- 미국,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 달러로 인상
  - \* (H-1B) 외국인 전문직(학사 이상 전문지식 보유) 고용 비자
    - '25년 9월 19일 포고문 발표로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준 대비 100배 증액, 9월 21일 이후 제출되는 신규 H-1B 청원부터 적용

### □ (캐나다) 노동력 부족과 이민 정책 다변화

- '25~'27년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따라 고숙련 인력 선발을 확대하고 저숙련 의존도를 축소
  - 의료·건설·첨단 제조업 분야의 숙련 이민 확대는 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나, 단순 제조·서비스업의 인력 부족은 지속될 전망
  - Bill C-5에 따라 주 간 자격·면허 상호 인정이 확대되어, 우리 기업의 전문직 인력 활용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고숙련 이민자의 확대로 중산층 중심 소비 확대 및 주택 수요 확대 전망

### □ 우리 기업 미칠 영향 및 기회 요인

- 비자 발급 이슈 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및 비용 증가
  - 일정 지연으로 매출 확보 기회 상실, 운영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감소
  - 장기적으로 공정 자동화 제고, 인력 투입 의존도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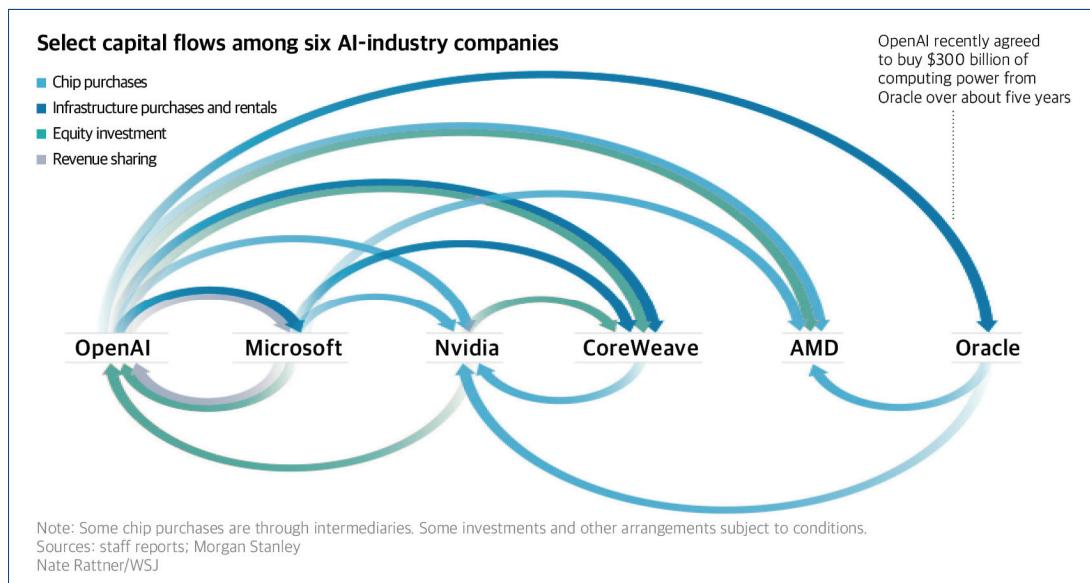
- 진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른 공약 이행 등 미국 국내 이슈와 연계된 아웃리치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첨단산업 종사 우수 과학기술 인력 국내 복귀 유도
- 캐나다 시장 내 프리미엄 소비재, 주거 관련 자재, 교육 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 가능하나, 저임금 노동자 감소로 인해 소매·외식·서비스업 인건비 상승 및 인력 확보 리스크 상존

## 마. (산업) AI 중심 첨단기술 및 산업 인프라 확장

### □ (미국)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 노력 강화

- 미국 AI 붐, 정책과 투자를 통한 내재화(Onshoring) 전략 본격화
  - (AI 행동계획) AI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화를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재정지원 확대
  - (CHIPS) 미 상무부, 약 11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확충하여 반도체 생산 보조금뿐만 아니라 관련 R&D와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민간 투자) '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액 1,091억 달러로 중국 93억 달러 대비 약 12배 규모였으며, 실제 기업의 AI 사용 비율도 급증해 산업 전반에 확산
    - \* ('23년) 55% → ('24년) 78%

### 〈AI 선도기업 간 연쇄 투자 및 투자 방식 다각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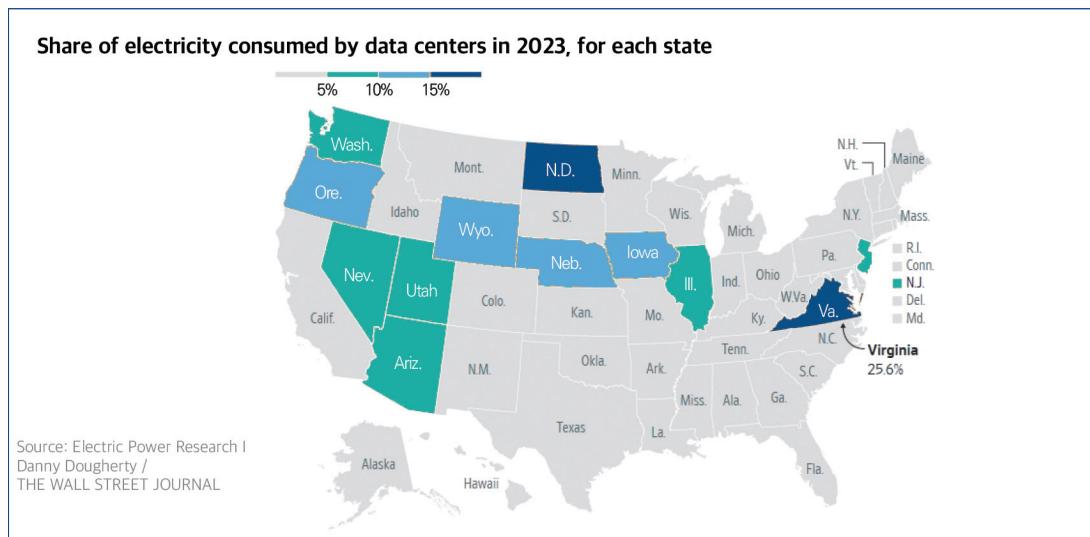


자료: WSJ('25년 10월)

## □ (미국) AI 성장 가속화에 따른 기반 인프라 시장 급성장

- AI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전력·반도체·전송망 등 기반 인프라 수요 동반 급증
  - '25~'26년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액은 4천억 달러 이상 예상
  - 데이터센터용 인프라 시장(서버 냉각, 전력 시스템 등)은 '25년 기준 약 1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34년까지 연평균 약 16.4%씩 성장 전망
    - \* 특히, 서버 냉각장치(수냉식·하이브리드 냉각), UPS·백업 발전기, 전력 관리 시스템(스마트 그리드·배전반) 등 수요 증가
  - 데이터센터 공실률 또한 사상 최저치인 1.6% 기록하며 수요 증가를 반증
  - 데이터센터 시장은 전력 수요 중심으로 급성장 중이며, '24년 말 기준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 용량은 6,350MW로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
  -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설계·조달·시공),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냉난방 공조 설비) 설계 등 전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필수

〈미국 지역별 데이터센터 전기소비량('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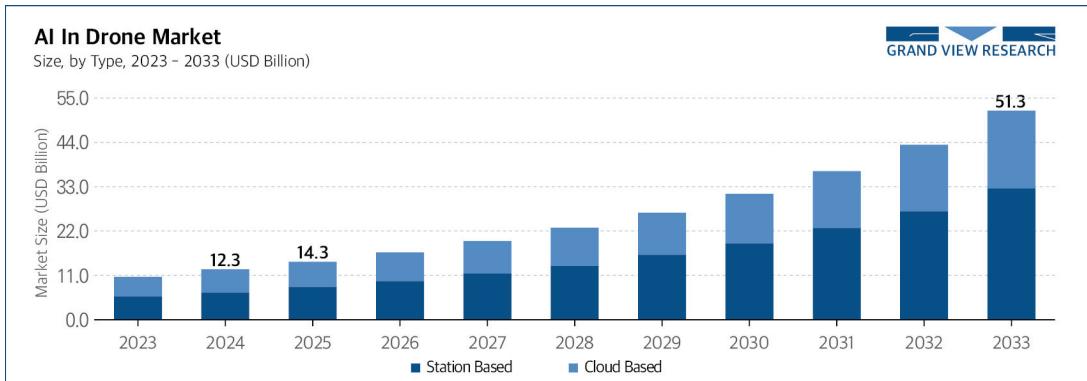
자료: WSJ('25년 10월)

## □ (미국) 전통 산업의 AI 전환 및 신성장 동력 발굴

- AI 확산으로 미국 기업들의 사업 방향 전환
  - 전통 기계·장비 기업의 데이터센터용 설비 분야로 사업 다각화 시도
    - \* (게이츠 인더스트리얼, 고무벨트) 자동차 냉각 기술을 활용해 고밀도 컴퓨팅 환경의 열 부하 관리 솔루션 대응
    - \* (허니웰, 산업솔루션)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에서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

- 로보틱스, 드론을 활용한 무인화 솔루션 상용화
  - 산업·공공 분야에서 정밀 감시, 인프라 점검, 재난 대응, 구조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AI 드론 활용이 확대, '24년 기준 북미에서 약 36% 시장 점유율 보유
    - \* 글로벌 AI 드론 시장 규모는 '24년(약 122억 달러)부터 연평균 약 17.9%씩 성장해 '33년 약 513억 달러 전망

#### 〈글로벌 AI 드론 시장 규모 전망치〉



자료: Grand View Research('25년 6월)

- (제도적 기반) FAA(연방항공청)가 '25년 상용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시야 밖 비행)를 정상화하는 규정안(NPRM)을 제시하면서 배송·측량·보안 등 대규모 상용화 기반 마련
- 칩 제조사 엔비디아가 ChatGPT 개발사인 OpenAI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25년 9월)이며, 이는 벤처캐피탈 지원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 투자
  - 엔비디아가 OpenAI에 모델 운영·학습용 칩을 공급하는 파트너십 체결, OpenAI는 최소 10GW 용량을 구축하고 '26년 상반기 1단계 가동에 맞춰 단계적으로 자금 집행할 계획

#### □ (캐나다) AI·디지털 전환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규정

- 캐나다 또한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5년 5월에는 AI·디지털 혁신 담당 장관직 신설 및 CAD 150억 규모 그린 AI 데이터센터 인센티브를 발표
  -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 제조 스마트팩토리, 의료 AI 진단, 금융 빅데이터, 통신·클라우드, 친환경 데이터센터, AI 응용·데이터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추진

####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북미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확산으로 EPC·설계·시공·감리 등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전력·냉각 설비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기술·원가 경쟁력이 핵심 요인으로 부상

- OpenAI 등 생성형 AI 확산으로 한국의 IT·게임·콘텐츠 산업은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고 있으나, 데이터 주권·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AI 규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 진출 전략의 유연한 대응 필요
- 약 10GW 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ESS 기업의 수출 가능성과 미국·캐나다 공공 프로젝트 기반 PPP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지 인증 절차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

## 바. (문화) 웰니스 트렌드, 라이프스타일로 확대

### □ ‘자기 관리’와 ‘환경적 책임’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라이프 스타일로 확대

- 미국의 웰니스(Wellness) 트렌드 기술 발전, 건강 인식의 변화, 팬데믹 이후의 장기적 영향, 친환경·지속가능성 중심의 소비 가치 확대로 급성장
  - AI, 웨어러블,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 활용 초개인화 건강관리가 급성장
  -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맞춤형 식단·운동·수면·정서 관리가 일상화되며 라이프스타일로 확산
  - 코로나 이후 면역력·정신 건강·수면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웰니스 및 원격진료·심리상담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
- AI, 디지털 헬스케어, 오가닉·클린푸드와 뷰티, 친환경 패키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
  - 스마트 웨어러블·디지털 피트니스·정신 건강 앱 등 맞춤형 솔루션 수요가 늘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코칭으로 기존 건강 관리 한계를 극복
  - AI 융합의 뷰티·헬스 서비스 분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새로운 기회 창출

###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웨어러블·디지털 피트니스·정신건강 앱, 지속가능 원료·포장재, 오가닉 식품·뷰티 등에서 높은 성장 기회
- 웰니스 관광, 기능성 식품·뷰티, 친환경 패키징 등 다양한 소비재 분야로 브랜드 확장·협력 가능
- 미국 시장 진출 시 관세·FDA 등 규제 대응 필수, USDA Organic·Non-GMO 인증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현지 신뢰 구축의 핵심
- 미국 관세 정책은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현지 유통망 구축과 유동성 있는 재고 전략도 필수
- 관세·물류비 전가로 가격 저항 커지며, 가성비 있는 제품 수요 확대
- UFLPA·주 데이터법·ESG 공시 요구가 브랜드 리스크와 직결되므로, 원산지·노동·환경 등 검증 가능한 서플라이체인 스토리텔링 필요

##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40
2. 유망 산업	74
3. 협력 기회	99

# II 시장 분석



## 1. 시장 현황

- (미국)
  -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으로, '24년 소비지출 약 18조 달러로 GDP의 2/3 수준
  - 대규모 개방경제로 미국 MZ세대의 소비 트렌드는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줌
  - 상호관세, 품목관세 등 관세 정책을 통한 강력한 보호주의 기조 유지
  - 강력한 내수 산업(농식품·자동차·철강)과 수입 의존 품목(전자, 생활재)의 구분이 뚜렷
  - 세계표준(분야별 주요 인증 등) 및 첨단산업 혁신 및 첨단 인재 선도
- (캐나다)
  - 미국과 인접한 북미 공급망 연계 거점으로, 안정적 소비시장이자 글로벌 테스트베드
  - 고소득 기반의 프리미엄 소비 성향과 ESG 가치 확산, K-푸드와 K-뷰티 수요 확대 추세
  - 정부의 R&D 세제 지원, '25년 FDI 신뢰지수 2위의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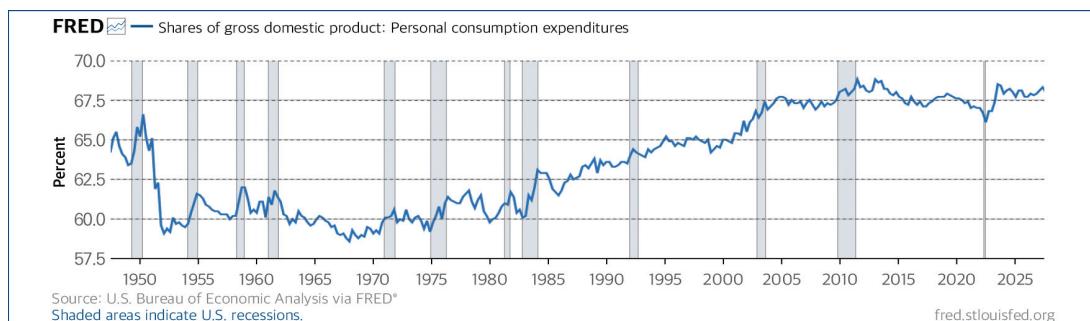
### 가. 시장 특징

#### 〈미국〉

##### □ 내수 규모 및 안정성

-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24년 GDP 29조 1,849억 달러(전 세계 26.2%),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5년 2분기 기준 68%, 지속적 상승 추세
  - \* '24년 전 세계 GDP는 111조 3,264억 달러(World Bank)

#### 〈GDP 대비 소비 비중〉



자료: BEA 재인용('25년 9월)

## □ 소비 트렌드

- 미국의 소비 트렌드로 디지털 전환, 고급화·친환경 소비, MZ세대 구매력 및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가격 민감성 등을 꼽을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e-Commerce가 전체 소매판매의 약 15~16% 수준까지 확대
    - \* Walmart, 매장 기반 배송(store-fulfilled delivery) 확장 및 온라인 주문을 매장에서 처리하는 방식 강화
    - \* Amazon, 농촌 지역까지 당일/내일 배송 서비스에 투자(40억 달러), 상대적으로 빠른 배송 커버리지
  - (고급화·친환경) 전기차 구매 확대, 인증 유기농 제품 매출 확대 등
    - \* 美 인증 유기농 제품 매출, '24년 전년 대비 5.2% 증가한 716억 달러 기록
  - (인구 구조 변화) MZ세대 구매력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확대
    - \* MZ세대는 디지털 및 콘텐츠를 통한 소비가 활발하며, 가성비를 따지면서 동시에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양면적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음
    - \* 55세 이상이 전체 의료비의 56%를 차지, Medicare 부담도 '30년까지 연평균 9.7% 증가할 전망
  - (가격 민감성)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가치를 중시
    - \*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9월 55.1로 8월 58.2 대비 3.1p 하락

###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조사 등 지수

구분	2024년 9월	2025년 8월	2025년 9월	전월 대비 변화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소비자 심리 지수	70.1	58.2	55.1	-3.1	-15
현재 경제 상황	63.3	61.7	60.4	-1.3	-2.9
소비자 기대 지수	74.4	55.9	51.7	-4.2	-22.7

자료: 미시간대(100이 기준, 100보다 높으면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인식)('25년 9월)

## □ 대규모 개방경제로 전 세계 시장 영향

- (원자재·농산물) 미국은 옥수수, 콩, 원유, 가스 등 주요 상품의 세계 공급자이자 동시에 수입국으로 글로벌 가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
- (기축통화) 전 세계 무역의 상당 금액이 달러로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 동향이 곧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에 영향
  -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 달러화 결제비중 81%, 위안화 7%, 유로화 6%
- (국제무역 비중) '24년 전 세계 무역액 32.2조 달러 대비 미국 무역액은 7.3조 달러로 전 세계 무역 중 약 23% 차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율

## □ 분야별 주요 인증, 세계표준 선도

- (제조) UL(Underwriters Laboratories), 대표적인 제품 안전 인증기관
  -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등 미국 시장에 수출 시 UL 인증 필수 요구
- (통신) 미 통신위원회 전자파 적합성 인증(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 전자·통신기기의 전자파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파를 발생시키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며, 인증 방식은 제조사 자체 선언과 공인 시험기관 인증으로 구분

### 분야별 대표 인증 및 적용 대상

산업 분야	필수/대표 인증	주관 기관	적용 대상/설명
전자·전기 제품	UL 인증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안전성(감전, 화재 등) 시험 합격 시 부여. 필수는 아니지만 유통망 입점 필수 수준
	ETL 인증	Intertek	UL 대체 안전 인증. 대형 리테일러에서도 인정
	FCC 인증	FCC (연방통신위원회)	무선·통신기기, 전자파 방출 제품 필수. 판매 전 반드시 획득해야 함
	CSA 인증	CSA Group (캐나다)	캐나다 기준이지만 북미에서 병행 요구됨. 전기 안전 관련
가전·사무기기·건물	Energy Star	EPA & DOE	에너지 효율 우수 제품 인증. 정부 조달 및 리테일 판매에 유리
식품·의약·화장품·의료기기	FDA 승인/ 등록	FDA (미국 식품의약국)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필수 인증. 등급별 사전 허가 필요
화학·환경 관련 제품	EPA 인증	EPA (환경보호청)	화학제품, 농약, 배출가스 규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제품 등
자동차·교통	DOT 인증	DOT (교통부)	자동차, 타이어, 운송장비의 충돌·안전·내구성 기준 충족 필수
소비재·장난감	CPSC 규제 준수	CSP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일반 소비재 안전성. 특히 아동용 제품은 CPSIA 기준 필수
산업 장비·기계류	ANSI 인증	ANSI (미국표준협회)	산업 기계·안전 장비 표준. 특정 산업군에서 요구

자료: KOTRA('25년 11월)

## □ 글로벌 기술 및 첨단산업 혁신 선도

- 미국은 글로벌 기업의 거점으로 전 세계 자본이 집중되는 시장
  - 포춘 500대 중 138개(27.6%) 미국 기업, 100대 혁신기업 중 56개 미국 기업
  - '24년 FDI 5.7조 달러(6.2% 증가), FDI 신뢰지수 1위(A.T. Kearney)
  - 세계 상위 100대 대학 중 38개 미국 소재

### 주요 기구 경제 용이성 평가 내 미국-경쟁국 간 순위 비교

구분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싱가포르
FDI 경쟁력(A.T.Kearney, '25년)	1	2	6	3	15
글로벌 혁신성(코넬대·INSEAD·WIPO, '24년)	3	14	11	5	4
국가 경쟁력(IMD, '25년)	13	11	16	29	2
경제 자유도(헤리티지재단, '25년)	26	14	151	33	1

자료: 각 홈페이지('25년 9월)

- 미국의 '23년 GDP 대비 R&D 비율은 3.39%로, OECD 평균(2.73%) 상회, 이스라엘 및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스라엘 6.02%, 한국 5.21%)

#### □ 첨단산업 최고인재 시장

- 미국은 STEM 분야 인력 수요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숙련인력 부족이 심화될 전망,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민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첨단산업 고급인재 유입 제도는 유지
  -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내 대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거나 캐나다 등 대체 허브 강화 가능, 일부 기업은 원격·하이브리드 근무 등 활용 확대 예상

#### 〈캐나다〉

#### □ 문화 모자이크 기반 다문화 사회, 다양한 소비자 반응 기대

- (문화 모자이크 기반 시장)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를 특징으로 하며,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복합적 소비시장 형성
- (선진국형 안정 시장) 캐나다는 인구 약 4천만 명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높은 1인당 GDP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소비시장 형성
- (정부 R&D 지원과 안정적 환경) 캐나다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지원과 높은 비즈니스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 구조 보유
  - 정부는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기업(CCPC,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은 연간 최대 CAD 300만 까지 35% 환급 가능, '24년 발표된 개정안에 따라 향후 CAD 450만까지 확대 예정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21~'25년 세계 기업 환경 순위에서 캐나다는 82개국 중 3위 기록

## □ 북미 진출 교두보 및 안정적 소비시장

- (고소득 기반의 프리미엄 소비) 캐나다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높아 가격보다는 품질·안전성·브랜드 신뢰도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지님
  - '25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CAD 5만 6천으로, 주요 선진국 평균을 상회
  - 친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ESG 가치 반영 제품 선호 확대 추세
  - 온라인·오프라인 복합 유통망을 활용한 구매 경향이 강하며,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로 K-푸드, K-뷰티 등 한국산 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
- (북미 진출 교두보) 캐나다는 '25년 기준 명목 GDP 약 CAD 2조 3,000억,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자원·에너지·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전략적 가치 보유
  - CPTPP, CEPA 등 다수 FTA 체결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관세 혜택 활용 가능
  - 미국·유럽 시장 진출 전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북미 내 입지 확대를 위한 핵심 거점

## 나. 무역

### 〈미국〉

#### □ 교역 동향

- '25년 8월 기준, 미국의 수출액은 2조 2,2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동기간 미국의 수입액은 2조 9,6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 '25년 8월 기준, 무역수지는 -7,1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미국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기간	수지			수출			수입		
	합계	상품	서비스	합계	상품	서비스	합계	상품	서비스
2023년	-774,205	-1,057,495	283,290	3,092,536	2,047,457	1,045,079	3,866,741	3,104,952	761,789
2024년	-903,532	-1,215,403	311,870	3,232,524	2,079,777	1,152,747	4,136,057	3,295,180	840,877
2024년 8월	-571,085	-778,769	207,684	2,143,316	1,386,367	756,949	2,714,401	2,165,136	549,265
2025년 8월	-713,595	-925,095	211,500	2,251,707	1,447,700	804,007	2,965,302	2,372,795	592,508

자료: BEA('25년 11월)

## □ 주요 수출국

- '25년 8월 기준, 미국의 1위 수출국은 멕시코이며 2, 3위는 캐나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한국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미국의 제8위 수출시장
  - 동기간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2,264억 달러, 대중 수출은 735억 달러, 대한국 수출은 450억 달러

## □ 주요 수입국

- '25년 8월 기준, 미국의 1위 수입국은 멕시코이며, 2, 3위는 캐나다, 중국이 차지, 한국은 베트남, 대만, 독일, 아일랜드 등에 이은 미국의 제10위 수입국
  - 동기간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은 3,548억 달러, 대중 수입은 2,190억 달러, 대한국 수입은 858억 달러

## □ 미국의 분기별 국가별 교역 변동

- 미국의 주요 수입국 대상 수입액은 '25년 1분기 대비 2분기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는 상호관세 시행 전 1분기 선제적 수입(Front-loading)으로 인한 효과
- 미국의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 정책의 영향은 3분기 이후 본격화될 전망
  - \* 품목별 관세 중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부터 부과,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6월 3일부터 50%로 인상 및 8월 18일부로 종장비 등 기계류로 확대, 상호관세는 8월 7일부 부과

## 미국의 국별 수출, 수입 현황

(단위: USD 백만)

구분	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무역수지(BOP)	-84,249	-117,979	-895,657	180,597	176,357	1,441,541	264,846	294,337	2,337,198
조정	-1,325	-999	-6,342	890	1,122	9,809	2,215	2,122	16,150
센서스 기준	-82,924	-116,980	-889,315	179,707	175,235	1,431,732	262,632	292,215	2,321,048
북미	-18,114	-22,380	-162,642	56,436	55,158	452,053	74,550	77,538	614,695
캐나다	-2,218	-6,004	-34,158	27,186	26,168	225,642	29,404	32,172	259,800
멕시코	-15,896	-16,375	-128,484	29,250	28,991	226,411	45,146	45,366	354,895
유럽	-5,222	-19,135	-209,735	48,306	46,794	389,019	53,529	65,929	598,753
European Union	-6,641	-11,921	-165,795	35,638	35,006	272,530	42,279	46,927	438,325
오스트리아	-829	-1,080	-7,136	383	293	3,602	1,212	1,373	10,738
벨기에	1,096	732	4,885	3,802	2,845	24,076	2,706	2,113	19,191
체코	-289	-472	-2,771	356	313	2,918	645	785	5,689
핀란드	-321	-670	-3,626	256	272	1,878	577	942	5,505
프랑스	-1,011	-881	-10,700	3,643	4,707	33,542	4,654	5,587	44,242
독일	-4,179	-6,274	-48,675	6,967	6,553	54,843	11,146	12,827	103,518

구분	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헝가리	-569	-847	-6,133	302	279	2,265	871	1,125	8,398		
아일랜드	-2,954	-2,560	-87,767	2,231	1,738	12,287	5,184	4,298	100,054		
이탈리아	-1,787	-3,103	-24,426	3,564	4,116	26,760	5,352	7,218	51,186		
네덜란드	5,065	4,767	38,490	8,011	7,912	63,828	2,946	3,144	25,338		
폴란드	201	-95	-140	1,320	1,075	9,370	1,119	1,170	9,510		
스페인	900	606	3,325	2,510	2,425	18,260	1,610	1,819	14,935		
스웨덴	-176	-519	-4,653	783	830	6,165	959	1,349	10,818		
기타	-1,789	-1,525	-16,468	1,511	1,650	12,736	3,299	3,175	29,203		
노르웨이	-36	-284	-1,468	436	213	3,242	472	497	4,710		
러시아	-156	-303	-2,671	49	53	386	205	356	3,057		
스위스	543	-7,912	-55,203	3,871	2,691	34,594	3,328	10,603	89,797		
영국	789	1,064	16,838	5,991	6,650	61,063	5,202	5,586	44,225		
기타 유럽	279	221	-1,436	2,322	2,181	17,204	2,043	1,960	18,640		
Euro Area	-4,895	-9,113	-144,446	32,324	32,026	247,361	37,219	41,138	391,807		
환태평양	-39,289	-47,179	-336,226	39,081	39,376	316,465	78,370	86,555	652,691		
호주	1,636	-548	997	2,904	2,672	22,249	1,268	3,220	21,251		
중국	-16,861	-17,113	-145,441	8,272	9,298	73,581	25,133	26,411	219,023		
홍콩	1,548	1,706	18,407	1,923	1,963	22,619	374	257	4,212		
인도네시아	-1,920	-2,159	-15,853	897	1,011	7,194	2,817	3,170	23,047		
일본	-4,936	-5,584	-44,974	7,059	6,898	54,416	11,994	12,481	99,390		
대한민국	<b>-4,427</b>	<b>-5,224</b>	<b>-40,750</b>	<b>5,735</b>	<b>5,892</b>	<b>45,052</b>	<b>10,162</b>	<b>11,115</b>	<b>85,802</b>		
말레이시아	-1,605	-2,572	-20,059	2,802	2,515	19,094	4,407	5,086	39,153		
필리핀	-921	-635	-4,903	797	768	6,033	1,719	1,403	10,936		
싱가포르	1,432	-346	1,415	3,739	3,050	28,017	2,306	3,396	26,602		
대만	-13,181	-14,569	-83,976	4,554	4,936	35,248	17,736	19,506	119,224		
기타	-55	-135	-1,089	399	374	2,962	454	508	4,050		
남, 중앙 아메리카	5,581	3,484	30,474	18,105	18,158	142,505	12,524	14,673	112,031		
아르헨티나	86	272	1,675	844	1,060	6,646	759	789	4,971		
브라질	1,682	350	6,575	4,745	4,382	35,682	3,063	4,032	29,107		
칠레	301	-312	-884	1,568	1,537	12,834	1,267	1,850	13,719		
캄보디아	182	33	711	1,636	1,529	12,801	1,455	1,496	12,090		
베네수엘라	126	138	-350	216	168	2,309	90	30	2,659		
기타	3,205	3,005	22,747	9,095	9,482	72,233	5,891	6,477	49,486		
아프리카	492	-1,169	-4,371	4,107	3,299	27,082	3,614	4,468	31,453		
알제리	-253	-133	-957	78	61	691	331	194	1,647		

구분	수지			수출			수입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2025년 8월	2025년 7월	2025년 누적 (8월)
이집트	819	557	4,106	1,075	847	6,080	256	290	1,974
나이지리아	388	206	1,169	830	584	4,751	442	379	3,582
남아프리카공화국	-400	-1,423	-8,144	604	565	4,345	1,004	1,988	12,489
기타	-62	-376	-545	1,519	1,242	11,215	1,581	1,618	11,761
기타 국가	-26,373	-30,686	-206,884	13,672	12,396	104,600	40,045	43,082	311,484
인도	-4,040	-5,765	-44,058	3,849	3,406	29,307	7,889	9,171	73,365
이스라엘	-408	-708	-4,167	1,274	939	9,578	1,682	1,647	13,745
사우디아라비아	259	167	1,986	1,312	1,019	9,239	1,053	851	7,253
태국	-6,085	-6,682	-41,686	1,384	1,432	12,716	7,468	8,113	54,402
베트남	-15,038	-16,636	-112,996	1,413	1,349	9,678	16,451	17,985	122,674
기타	-1,060	-1,063	-5,963	4,441	4,252	34,083	5,501	5,314	40,046
기타 국가	(-)	(-)	(-)	(-)	(-)	(-)	(-)	(-)	(-)
시차 조정	(-)	84	68	(-)	54	8	(-)	-30	-60

자료: BEA('25년 11월)

## □ 주요 수출 품목

- 상품 수출은 '25년 8월 기준 1조 4,4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광물성 연료·에너지, 기계·전기전자·차량·항공기 등 주요 상품 수출 증가세
- 서비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470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여행·지식재산권·금융·IT 등 수출 확대

## 미국 상품 수출

(단위: USD 백만)

구분	2025년 8월	2025년 7월	월간 변동	2025년 누적 (8월)	2024년 누적 (8월)	전년 동기 대비 변동
합계(BOP)	264,627	283,272	-18,645	2,372,795	2,165,136	207,659
조정	2,123	2,091	32	16,217	19,728	-3,511
합계(센서스)	262,504	281,181	-18,677	2,356,578	2,145,408	211,171
식품, 사료, 음료	16,905	18,501	-1,596	149,066	140,368	8,698
산업재 및 원자재	49,572	60,890	-11,318	513,753	442,711	71,043
자본자(자동차 제외)	92,787	96,188	-3,402	733,735	629,830	103,905
자동차, 부품, 엔진	34,517	33,914	603	291,071	320,651	-29,579
소비재	55,134	58,845	-3,711	569,487	523,754	45,733
기타	13,590	12,844	746	99,465	88,094	11,371

자료: BEA('25년 11월)

## 미국 서비스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액	유지 보수 및 서비스 (기타)	운송	여행	건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자식 재산권 사용료 (기타)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기타 기업 서비스	개인·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정부 재화 및 서비스 (기타)
2023년	1,045,079	27,823	97,115	189,891	2,280	24,594	175,288	148,204	78,484	243,402	25,104	32,894
2024년	1,152,747	35,519	102,238	213,779	2,491	28,165	194,509	169,520	90,783	263,873	21,094	30,774
2024년 8월	756,949	23,400	67,525	140,702	1,622	18,233	128,766	110,536	59,623	174,434	14,414	17,693
2025년 8월	804,007	29,267	70,713	142,696	1,635	19,898	136,402	126,561	63,866	180,522	14,882	17,566

자료: BEA('25년 11월)

## □ 주요 수입 품목

- 미국의 상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07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품목관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감소세를 보임
- 서비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2억 달러, 7.9% 증가

## 미국 상품 수입

(단위: USD 백만)

구분	2025년 8월	2025년 7월	월간 변동	2025년 누적 (8월)	2024년 누적 (8월)	전년 동기 대비 변동
합계(BOP)	264,627	283,272	-18,645	2,372,795	2,165,136	207,659
조정	2,123	2,091	32	16,217	19,728	-3,511
합계(센서스)	262,504	281,181	-18,677	2,356,578	2,145,408	211,171
식품, 사료, 음료	16,905	18,501	-1,596	149,066	140,368	8,698
산업재 및 원자재	49,572	60,890	-11,318	513,753	442,711	71,043
자본자(자동차 제외)	92,787	96,188	-3,402	733,735	629,830	103,905
자동차, 부품, 엔진	34,517	33,914	603	291,071	320,651	-29,579
소비재	55,134	58,845	-3,711	569,487	523,754	45,733
기타	13,590	12,844	746	99,465	88,094	11,371

자료: BEA('25년 11월)

## 미국 서비스 수입

연도	총액	유지 보수 및 서비스 (기타)			운송	여행	건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자식 재산권 사용료 (기타)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기타 기업 서비스	개인·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정부 재화 및 서비스 (기타)	(단위: USD 백만)	
		운송	여행	건설											(단위: USD 백만)	
2023년	761,789	6,362	144,130	157,580	2,206	73,500	62,941	52,601	66,149	145,736	25,066	25,517				
2024년	840,877	7,540	154,749	178,914	2,416	95,134	63,371	54,037	72,634	159,687	26,786	25,609				
2024년 8월	549,265	4,589	101,350	116,773	1,427	61,584	41,901	35,399	47,236	104,482	17,493	17,031				
2025년 8월	592,508	4,810	105,902	124,552	1,634	66,102	44,771	36,782	54,860	117,460	18,534	17,099				

자료: BEA('25년 11월)

## □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동향

- (교역) '24년 한-미 교역액은 약 2,4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 한국의 '24년도 미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4.0%로 7위 기록하였으나, '25년 1~6월 누계 기준, 3.7%의 점유율로 10위로 하락
  - '25년 8월 기준, 한-미 교역액은 약 1,308억 달러 수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韓제품 대미 수출은 관세율 상승에 따른 수출 비용 증가

##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 현황

주요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단위: USD 백만)	
								수출(A)	수입(B)
對韓 수출 (A)	81,147	69,693	86,500	96,876	91,927	93,930	45,052		
對韓수입 (B)	89,210	86,562	132,205	132,205	132,520	148,589	85,802		
총교역 (A+B)	170,357	156,255	218,705	229,081	224,447	242,519	130,854		
무역 수지 (A-B)	-8,063	-16,869	-45,705	-35,329	-40,593	-54,659	-40,750		

자료: BEA('25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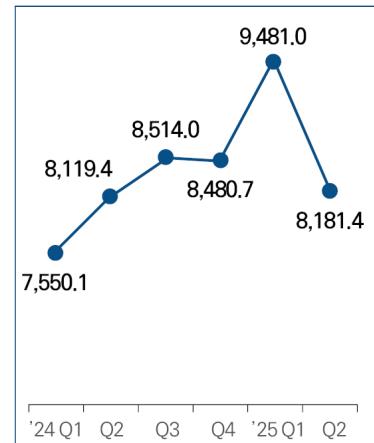
- 주요 교역 품목

-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
- 미국의 관세 정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수출품에 타격

美 10대 수입대상국 점유율 추이

연번	국가명	'24년 Q1	'24년 Q2	'24년 Q3	'24년 Q4	'25년 Q1	'25년 Q2	Q2-Q1
1	멕시코	15.9%	15.9%	15.2%	15.0%	13.8%	16.3%	↑
2	캐나다	13.3%	12.9%	12.1%	12.2%	11.5%	10.9%	↓
3	중국	12.9%	12.4%	14.5%	13.8%	10.8%	7.9%	↓
4	베트남	3.8%	4.0%	4.5%	4.3%	4.2%	5.9%	↑
5	대만	3.0%	3.4%	4.1%	3.5%	3.6%	5.9%	↑
6	독일	5.2%	5.1%	4.8%	4.6%	4.4%	4.6%	↑
7	일본	4.8%	4.5%	4.3%	4.5%	3.9%	4.6%	↑
8	한국	4.3%	4.3%	3.8%	3.7%	3.4%	4.0%	↑
9	아일랜드	2.9%	3.1%	3.3%	3.3%	6.3%	3.8%	↓
10	인도	2.8%	2.9%	2.4%	2.6%	2.9%	3.5%	↑

〈美 총 수입액 추이(\$억)〉



자료: Global Trade Atlas 통계 KOTRA 제공(‘25년 11월)

#### □ 주요 경쟁국 동향

- 미국 수입시장 주요 경쟁국들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 '24년 기준, 중국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13.4% 차지. 그러나 '25년부터 강화된 미국의 대중 제재와 무역분쟁으로 중국은 '25년 1~6월 누계 기준, 미국 시장점유율 9.5%로 하락
  - 일본의 경우 '24년 시장점유율 4.5%를 기록, '25년 1~6월 누계 기준 4.2% 기록
  - 베트남은 '24년도 미국 시장점유율 4.2% 기록했으나 '25년 1~6월 누계 기준 5.0% 차지. 미국의 대중 제재 및 무역분쟁으로 베트남이 대체 시장으로 부상하며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5년 1~6월 누계 기준 42.6% 증가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6월 누계
중국	14.0	13.9	13.4	9.5
일본	4.6	4.8	4.5	4.2
한국	3.6	3.8	4.0	3.7
베트남	3.9	3.7	4.2	5.0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10월)

## □ 미국의 대외 수입 규제, 對韓 수입 규제 등

-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제도 적극 활용
  - (철강·알루미늄) '25년 3월 12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25년 6월 4일부로 50%로 확대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
    - \*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가전제품 8종(냉장고, 세탁기 등) 대상 추가 지정('25년 6월)
  - (자동차·부품) '25년 3월 26일, 수입 자동차, 경량 트럭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
  - (구리) '25년 8월 1일, 구리(Copper) 및 구리 파생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
  - (기타) '25년 10월 14일, 목재에 10%, 주방 찬장, 화장대, 소파에 25% 관세 부과
-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가동
  - (디지털 서비스세) '25년 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301조 조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
  - (조선) '25년 4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중국 선박의 미국 항구 정박 시 항만세 부과 등을 제안했으나 '25년 11월 9일자로 이 조사의 대응 조치를 1년간 일시 정지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및 집행 강화 추진
  - '24년 12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제도의 집행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
    - \* 비시장경제국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별도 관세율 부과 규정, 가격 조작 우려 방지, 비시장경제국가의 대체국 선택 기준 강화, 상계관세 관련 적정 가격 판단 기준 정비

## □ '25년 미국의 對韓 수입 규제 변동 내역('25년 8월 기준)

- 對韓 수입 규제는 총 54건(조사 중 2건)으로, '24년 하반기 대비 1건 증가
  - 유형별 : 반덤핑 38건, 상계관세 12건, 세이프가드 2건, 우회수출 2건
  - 품목별 : 철강/금속 36건, 화학 5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2건

###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 현황

규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 중	조사 중	규제 중	조사 중	규제 중	조사 중	합계
한국	37	1	11	1	2	0	52	2	54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하여 KOTRA 정리('25년 8월)

- 조사 개시 : 반덤핑 1건(화학)
- 최종 판정 : 반덤핑 1건(화학), 상계관세 1건(화학), 우회수출 1건(철강/금속)

### '25년 미국의 對韓 수입 규제 변동 내용

연번	구분	품목분류	품목명	HS Code	유형	조치일자	조치내용
1	조사 개시	화학	단량체 및 올리고머	2916.12.5050	반덤핑	'25년 4월 16일	• 반덤핑 조사 개시
				2916.14.2050			
				3824.99.2900			
				3907.29.0000			
				3907.30.0000			
				2916.12.1000			
				3824.99.9397			
2	최종 판정	화학	에폭시 수지	3907.30.0000	반덤핑	'25년 5월 19일	• 반덤핑 최종 판정 (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 판정)
				3907.29.0000			
				3824.99.9397			
				3214.10.0020 2910.90.91 00/9000/2000			
				1518.00.4000			
3	최종 판정	화학	에폭시 수지	3907.30.0000	상계관세	-	• 상계관세 최종판정 (ITC 산업피해 긍정 최종판정)
				3907.29.0000			
				3824.99.9397			
				3214.10.0020 2910.90.91 00/9000/2000			
				1518.00.4000			
4	최종 판정	철강/ 금속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8544.42.9090	우회수출 (반덤핑/ 상계관세)	'25년 1월 27일	• DOC 우회수출 긍정 판정 * 중국 공급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대미 수출 한국 기업에 부과
				8544.49.9000			

자료: WTO 통계 및 현지 관보 등을 종합하여 KOTRA 정리('25년 8월)

### 〈캐나다〉

#### □ '25년 1~7월 수출입 동향

- '25년 7월 기준, 캐나다 총 교역액은 CAD 9,166억으로, 전년 동기 CAD 8,900억 대비 3.0% 증가
- 동기간 캐나다 무역수지는 CAD 31억 9,500만 달러 적자 기록
  - 수출은 CAD 4,56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
  - 수입은 CAD 4,59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 증가

### 캐나다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CAD 백만, %)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역외수출	766,983	-1.6	780,590	1.8	456,702	1.8
역외수입	754,594	1.4	766,566	1.6	459,897	4.3
무역수지	12,389	-64.7	14,024	13.2	-3,195	-141.7
총 교역	1,521,577	-0.1	1,547,156	1.7	916,599	3.0

자료: 캐나다 통계청('25년 10월)

###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캐나다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 '25년 1~7월 기준 전체 수출의 74.6%를 차지
    - 2위는 영국으로 금 수출 증가에 따라 CAD 235억 기록
    - 3위는 중국으로 원자재·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출이 유지되며 CAD 182억을 기록, 다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
    - 한국은 '25년 1~7월 기준 CAD 42억을 기록하며 8위 수출 대상국에 해당
- \* '22년 CAD 87억 → '23년 CAD 70억 → '24년 CAD 76억으로 변동세, '25년 소폭 증가세 유지

### 캐나다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CAD 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7월)
전체 수출액	779,285,280	766,983,287	780,589,546	456,701,827
1 미국	599,346,612	594,992,621	596,338,469	340,677,938
2 영국	18,677,044	14,171,474	28,291,945	23,530,798
3 중국	28,728,430	30,494,232	29,924,614	18,229,409
4 일본	18,002,082	15,830,856	14,978,886	8,645,483
5 네덜란드	6,507,682	7,425,617	7,098,858	5,111,080
6 멕시코	9,102,694	8,856,709	8,675,296	5,049,922
7 독일	7,615,887	7,025,385	6,767,006	4,854,731
8 한국	8,659,187	6,951,432	7,618,955	4,239,299
9 프랑스	3,953,218	4,260,367	4,401,993	2,599,140
10 벨기에	4,845,261	4,134,127	3,851,024	2,123,431

주: 순위는 '25년 7월 누적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25년 10월)

- 캐나다 수출은 에너지·자원과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과반을 차지
  - '25년 1~7월 기준 1위는 원유(HS 2709)로 CAD 832억을 기록, 전체 수출의 핵심 품목
  - 2위는 금(HS 7108)으로 귀금속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4.0% 증가하며 CAD 283억을 기록
  - 3위는 승용차(HS 8703)로 북미 자동차 공급망을 기반으로 CAD 248억 수출을 기록했으나, 미국발 관세 부담 및 교역 위축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
  - 4위는 석유가스(HS 2711)로 LNG·천연가스 중심의 수출이 확대되며 CAD 116억을 기록, 38.6% 성장세
  - 5위는 정제유 등 원유 이외의 석유제품(HS 2710)으로 CAD 105억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13.1% 감소

### 캐나다 10대 주요 수출 품목

(단위: CAD 천, %)

순위	HS Code	품목명	2024년		2025년(1~7월)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1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147,271,794	83,268,251	-2.4
2	7108	금	38,681,834	28,340,260	44.0
3	8703	승용차	43,606,581	24,809,787	-3.5
4	2711	석유가스	14,180,191	11,628,616	38.6
5	271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20,511,903	10,477,124	-13.1
6	8708	자동차 부품	17,901,233	10,200,229	-5.1
7	8411	터보제트 및 터보프로펠러	10,559,176	7,732,272	30.4
8	3004	의약품	13,440,613	7,382,656	-13.2
9	1001	밀	10,335,772	6,928,238	13.5
	7601	알루미늄 괴	11,333,043	6,020,465	-9.6
<b>전체</b>			<b>780,589,546</b>	<b>456,701,827</b>	<b>1.8</b>

주: 순위는 2025년 7월 누적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25년 10월)

##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캐나다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5년 1~7월 기준 CAD 2,158억 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의 약 47%를 차지
    - 2위는 중국으로, 전자·기계류 중심의 교역이 이어지며 CAD 529억을 기록했으나, 최근 3년간 점진적 감소세 지속
    - 3위는 멕시코로, 자동차·부품 중심의 공급망 확대에 따라 CAD 297억으로 증가세 유지
    - 이탈리아·브라질·영국은 각각 CAD 76억, CAD 65억, CAD 59억 수준으로, 농산물·패션·자원 기반 교역을 중심으로 안정적 수입국 지위 유지
    - 한국은 '25년 1~7월 기준 CAD 106억으로 6위 수입국에 해당
- \* 최근 3년간 흐름은 '22년 CAD 133억 → '23년 CAD 139억 → '24년 CAD 169억으로 증가세

### 캐나다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CAD 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7월)
<b>전체 수입액</b>	744,168,753	754,594,144	766,565,704	459,896,965
<b>1</b> 미국	366,382,449	374,089,689	377,515,460	215,791,515
<b>2</b> 중국	100,210,119	89,245,021	88,782,470	52,950,730
<b>3</b> 멕시코	41,417,546	46,139,618	47,356,783	29,695,165
<b>4</b> 독일	22,499,113	25,062,559	23,633,819	14,295,643
<b>5</b> 일본	17,102,180	20,659,736	21,396,703	12,131,509
<b>6</b> 한국	13,345,315	13,901,896	16,856,092	10,587,217
<b>7</b> 베트남	12,862,324	13,262,206	14,689,207	10,397,609
<b>8</b> 이탈리아	12,130,498	12,895,847	12,462,561	7,672,149
<b>9</b> 브라질	8,507,279	9,185,365	10,205,577	6,496,410
<b>10</b> 영국	8,673,817	9,431,159	9,844,096	5,935,584

주: 순위는 '25년 7월 누적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25년 10월)

- 캐나다 수입은 자동차·석유·귀금속·기계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 '25년 1~7월 기준 1위는 승용차(HS 8703)로 CAD 311억을 기록, 최대 수입 품목이나 전년 대비 5.9% 감소세
  - 2위는 화물자동차(HS 8704)로 CAD 170억을 기록, 10.4% 증가
  - 3위는 자동차 부품(HS 8708)으로 CAD 145억 수입, 완성차 수입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

- 4위는 석유제품(HS 2710, 원유 제외)으로 CAD 134억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입세를 유지, 2.9% 증가
- 5위는 금(HS 7108)으로 귀금속 수요 확대에 따라 CAD 123억을 기록, 전년 대비 92.0% 급증

### 캐나다 10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CAD 천, %)

순위	HS Code	품목명	2024년		2025년(1~7월)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1	8703	승용차	55,443,758	31,178,117	-5.9
2	8704	화물자동차	27,352,628	17,028,837	10.4
3	8708	자동차 부품	25,413,742	14,526,645	-3.6
4	2710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21,699,529	13,386,238	2.9
5	7108	금	13,216,314	12,334,363	92.0
6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20,730,060	10,727,758	-11.8
7	8471	자동자료처리시스템 기기	14,638,942	8,629,003	8.7
8	3004	의약품	14,234,583	8,607,135	4.7
9	8517	전화기	16,994,543	8,528,834	-2.7
10	8411	터보제트 및 터보프로펠러	11,036,074	7,353,866	18.7
<b>전체</b>			<b>766,565,704</b>	<b>459,896,965</b>	<b>4.3</b>

주: 순위는 '25년 7월 누적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25년 10월)

### □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교역 동향

- 1~9월 한-캐 총 교역액은 CAD 176억 5,286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자동차·철강·배터리 소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對韓 수출은 원자재·광물·농산물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임
- 1~9월 교역 규모
  - (수출) CAD 107억 1,261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9% 감소
  - (수입) CAD 69억 4,026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8% 감소
  - (무역수지) CAD 37억 3,772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

### 한국의 對캐나다 교역 동향

(단위: CAD 백만, %)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수출	8,434	7.6	10,352	22.7	10,713	-2.9
수입	6,195	-27.5	6,853	10.6	6,940	-5.8
무역수지	2,239	419.9	3,499	56.3	3,738	2.9
총 교역	14,629	-10.7	17,205	17.6	17,653	-4.0

자료: KITA('25년 10월)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한 운송장비와 철강, IT·화장품 등이 주력 품목으로 구성.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과반 차지
-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자동차·철강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품목별로 글로벌 수요·가격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감 흐름이 엇갈리는 추세

### 한국의 對캐나다 10대 주요 수출 품목

(단위: CAD 천, %)

순위	HS Code	품목명	2024년		2025년(1~9월)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1	8703	승용차	7,379,849	5,833,242	-28.2	
2	8517	전화기	905,688	392,202	-32.0	
3	8708	자동차 부품	288,407	210,194	13.7	
4	7216	합금강관	188,694	208,581	0	
5	7210	비합금 평판압연제품	243,371	166,750	-81.5	
6	3304	미용 및 화장품 재료	144,918	146,118	5.9	
7	8413	액체펌프	144,158	116,168	-47.2	
8	8504	변압기	123,229	108,213	-65.8	
9	8507	축전지	139,759	107,117	-52.8	
10	8451	드라이클리닝 기계	117,609	101,676	99.4	
전체			14,508,256	10,712,606	-5.8	

주: 순위는 '25년 9월 누적 기준

자료: KITA('25년 10월)

- (수입) 한국의 對캐나다 수입은 에너지·자원 중심 구조가 뚜렷하며,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석유·광물과 더불어 축산물·비료 등 1차 자원 수입이 다수를 구성
- 한국의 對캐나다 수입은 여전히 에너지·광물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나, 최근 원유와 구리 수입이 급증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2차전지 수요가 교역을 견인

### 한국의 對캐나다 10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CAD 천, %)

순위	HS Code	품목명	2024년		2025년(1~9월)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1	2701	원유를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	2,783,614	1,374,983	-39.3
2	2603	동광	982,799	895,005	25.0
3	2601	철광	702,676	517,863	-7.6
4	2711	석유가스	530,927	481,870	17.1
5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149,273	356,608	138.9
6	0203	돼지고기	395,036	329,038	6.1
7	3104	칼륨비료	271,515	195,596	-7.8
8	1514	식용유	67,123	143,961	409.7
9	4705	목재펄프	167,691	119,837	-9.6
10	3004	의약품	134,680	111,210	20.1
<b>전체</b>			9,604,236	6,940,257	-5.8

주: 순위는 '25년 9월 누적 기준

자료: KITA('25년 10월)

### □ 대한 수입 규제 동향 및 전망

- 對韓 수입 규제는 수입할당관세(TRQ)와 반덤핑·상계관세 13건으로 구분

#### 반덤핑·상계관세(총 13건)

구 분	조사 개시	최종 판정	품 목	내 용
구조용 강관	'03년 3월 21일	'03년 11월 17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89.0%</li> <li>부과기간 : ~'30년 2월 20일</li> </ul>
동제관 연결구류	'06년 6월 08일	'07년 1월 18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242.0%</li> <li>부과기간 : ~'27년 9월 13일</li> </ul>
유입식 변압기	'12년 4월 23일	'12년 10월 22일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101.0%</li> <li>부과기간 : ~'28년 7월 12일</li> </ul>
소형 전력 변압기	'21년 4월 15일	'21년 11월 25일	전기·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73.1%</li> <li>부과기간 : ~'26년 12월 23일</li> </ul>
용접탄소강관	'12년 5월 14일	'12년 11월 09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54.2%</li> <li>부과기간 : ~'29년 1월 17일</li> </ul>
동관	'13년 5월 22일	'13년 11월 18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82.4%</li> <li>부과기간 : ~'30년 1월 23일</li> </ul>
후판(열연강판)	'13년 9월 05일	'14년 4월 17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59.7%</li> <li>부과기간 : ~'30년 7월 9일</li> </ul>

구 분	조사 개시	최종 판정	품 목	내 용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14년 6월 13일	'15년 1월 09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41.0%</li> <li>부과기간 : ~'25년 10월 13일*</li> </ul>
유정용 강관 2	'14년 7월 21일	'15년 3월 03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37.4%</li> <li>부과기간 : ~'25년 7월 22일</li> </ul>
탄소합금강관	'17년 6월 08일	'17년 12월 05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88.1%</li> <li>부과기간 : ~'28년 3월 29일</li> </ul>
냉연강판	'18년 5월 25일	'18년 12월 21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53.0%</li> <li>1톤당 86,733원의 상계관세 부과</li> <li>부과기간 : ~'29년 4월 11일</li> </ul>
도금강판	'18년 7월 26일	'19년 1월 21일	철강·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율 : 40.0%</li> <li>부과기간 : ~'29년 6월 12일</li> </ul>

주: 해당 품목 일을 재심 중으로 최종판정 결과는 '25년 12월 19일 발표 예정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25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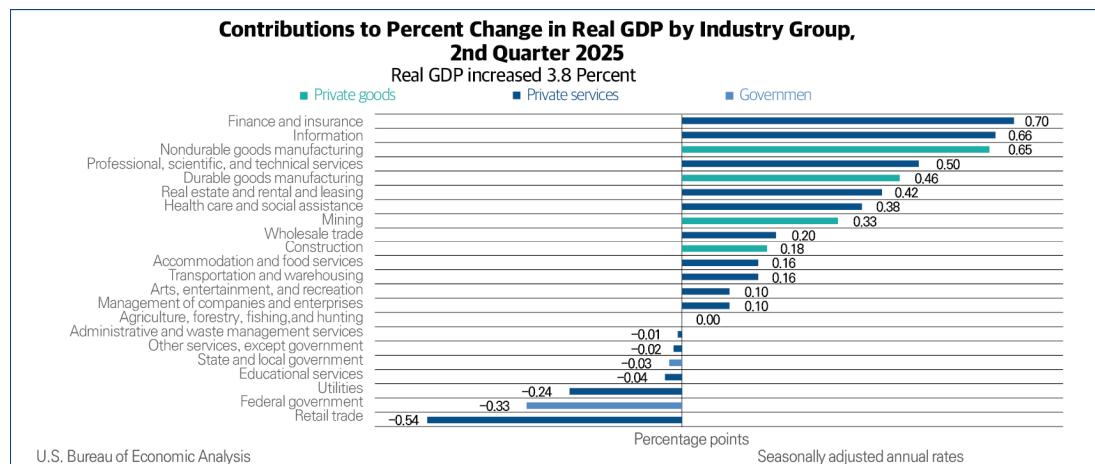
## 다. 산업

### 〈미국〉

#### □ 산업 개요

- ’25년 2분기 실질 GDP 3.8% 성장, 수입 감소와 소비 지출 증가에 기인. 실질 GDP는 2차 추정치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 주로 소비 지출 상향 조정반영
  - 산업 관점에서 실질 GDP 증가는 민간재 생산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10.2% 증가하고 민간서비스 생산 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3.5% 증가

#### 〈산업별 ’25년 2분기 GDP 성장 기여도〉



자료: BEA('25년 9월)

## □ 주요 산업 지수('25년 9월 기준)

- ISM 제조업 PMI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50 미만으로 제조업 부문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비스 PMI는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확장세로 해석되고 있음
- 산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1 소폭 증가했으나,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76.8%는 가동여력(Capacity slack)을 시사, 완전 가동 상태는 아님

### 주요 산업 지수

지표	9월 수치	전월 대비	해석/특징
ISM 제조업 PMI	49.1	+0.4	50 미만, 제조업 위축 구간
ISM 비제조업 PMI (서비스 PMI)	50.0	-2.0	확장과 위축의 경계선
산업생산지수 (Fed Industrial Production Index, 2017=100)	10.992	+0.1	자동차·광업 견인, 유틸리티는 둔화. 제조업 설비가동률 약 76.8%
내구재 주문 (Durable Goods Orders)	US\$ 312.1B (8월)	+2.9%	운송 장비(Transportation)를 제외하면, 신규 주문은 0.4% 증가, 국방(Defense)을 제외하면, 신규 주문은 1.9% 증가
선행경제지수 (Conference Board LEI, 2016=100)	98.4	-0.5%	6개월간 -2.8% 하락, 경기 하방 리스크 반영

자료: ISM('25년 10월)

## 〈캐나다〉

### □ 산업 개요

- (에너지·자원) '24년 기준 에너지·자원 산업 규모는 캐나다 전체 GDP의 5.1% 차지
  - 석유·천연가스, 우라늄, 수력, 니켈·리튬·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주요 품목이며, 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 확대
- (자동차·전기차·배터리) 자동차·부품은 캐나다 전체 수출의 15% 내외를 차지하며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북미 공급망의 핵심 산업 지위를 유지
  - 미국 관세 정책과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25년 상반기 수출 일시 둔화
- (철강) 캐나다 철강산업은 연간 약 1,300만 톤 생산능력을 보유하며 온타리오·魁벡주에 주요 제철소 집중
  - 미국향 수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USMCA 원산지 규정 충족이 시장 접근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

## 라. 투자

### 〈미국〉

####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기준 對美 FDI 유입액은 2,788억 달러로 전년 2,331억 달러 대비 19.6% 증가
  - 전 세계 FDI 유입액 중 약 18.5%를 차지하면서 미국은 FDI 최대 유입국

#### '23~'24년 국가별 FDI 유입액

(단위: USD 백만)

순위	국가명	2023년	2024년	증감률	비중
1	미국	233,106	278,848	19.6	18.5
2	싱가포르	135,104	143,352	6.1	9.5
3	홍콩	122,947	126,181	2.6	8.4
4	중국(홍콩 제외)	163,253	116,238	-28.8	7.7
5	룩셈부르크	-9,279	105,987	-1,242.2	7.0
6	캐나다	46,525	64,096	37.8	4.2
7	브라질	64,040	59,178	-7.6	3.9
8	호주	30,577	53,454	74.8	3.5
9	이집트	9,841	46,578	373.3	3.1
10	UAE	30,688	45,632	48.7	3.0
21	대한민국	19,042	15,226	-20.0	1.0
전 세계 합계		1,454,976	1,508,803	3.7	100

자료: UNCTAD 2025 World Investment Report('25년 7월)

- 산업별로는 과거 흐름과 유사하게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2.3%), 금융 및 보험(10.5%) 및 도매유통(9.1%) 순
  -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정보통신 부문이 8.1%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도매유통은 오히려 전년 대비 3.8% 감소

## '20~'24년 산업별 對美 누적 투자액

(단위: USD 백만, %)

순위	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증감률
1	제조업	1,924,468	2,149,821	2,208,574	2,276,438	2,416,081	6.1
2	기타	738,848	778,844	839,608	887,175	1,011,143	14.0
3	금융 및 보험업	585,749	632,465	562,909	580,198	599,374	3.3
4	도매유통	447,756	455,546	486,332	541,248	520,538	-3.8
5	정보통신	182,913	259,867	238,929	251,717	272,193	8.1
6	과학, 기술, 전문 서비스	206,403	212,236	228,783	241,339	255,566	5.9
7	은행	217,272	217,500	213,778	218,402	231,769	6.1
8	소매유통	141,680	174,528	187,362	198,997	213,172	7.1
9	부동산 및 임대업	168,392	185,612	157,903	180,068	187,884	4.3
합계		4,613,481	5,066,419	5,124,179	5,375,582	5,707,721	6.2

주: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on a Historical-Cost Basis, 순위는 '24년 투자 규모 기준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5년 7월)

## □ 주요 경쟁국 미국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유럽) '24년 대미 투자 누적액은 3조 6,42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제조업 투자 비중이 약 54%로 과반 차지
  - 미국 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24년에도 미국에 제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일본) '24년 대미 투자 누적액은 7,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 증가
  - '24년 전체 대미 투자 누적액 1위를 차지해 對美 투자 입지를 굳건히 유지 중
- (중국) 대미 투자 누적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40억 달러를 기록
  - 규모 자체는 낮은 수준이나, 제조업 분야를 중심(42.3%) 제한적 투자 지속

## '20~'24년 국가별 對美 누적 투자액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증감률
1	일본	632,079	653,548	668,397	699,812	754,069	7.8
2	영국	535,715	627,312	689,806	689,822	742,736	7.7
3	캐나다	487,449	548,030	577,625	685,748	732,910	6.9
4	네덜란드	554,720	705,473	704,154	696,404	726,418	4.3
5	독일	347,509	397,918	411,361	466,499	506,195	8.5
6	스위스	293,461	334,306	337,988	341,279	358,151	4.9
7	아일랜드	249,295	316,937	280,721	290,246	284,406	-2.0
8	프랑스	282,257	227,316	246,538	248,583	259,267	4.3
9	룩셈부르크	316,922	310,397	227,652	225,270	248,067	10.1
10	스웨덴	59,964	78,978	95,039	109,128	121,599	11.4
12	대한민국	60,548	66,141	65,286	79,452	92,050	15.9
20	중국	36,738	31,831	30,545	30,775	33,979	10.4
합계		4,613,481	5,066,419	5,124,179	5,375,582	5,707,721	6.2

주: 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the United States on a Historical-Cost Basis, 순위는 '24년 투자 규모 기준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5년 7월)

## □ 미국의 대한 투자 현황

- '24년 미국의 대한 투자는 한국의 전체 FDI 유치국 중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 '24년에는 52억 4천만 달러의 투자 신고를 기록하여 투자국 중 3위
  - \* '24년 국가별 투자신고금액 : 미국(52.4억 달러, △14.6%, 비중 15.1%), 일본(61.2억 달러, +375.6%, 비중 17.7%), 중국(57.9억 달러, +266.1%, 비중 16.7%), EU(51.0억 달러, △18.1%, 비중 14.8%), 기타 국가(110.8억 달러, △30.5%, 비중 32.1%)
- 미국의 대한 제조업 투자액은 16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4%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은 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4% 증가
- 미국의 대한 그린필드 투자는 46억 9천만 달러로 19.8% 감소하였으며, M&A 투자는 5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1.3% 급증

## 국가별 對韓 투자 실적

(단위: 건, USD 백만)

구분	2022년 건수	2022년 금액	2023년 건수	2023년 금액	2024년 건수	2024년 금액
미주지역	633	14,546	520	12,556	555	10,741
미국	526	8,685	390	6,128	441	5,236
캐나다	27	508	32	507	23	567
케이만군도	55	4,424	63	5,590	68	4,897
기타	25	929	35	331	23	42
아주지역	1,980	7,050	2,189	8,621	2,475	16,299
일본	176	1,529	212	1,287	266	6,121
중국	519	1,481	734	1,580	800	5,786
대만	27	20	39	377	68	238
홍콩	145	385	191	1,166	208	1,008
싱가포르	396	3,248	307	2,702	344	2,427
말레이시아	12	13	9	10	17	145
기타	705	374	697	1,499	772	574
EU	295	7,493	336	6,229	279	5,099
독일	60	538	47	207	54	342
프랑스	80	581	98	3,604	48	850
벨기에	36	215	53	1,175	2	0
네덜란드	2	2	5	44	43	883
아일랜드	80	4,922	94	1,102	8	44
기타	37	51	39	97	49	1,542
기타지역	554	1,356	410	5,308	318	2,429
전체	3,462	30,445	3,455	32,714	3,627	34,568

자료: 산업통상부, '24년 외국인직접투자동향(25년 9월)

### □ 한국의 對美 진출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조선업 부활(MASGA), 반도체·에너지 공급망 강화 정책기조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의 對美 투자는 항공·조선·방산·에너지 등 전략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
  - '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주요 기업들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對美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양국 간 산업 협력은 한층 강화
  -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지속, 현대차의 자동차·철강 투자, 한화·HD현대의 조선 협력,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한국가스공사·고려아연·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의 에너지·소재·원자력 분야 협력이 대표적 사례

### 한국 기업 對美 투자 진출 동향

(단위: USD 백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Q1.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32,313	5.3%	31,616	△2.2%	26,143	△17.3%	5,815	△18.5%
신규 법인 설립 건수	734	9.7%	749	2.0%	733	△2.1%	167	△13.5%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9월)

###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조선업 A사, 美 조선업 부활 정책 대응을 위한 현지 법인 인수

- (기업 정보) 국내 조선기업 A사는 '23년 美 동부 지역 소재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조선산업 진출 기반 확보
  - 기존 군수·상업 선박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美 정부의 MASGA 정책과 연계 추진
- (성공 사례) 미국 정부 발주 선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한국 본사와 공동 건조 방식 적용
  - 美 정부의 조선업 재건 전략에 부합하는 대표적 한·미 협력 사례로 평가
- (시사점) 對美 투자 시, 정책 타이밍·산업 전략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 美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진출로 장기적 수주 기반 확보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디지털 트윈 기술 기업 A사, 미국 의료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A사는 미국 의료시장 특수성(ASC의 활성화, 환자 데이터 전송 의무화 제도)에 최적화된 디지털 트윈 기반 환자용 데이터 전송·시각화 앱 개발
- (성공 사례) B2C, B2B 이중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시장 진입 가속화
  - B2C로는 환자가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어플을 출시, B2B로는 해당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환자 전송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 접목, 의료 현장 효율성을 증대하여 보험사 대상으로 마케팅 가능
- (시사점) 미국 의료시장 진출은 환자 데이터 이동 의무화 등 현지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환자 직접 사용(B2C)과 보험·플랫폼 기업 연계(B2B)를 병행하는 이중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성공의 핵심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전기장비 업체 H社, 현지화 전략을 통한 사업 확대

- (기업 정보) H社는 '90년 중반 설립된 전기장비 및 케이블 제조업체로 글로벌 제조·공급망 경쟁력 강화 및 미국 현지 대형 고객사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미국 진출을 결정
- (성공 사례) 미 동부 지역에 본사와 물류센터 설립
  - 한국 주재원을 최소화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진출 결정 직후 신속히 사업을 실행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 현지 유통 및 물류센터 설립으로 납기 단축, 맞춤형 조달, 신속 서비스 등 미국 내 경쟁우위를 확보
  -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이슈와 미국 내 바이어들의 공급망 현지화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신규 대형 거래선 확보에 성공 → 현지 진출 2년 내 영업 안정화 달성
- (시사점) 서비스 및 물류 과정을 현지화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북미 프로젝트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함
  - 현지 인력이 기업 운영 방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여 바이어 신뢰도 제고와 사업 확대에 기여 → 현지화·기술력·공급망 관리능력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필수임을 시사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타이어 제조 기업 N사, 중서부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 이전

- (기업 정보) N社는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로, 2000년대 중반 미국 서부에 영업법인 설립 통한 북미 시장 초기 진입
  - 이후, 북미 완성차 3사 공략을 위해 미국 중부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하여 북미 기술센터를 설립하고, 2020년에는 미국 서부에 유통센터 개소
- (성공 사례) R&D 기술센터를 통해 북미 고객사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유통센터 신설을 통한 리드타임 최적화로 북미 완성차기업 S社 등 중서부 지역 고객 대상 신속한 서비스 제공  
→ R&D와 물류까지 단계적 투자로 북미 시장 대응력 강화
- (시사점)
  - R&D 역량을 선점하여 북미 내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통 거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시장 안착 도모
  - 기술센터와 물류센터 투자 형태는 리드타임 단축, 품질관리 강화에 기반한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견인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이차전지 기업 N사,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N사는 '23년 美 중서부 지역에 진출한 전기차 배터리 및 수소전지 부품 기업
- (성공 사례) 법인 설립 세부 절차, 관할지 투자환경/생활환경 등 시장조사 지원
  - 공장설립 부지 선정을 위한 주정부 및 시정부 연결해 인센티브와 부지 현황 논의
  - 주정부 현금 보조금 확보
- (시사점) 주정부 인센티브, 부지 선정, 현지 법인 설립 등 풀패키지 지원을 통해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와 규제환경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 것이 진출 성공의 핵심 요인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전동차 기업 W사, 미국 인프라 사업 진출

- (기업 정보) 철도 및 전동차 생산업체로 2000년도 중반에 설립
- (성공 사례)
  - 2000년도 후반에, 미국 서부지역에 법인 설립,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서 해외 기업 제한 규제인 'Buy America' 정책 대응을 위한 현지 생산 기지 구축
  - 미국 서부지역에 경량전철 개량 사업 수주, 메트로 전동차 개량 사업 수주, 미 서부 여러 지역에 경전철 사업(ITE) 수주 성공. 경전철 사업 수주 규모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
  - 차량 제작, 시스템 공급, 운영 유지보수까지 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장기 운영 계약 확보
- (시사점)
  - 미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히는 'Buy America' 정책 대응을 위한 현지화 전략 유효
  - 현지 교통국, 건설사, 컨소시엄 등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친환경 전동차 부품과 무인 경전철 시스템 등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개발로 미래 시장 적극 대응 등,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 인프라 사업 시장에서 잇단 성과를 거둠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자동차 부품 기업 S사,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S사는 고무 및 프레스 부품 생산 설비로 팽창 탱크, 소형 엔진 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美 정부의 리쇼어링, 공급망 복원력 강화 추세에 따라 GVC 편입 기회 발굴을 위해 미국 진출 추진
- (성공 사례) 미국 현지화 이후 수출 약 30% 이상 증가, 글로벌 바이어와 거래 논의 활성화
  - 對미 수출 지속 증가 및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협의 등 실질적 수출·투자 성과 도출
  - 해외공동물류센터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물류센터 확보, 거점 확보, 지속 확장 기반 마련
- (시사점) 미국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중서부 수출 확대, 비용 경쟁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공장 설립 구체화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법규 준수의 중요성
  - 미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 규제 외에도 각 주, 지방정부에 따라 노동법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에 이를 숙지하고 관련 법안 및 규제 준수 필요
  - 특히 연방 및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현지 직원 채용 전에 법인이 진출한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 및 평균 임금 확인 후 임금 책정 필요
  - 이 밖에 직원 채용 절차, 미국 내 직장 문화에 대한 이해 요구
    - \* 면접 절차에서도 인종, 나이, 성별, 미혼 여부 등 차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질문은 삼가야 하며 시간외 근로 수당, 퇴근 후 발생한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회식 참여 강요 등에 대한 각 지역별 노동법 및 판결 사례 숙지 필수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등 일부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별도 제한이 존재하므로 진출 시 유의
  - (통신)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 산업 등)은 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제로 진출 장벽 존재
    -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제310조(b)(4)에 의거해 미국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참여를 2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안보 심사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함
  - (에너지) 원자력, 수력, 지력 발전사업의 라이선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으로 제한되어 외국 기업의 단독 진출 불가
    -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자로 설비에 대한 면허를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발급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해 왔으나, '23년 「미국 에너지 안보 첨단법(ADVANCE Act)」 통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에 대해서는 NRC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 원전 지분을 과반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 (운송) 국내 항공 운송업, 수상·해상 연안 운송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
    - \* 미국 항공법은 미국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의결권 지분을 최대 25%까지로 제한하며, 경영과 운영상의 실질적 통제권이 미국 시민에게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 해운 분야의 경우 미국 연안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카보타지(cabotage) 사업에 외국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연안해운법(Jones Act)이 적용됨
  - (국가안전보장) 각종 국방 관련 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
    - \*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발효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국 내 국방시설 또는 정부시설에 인접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 시행 중

## 〈캐나다〉

### □ 외국인 투자 동향

- '24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캐나다에 유입된 자금은 CAD 855억으로, '23년 CAD 628억 대비 약 36.2% 증가한 수치
- '24년 캐나다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미국으로, 투자 잔액은 CAD 6,838억에 달해 전체의 45.5%를 차지

### 국가별 對캐나다 투자액

연번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CAD 백만)
1	미국	463,301	544,384	606,057	638,718	683,757	
2	네덜란드	133,542	157,167	178,364	180,269	182,765	
3	영국	86,165	93,262	100,207	104,955	96,971	
4	룩셈부르크	63,753	65,226	76,685	63,313	66,872	
5	스위스	40,122	29,732	36,041	39,486	49,548	
6	일본	31,502	34,396	34,176	39,920	41,955	
7	홍콩	28,303	29,546	30,958	34,824	35,856	
8	프랑스	7,526	11,394	13,855	28,750	30,845	
9	중국	20,880	25,720	27,954	25,447	30,787	
10	호주	22,874	18,762	27,935	26,118	28,599	
...							
13	한국	5,972	5,965	7,146	9,002	11,326	
		전 세계	1,079,053	1,216,525	1,354,905	1,424,688	1,502,530

자료: 캐나다 통계청(IIP(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25년 9월)

###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24년 기준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잔액은 기업 경영·관리 부문이 CAD 4,798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 뒤를 이어 제조업(CAD 2,508억), 재무·보험(CAD 2,012억), 에너지·광업(CAD 1,728억), 기술·서비스(CAD 556억) 순으로 집계

### 산업별 對캐나다 투자액

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CAD 백만)
제조업	187,517	200,972	211,556	223,829	250,822	
무역 및 운송업	17,145	18,824	19,677	19,895	18,419	
기업관리	320,908	400,555	465,152	478,188	479,795	
에너지 및 광업	109,671	137,000	146,460	157,309	172,770	
재무·보험	139,422	147,977	170,255	194,946	201,209	
부동산	28,370	33,094	38,452	41,481	42,611	
기술·서비스	35,583	47,173	50,184	47,723	55,531	
문화·관광	14,997	20,883	24,930	27,454	28,508	
총계	1,079,053	1,216,525	1,354,905	1,424,688	1,502,530	

자료: 캐나다 통계청(IIP(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25년 9월)

## □ 캐나다의 對韓 투자 현황

- '24년 캐나다의 대한 투자액은 CAD 22억 4,800만으로, 전년(CAD 24억 6,100만) 대비 8.7% 감소
  - 최근 5년간 투자 동향을 보면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뒤 '23년에 소폭 반등했으나, '24년 다시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하향 흐름을 나타냄

### 캐나다 對韓 투자 현황

(단위: CAD 백만,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투자액</b>	2,862	2,578	2,323	2,461	2,248
<b>증감률</b>	17.7	-9.9	-9.9	5.9	-8.7

자료: 캐나다 통계청(IIP(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25년 9월)

- 최근 對韓 투자 사례

### 캐나다 對韓 투자 사례

투자 주체	내용
CPP Investments (CPP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11월, 한국 Pacific AMC와 약 1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협작투자 체결</li> <li>• '24년 2월, Kendall Square 물류센터 개발 벤처 지분 일부 매각 후 코어 펀드 구조로 재편, 물류 인프라 투자 지속</li> </ul>
Brookfield Asset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6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매각, 부동산 투자·회수 전략 병행</li> </ul>
Brookfield Infrastructure Part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6월~7월 DIG Airgas(산업용 가스업체) 인수전에 참여, 한국 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 추진</li> </ul>

자료: CPP Investments 및 Brookfield 사(‘25년 9월)

#### • 주요 투자 산업 분야

- 부동산이 캐나다의 對韓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CAD 13억 200만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
- 그 다음으로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분야는 제조업, 금속 제조업, 재무·보험 분야로 '24년 각 CAD 8억 4,440만, 3억 4,600만, 2억 4,800만의 투자가 이뤄짐

### 산업별 캐나다의 對韓 투자액

(단위: CAD 백만)

산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동산	992	1,234	1,227	1,363	1,302
제조업	1,510	1,013	562	858	844
금속 제조업	443	352	400	362	346
재무·보험	3	31	29	34	248
기술·서비스	125	119	118	116	111
의류 제조업	80	71	72	72	69
1차 금속 제조업	144	2	35	70	67
소매업	16	48	26	28	66
숙박·요식업	51	48	47	54	52
<b>총계</b>	<b>2,862</b>	<b>2,578</b>	<b>2,323</b>	<b>2,461</b>	<b>2,248</b>

자료: 캐나다 통계청(IIP(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기준)(‘25년 9월)

### □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 진출 동향

- 對캐나다 투자금액은 '22년 USD 24억 9,600만에서 '23년 USD 36억 2,100만으로 45.1% 증가
  - '24년에도 USD 37억 9,300만(+4.8%)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25년 1분기에는 USD 11억 6,70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8% 급증
-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22년 36건에서 '23년 40건, '24년 45건으로 점진적 증가세 기록
  - '24년 對캐나다 투자는 광업·제조업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금융·보험업도 회복세를 보임
  - '25년 1분기에도 11개사가 설립되며 전년 동기 대비 57.1% 확대

### 한국의 對캐나다 투자 진출 동향

(단위: USD 백만)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Q1.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전년 동기 대비 증감
투자금액	2,496	-9.1%	3,621	45.1%	3,793	4.8%	1,167	75.8%
신규 법인 설립 건수	36	-5.3%	40	11.1%	45	12.5%	11	57.1%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5년 9월)

## □ 우리 기업 캐나다 투자 진출 사례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소비재 유통기업 E사, 북미 뷰티·스낵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 색조·기초화장품, 스낵, 뷰티제품 제조사이자 브랜드 직거래 유통 판매사업자
  - 북미와 아시아 지역 등 주로 수출하며, 아마존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및 미국 서부 대형 물류창고 운영
- (성공 사례)
  - 미 관세 이슈와 캐나다 시장 수요 증대로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북미시장 거래 확대 및 주요 유통망 입점 추진
  - 원활한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 KOTRA의 긴급지사화·관세대응헬프데스크·Kmove 사업 등 적극 활용
  - 온라인 풀필먼트 거래를 위한 바이어·물류사 상담 지원으로 유통망 확보 기반 마련
- (시사점)
  - 북미 소비재 시장 진출 시, 관세 환경 변화와 FTA 혜택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 아마존, 코스트코 등 현지 주요 유통망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초기 시장 진입
  - 법인 설립, 물류인프라 확보, 현지 인력 채용 등 장기적 현지화 전략을 통한 신규 시장 확대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전력 및 통신 케이블 기업 D사,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 초고압 케이블·전력망·통신선 등 전력 인프라 솔루션을 공급하는 국내 주요 전력 인프라 기업
  -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에 법인 및 지사 운영하며 주요 프로젝트 수주 등 활발한 글로벌 시장 확장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맞추어 해상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 및 기술 개발
- (성공 사례)
  - 북미 현지 영업 법인을 신설하며 급증하는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진입
  - 북미 내 수주 활동 및 고객 대응을 위한 밀착형 영업 거점으로 운영, 미국과 연계한 북미 시장 전반에서의 입지 확장 목표
  - 고압 전력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 성과 지속
- (시사점)
  -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북미 시장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차별화된 경쟁력 제공
  - 미국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 실적과 캐나다 수주 성과의 연속성은 북미 전체 시장 확장 가능성 시사
  -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리스크 관리 및 기회 포착에서 유리한 현지 진출 전략으로 작용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애그테크 기업 N社(스마트팜 법인 설립 예정)

- (기업 정보)
  - N社는 LED 기반 저발열 조명과 ICT 자동제어, 순환형 수경재배 기술을 결합한 수직형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내 작물 재배 환경을 제공
  - 국내 터널형과 수직형 스마트팜 실증 사례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했으며, 캐나다 등 해외 시장으로 사업 확장 중
- (성공 사례)
  - 캐나다 특정 지역 내 경제개발공사에 N社 스마트팜 모델을 제안하고 부지 실사 완료, 이후 해당 지자체가 진행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정식 사업화 추진 예정
  - 지자체 & 투자청과 협업해 지역 산업지구 내 스마트팜 구축 추진, 현재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검토를 거쳐 도입 최적화 방안 수립 완료
  - 현지 대형 유통사와 의향서 체결을 통해 생산 작물 유통채널 확보,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공동 운영 모델 설계 착수
- (시사점)
  - (정부·산업·대학 협력 프로그램 활용) 첫 진출 기업의 경우, 국가 공모사업 및 실증 과제 참여를 통한 제도권 진입과 신뢰 확보가 필수적. CAAIN 등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장기 협력 기반 마련 가능
  -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공사업 수주 기회 확보) 캐나다 스마트팜 시장에서는 지자체와의 선제적 협의와 사전 검증 과정이 성공의 관건. 국내 기업과 무역관이 공조해 현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 수주 경쟁력 강화
  - (현지 유통사와의 조기 협력으로 시장성 검증) 의향서 체결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작물의 테스트 유통 추진. 파일럿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



##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방산, 해양 설비 기업 H사, 캐나다 방산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 국내 대표적인 조선, 해양 방산 기업으로 국내외 조선소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선업 시장 선도 기업
  - 세계 3대 조선사로 꼽히며, 잠수함·함정 등 방산용 선박에 대해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
  -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초계 잠수함', 구축함, 잠수함 지원정, 특수 목적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 주력
- (성공 사례)
  - 캐나다 정부의 차세대 잠수함 조달사업 수주 경쟁에 참여
  - 본격적인 잠수함 조달 사업 대응 및 수주 활동을 위한 캐나다 전초기지 마련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 캐나다 현지에 운용·정비(ISS)센터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 개량 지원 계획
- (시사점)
  - 단순 조달을 넘어 현지 정비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간 현지 지원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종합 솔루션 제공 및 수주 경쟁에서 신뢰도 구축
  - 캐나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여 유리한 수주 조건 마련
  - 국제 수주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협력 구조로 평가

## 2. 유망 산업

### 가. 반도체

#### □ 반도체 산업 규모 및 시장 동향

- 현지 산업 규모
  - '24년 6,270억 달러였던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5년 약 6,970억 달러까지 연간 11% 이상 지속 성장 예상
  -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설계, 장비, 팝설비, 소재 및 후공정 등 산업 전체 벤류체인을 선도하며, 관련 기업·기관 대상 민간 부문 투자는 5,000억 달러 이상

#### □ 최근 수출입 동향

##### 최근 3년간 미국의 반도체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대만	8,154	7,376	11,309	18.2	19.8	27.5	53.3
2	말레이시아	14,119	9,678	9,583	31.5	25.9	23.3	-1.0
3	이스라엘	1,222	2,061	4,164	2.7	5.5	10.1	102.0
4	대한민국	3,115	2,421	2,396	7.0	6.5	5.8	-1.0
5	아일랜드	2,350	1,694	1,913	5.2	4.5	4.6	12.9
6	중국	2,925	2,107	1,654	6.5	5.6	4.0	-21.5
7	멕시코	1,950	1,726	1,538	4.4	4.6	3.7	-10.9
8	베트남	2,314	1,711	1,356	5.2	4.6	3.3	-20.7
9	코스타리카	806	1,093	1,219	1.8	2.9	3.0	11.5
10	일본	1,259	1,253	1,214	2.8	3.4	2.9	-3.1
-	총계	44,787	37,318	41,179	100.0	100.0	100.0	10.3

### 최근 3년간 미국의 반도체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멕시코	13,140	12,388	11,714	25.6	28.6	23.5	-5.4
2	중국	9,362	5,023	8,586	18.3	11.6	17.2	70.9
3	말레이시아	4,462	4,327	7,377	8.7	10.0	14.8	70.5
4	대만	5,009	4,513	4,382	9.8	10.4	8.8	-2.9
5	베트남	679	579	2,910	1.3	1.3	5.8	402.6
6	홍콩	2,917	2,434	2,584	5.7	5.6	5.2	6.2
7	대한민국	1,993	2,161	2,490	3.9	5.0	5.0	15.2
8	브라질	1,177	1,140	1,248	2.3	2.6	2.5	9.5
9	필리핀	1,272	1,466	1,166	2.5	3.4	2.3	-20.5
10	캐나다	1,469	1,225	932	2.9	2.8	1.9	-23.9
-	총계	51,287	43,348	49,797	100.0	100.0	100.0	14.9

주: HS Code 854232, 854231, 854239, 854110, 854129, 854130, 854140 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CHIPS Act 감세 및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대형 파운드리와 메모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가속화
  -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및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확산은 로직·HBM 메모리 수요를 견인하며 고성능 반도체 시장 확대

### (참고) 미국 내 분야별 반도체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TSMC	• 애리조나 4nm 팝 본격 양산 시작. 미국 내 추가 팝 및 패키징 시설·R&D 센터 확대 계획, 대미 투자 약 US\$100B 규모
삼성전자	• 텍사스 테일러 클러스터에 47억 달러 투자 확정, 첨단 로직·패키징·R&D 포함
마이크론	• 아이아호·뉴욕 메모리 팝 건설, 최대 64억 달러 투자
인텔	• 애리조나·오하이오·뉴멕시코·오리건 제조 및 패키징에 78억 달러 투자, 정부 신뢰 제조 프로젝트 병행
TI	• 셰먼 300mm 신규 팝 가동 준비(‘25년 생산 예정), 60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
엔비디아	• Rubin CPX GPU 발표(‘25년 9월), Vera Rubin NVL144 CPX 플랫폼 제시. ‘26년 말 출하 목표
울프스피드	• 200mm SiC 재료 상업 출시. 품질·수율 개선, 전력전자 및 자동차 응용 확대
오픈 AI	• 엔비디아, 오픈AI 데이터 센터 구축 140조 투자 및 오픈AI, AMD에서 6GW GPU 공급 협약 체결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25년 10월)

##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첨단 패키징 생태계 확대) 미 상무부는 '25년 1월 첨단 패키징 R&D·파일럿 프로그램에 14억 달러 배정을 확정. 고부가가치 패키징 산업 조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부문 협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 TSMC의 1,650억 달러 투자(3개 팹, 2개 첨단 패키징, R&D 포함)와 앰코의 20억 달러 패키징 허브 구축으로 FC-BGA, 유리기판, 테스트·검증 장비 분야 협력 가능성이 큼
- (메모리·HBM 현지화) 마이크론과 인텔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거점 확대로 HBM 수요 연계 소재·장비 협업 수요가 증가
- (전력반도체) 올프스피드의 200mm SiC 웨이퍼 대량 양산 선언으로 세라믹 기판, 은소결, 열관리, 테스트 장비 등 주변 생태계 협력 수요가 발생
- (제조장비·파운드리·팹리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글로벌 장비사의 2차 공급망 진입 기회가 있으며, 애리조나·텍사스·오하이오 등 신규 팹 클러스터 구축으로 소재·부품·장비 직접 공급 기회가 확대. 실리콘밸리 팹리스 기업(엔비디아, AMD, 퀄컴 등)과는 EDA/IP, 시험·검증, 패키징 최적화 분야에서 협업이 가능

## 나. 인공지능(AI)

### □ 글로벌 및 미국 AI 산업 동향

- 미국의 AI 민간 투자액은 '24년 1,091억 달러로 세계 1위(중국의 12배)
  - AI 산업 확대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는 전년 대비 25% 성장해 분기당 1조 달러에 근접했으며, 미 3대 하이퍼스케일러(AWS, Microsoft, Google)가 주도
  - AI 특화 서버 출하량은 '25년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며, 데이터센터는 '25년 1분기에만 1,34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53% 증가

## □ 최근 수출입 동향

### 최근 3년간 미국의 정보통신(ICT) 서비스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인도	13,066	13,952	16,849	21.52	21.09	23.20	20.76
2	캐나다	12,223	12,129	11,429	20.13	18.34	15.74	-5.77
3	아일랜드	8,144	8,685	8,619	13.41	13.13	11.87	-0.76
4	영국	4,521	5,369	6,259	7.45	8.12	8.62	16.58
5	일본	1,717	1,776	2,791	2.83	2.68	3.84	57.15
6	독일	1,236	1,686	1,985	2.04	2.55	2.73	17.73
7	네덜란드	1,358	1,709	1,567	2.24	2.58	2.16	-8.31
8	호주	891	1,141	1,368	1.47	1.72	1.88	19.89
9	스위스	1,006	813	1,299	1.66	1.23	1.79	59.78
10	프랑스	722	687	948	1.19	1.04	1.31	37.99
15	대한민국	962	1,138	657	1.58	1.72	0.90	-42.27
-	총계	60,719	66,149	72,634	100.0	100.0	100.0	9.80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5년 6월)

### 최근 3년간 미국의 정보통신(ICT) 서비스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영국	8,920	10,084	11,523	12.49	12.85	12.69	14.27
2	캐나다	8,821	9,337	10,178	12.35	11.90	11.21	9.01
3	독일	4,421	4,725	6,206	6.19	6.02	6.84	31.34
4	일본	4,232	4,861	5,382	5.93	6.19	5.93	10.72
5	스위스	3,254	2,789	4,139	4.56	3.55	4.56	48.40
6	호주	3,115	3,799	3,960	4.36	4.84	4.36	4.24
7	브라질	2,877	3,265	3,636	4.03	4.16	4.01	11.36
8	프랑스	2,299	2,693	3,140	3.22	3.43	3.46	16.60
9	싱가포르	2,238	2,776	3,029	3.13	3.54	3.34	9.11
10	아일랜드	2,636	2,371	2,848	3.69	3.02	3.14	20.12
15	대한민국	1,649	1,776	1,815	2.31	2.26	2.00	2.20
-	총계	71,405	78,484	90,783	100.0	100.0	100.0	15.67

자료: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25년 6월)

- 정보통신(ICT) 산업 전반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3개년 모두 수출이 수입보다 큰 무역 흑자 산업
- 산업안보국(BIS)의 AI 관련 대중(對中) 수출 제한 강화로 생성형 AI 기술 및 첨단 AI 칩·서버 수출은 제한적

##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AI 모델·플랫폼 분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생성형 AI 서비스 주도

### (참고) 미국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Open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hatGPT, GPT-4, DALL·E, Codex 등 세계적인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ftBank, Oracle, MGX와 함께 4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Stargate'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텍사스에 10개 데이터센터 건설, 향후 영국, 일본, UAE 등으로 확장 계획</li> </ul> </li> <li>- xAI, Cursor와 같은 AI 코딩 스타트업과 협력, AI 코딩 도구 분야에서 수익화 가능성 모색 중</li> </ul> </li> </ul>
Anthrop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laude 시리즈를 바탕으로 통해 1만 개 이상 기업에 AI 모델 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9월 Series F 라운드에서 130억 달러 유치, 기업 가치 총액 1.8조 달러로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oniq Capital, Fidelity Management &amp; Research, 카타르 투자청 등 참여</li> </ul> </li> <li>- '24년 연간 수익 50억 달러, 30만 명 이상의 기업 고객 확보에 성공하며 점유율 확대 중</li> </ul> </li> </ul>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emini 시리즈를 바탕으로 AI 모델 성능 향상 및 산업 분야 내 활용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7월 기준 기업 가치는 약 60억 달러로 평가, '24년 23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li> </ul> </li> </ul>
DeepM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Future Fund, DeepMind 펠로우십 등을 통하여 AI 스타트업, 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대회 및 스타트업,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AI 모델, 클라우드 크레딧 무상 지원 중</li> </ul> </li> </ul>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Teknovation 등('25년 10월)

- (AI 인프라·클라우드)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투자가 경쟁적으로 진행

### (참고) 미국 AI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W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Azure) 제공 및 AI 모델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약 1천억 달러를 투입하여 데이터센터 확장 및 AI 전용 서버 도입</li> <li>- Trainium2, SageMaker HyperPod등 AI 모델 학습에 특화된 인스턴스와 솔루션 제공</li> <li>- AI 에이전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Bedrock AgentCore 플랫폼을 AWS 마켓과 통합하여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AI 개발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li> </ul> </li> </ul>
Microso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최적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자체 AI 모델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8월 25개 이상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 중</li> <li>- Microsoft의 자체 설계 칩(Maia 100, Maia 200)을 활용한 고밀도 GPU 클러스터 제공</li> <li>- 위스콘신, 텍사스 내 데이터센터 확대,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 할인 정책을 통한 시장 확대 중</li> </ul> </li> </ul>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b>Googl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내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효율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등에 '25년 총 2,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데이터센터 구축</li> </ul> </li> <li>- AI Hypercomputer 등 AI 모델 최적화 리소스 및 자체 생성형 AI 솔루션 제공</li> <li>- '25년 4월 TPU v7 'Ironwood'를 발표하는 등 AI 전용 칩 개발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효율화 및 AI 특화 인프라 제공에 집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데이터센터 및 AI 전용 GPU 수요 확대의 최대 수혜자,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데이터센터용 GPU 수요 확대로 9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Nvidia는 폭발적 성장 중</li> </ul> </li> <li>- '25년 AI 학습·추론에 최적화된 GPU(Blackwell)를 250만 개 이상 공급하며 매출 견인</li> <li>- 로봇 등 물리적 적용이 가능한 엣지 컴퓨팅, 양자 컴퓨팅, 차세대 GPU 설계 등 AI 기술 특화 및 투자를 통한 신규 시장 확대 추진</li> </ul>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AlInvest, Bloomberg, datacenters, Reuters 등('25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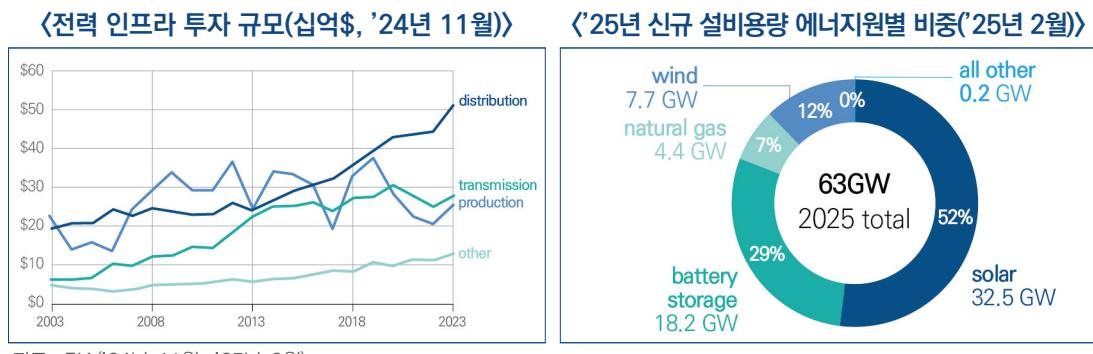
##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도메인 특화 AI 개발) 한국의 산업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협업 기회가 확대
  - \* (의료) 한국의 전자의료 차트(EMR)를 통해 수집된 의료 데이터(영상, 이미지 등)에 기반한 AI 모델 개발 및 HIPAA 규정 내 적용 가능 여부 검증
  - \* (제조) 스마트팩토리 데이터셋에 기반한 제조업 특화 AI 솔루션 공동 개발
- (AI 특화 반도체) NVIDIA 독점 탈피를 위한 협업 수요가 증가
  - \* 한국 팹리스 기업과 미국 빅테크·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AI 추론 최적화 칩 생산
  - \*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미국 AI 기업 수요에 맞춘 전용 반도체 공급망 진입을 통한 안정적인 장기 협력 관계 구축
- (컴플라이언스 테크) AI 규제 강화 속 관련 수요 증가
  - \* 미국 내 AI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성 검증 규제 강화에 따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대응 기준이 적용된 AI 솔루션 개발 협력 가능
  - \*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EU와 유사한 수준의 AI 규제 확대로 인하여 향후 관련 시장의 확대 예측

## 다. 에너지·전력

### □ 개요

- 미국은 에너지 공급 시장에서 화석연료가 중심축을 이루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며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할 전망
  - (전력 인프라) 송·배전망 투자 규모로 측정한 전력인프라 산업 규모는 '23년 277억 달러, 배전망은 509억 달러이며, 10년 전과 대비 각각 300%, 160% 증가
    - \* 시장 규모 : 약 850억 달러 '23년까지 10.2% 성장해 1,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Jackson Industries)



자료: EIA('24년 11월, '25년 2월)

- 캐나다는 '25년 넷제로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수소·원자력 3대 축 중심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 중
  - 연방정부는 '청정경제 패키지' 및 투자 세액공제(청정전력·청정기술·제조·수소) 연계의 인프라 투자 촉진 체계 구축

### ※ 청정경제 패키지

- 청정전력·청정기술·제조(배터리·EV 공급망)·수소·CCUS 등 6대 분야에 환급형 투자세액공제(대부분 30%, 수소 15~40%)를 제공, 민간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둑음
- '23~'34년 적용을 전제로 기업 투자 확실성을 높여 전력망·제조 생태계 유치와 넷제로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 □ 최근 수출입 동향

- (오일·가스) '24년 미국은 에너지 생산의 30%를 수출하며 원유·LNG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 세계 1위 수출국으로, 정제·가공 후 재수출 허브 역할이 강화되며 수입은 둔화됐으나, 수출 인프라 확충 여지는 여전히 큼
  - 미국이 정제·가공 후 재수출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에 따라 제품 수입은 둔화. 이에 중기적으로는 가격·정책 등의 요인으로 시장에서 신규 생산이 증설되지는 않고 있으나, 수출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기회가 예상됨

### 최근 3년간 미국의 오일과 가스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캐나다	164,415,208	128,968,004	130,565,856	51.06	49.01	51.93	1.24
2	멕시코	26,664,864	25,010,792	16,882,834	8.28	9.51	6.71	-32.50
3	사우디아라비아	21,150,160	14,153,602	10,834,778	6.57	5.38	4.31	-23.45
4	브라질	7,583,951	8,326,898	8,835,744	2.36	3.16	3.51	6.11
5	콜롬비아	9,628,662	7,159,034	7,850,725	2.99	2.72	3.12	9.66
6	이라크	10,303,448	8,862,466	7,770,851	3.20	3.37	3.09	-12.32
7	베네수엘라	2,226	3,467,976	6,043,246	0.00	1.32	2.40	74.26
8	나이지리아	4,396,070	5,371,966	5,466,400	1.37	2.04	2.17	1.76
9	가나	2,677,157	3,098,995	5,313,427	0.83	1.18	2.11	71.46
10	대한민국	5,564,524	4,897,466	5,147,304	1.73	1.86	2.05	5.10
	세계	322,029,937	263,128,616	251,444,944	100.00	100.00	100.00	-4.44

주: HS Code 27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6월)

- (전력 인프라) 대형 변압기는 수입 비중이 80%에 달하나, Siemens 등 주요 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 계획으로 향후 감소가 예상

### 최근 3년간 미국의 변압기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중국	146,011,576	126,740,899	127,041,979	30.65	27.42	26.17	0.24
2	멕시코	78,823,421	84,631,664	87,395,186	16.55	18.31	18.00	3.27
3	베트남	46,755,939	41,793,426	42,542,848	9.81	9.04	8.76	1.79
4	대만	29,692,671	26,983,496	32,447,811	6.23	5.84	6.68	20.25
5	말레이시아	31,119,621	26,372,154	28,370,414	6.53	5.71	5.84	7.58
6	태국	17,303,855	20,739,795	23,094,529	3.63	4.49	4.76	11.35
7	대한민국	23,458,980	19,708,255	20,664,607	4.92	4.26	4.26	4.85
8	일본	20,551,743	19,376,388	19,162,661	4.31	4.19	3.95	-1.10
9	인도	5,993,481	12,056,954	14,373,634	1.26	2.61	2.96	19.21
10	독일	11,120,420	12,401,785	11,982,245	2.33	2.68	2.47	-3.38
	세계	476,377,639	462,243,065	485,537,473	100.00	100.00	100.00	5.04

주: HS Code 85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6월)

## □ 현지 주요 기업 동향

- (오일·가스) 미 걸프 LNG 증설과 북미 가스 파이프라인 확대로 수출 체인이 강화되는 반면, CAPEX 규율·구조조정으로 비용 효율화 진행 중

### (참고) 미국 오일·가스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xxon Mob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걸프만 수출 확대에 발맞춰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대서양 분지(가이아나 Yellow Tail 프로젝트) 조기 가동을 통해 신규 공급 물량 확보</li> <li>'25년 CAPEX 가이던스를 동결, 유지하고 퍼미안, 가이아나 분지 등 핵심 측은 투자 확대,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며 포트폴리오 조정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조정 및 CAPEX 규율 강화 : '25년 전체 인원 20~25% 감원 발표로 비용 효율화 및 CAPEX 규율 강화로 수익성 우선, 주주 환원 원칙 강조</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로이터('25년 9월)

-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AI 수요가 PPA·발주 견인, 관련 부품의 미국 현지화 신제품 발표 다수

### (참고)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NextEra Energy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년 2분기 신규 3.2GW 프로젝트 추가, 향후 진행 예정 프로젝트 용량 약 30GW 확보</li> </ul>
First Sol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주 용량 '30년까지 64GW 확보, 미국 내 제조 강화를 위해 약 40억 달러 투자 계획</li> </ul>
Tesla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년 9월 유ти리티급 배터리 저장장치 Megapack 3와 통합형 그리드 패키지 설비 Megablock 공개, '26년 말 출하를 목표로 텍사스 휴스턴 인근 공장에서 생산 예정으로 1,500명 고용 계획</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로이터('25년 9월)

- (전력 인프라) 송전·변전 병목 해소를 위한 투자 계획이 변압기 등 하드웨어 생산 증설과 그리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견인

### (참고) 미국 전력 인프라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E Verno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전력계획 소프트웨어 PlanOS 출시, 그리드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 강화</li> <li>풍력 부문 등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그리드 소프트웨어 부문을 강화하는 등 사업 영역 조정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 의존 및 리드타임 단축 목적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지역에 '27년 생산 시작 목표로 대형 변압기 제조시설 구축</li> </ul>
Siemens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년 2분기 기준 프로젝트 잔여 수주금액이 약 358억 달러로 사상 최대 달성, 그리드 정비, 신규 부하 연계 프로젝트 연속 수주</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로이터('25년 9월)

##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오일·가스) LNG·가스 시추 및 수출터미널 이동에 필요한 모듈러·패키지형 공정장치(열교환기, 계측 시스템, 극저온 탱크) 수요와 기존 시추시설 개보수를 위한 파이프라인·가스 압축 장비 수요가 지속될 전망
-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AI 수요 확대로 인버터·BESS 등 태양광·저장장치 부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산 요건·FEOC 회피를 위한 미국 내 조립·가공·개발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전력 인프라) 송배전 확충으로 변압기·케이블·ESS 등 협력 수요가 확대되며, 현지 인증·유지보수·공동설계 기반의 통합 솔루션이 경쟁력의 핵심
- (인센티브 활용) 캐나다는 청정투자 세액공제(30%, 수소 15~40%)와 한-캐 FTA·CPTPP의 관세·원산지 이점을 활용해 공급망 편입을 가속
  - 아울러, 온타리오 및 케이블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기자재 프로젝트가 확인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작용

### 캐나다 전력 기자재 관련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지역	투자 규모	핵심 수요 품목	진행 상태
Maritime Grid Modernization	PEI·NS·NB	1,600만 CAD	스마트 계량·배전 자동화·통신 설비	단계적 실행
Atlantic Loop (수정 구상)	퀘벡-대서양권	N/A	장거리 송전, HV 케이블·대용량 변압기	구간별 설계·협의
ON-QC 연계 강화	온타리오·퀘벡	600MW급 스왑	변전·보호 설비 업그레이드	운영 개시·연장 옵션
Darlington SMR	온타리오	약 209억 CAD	변전·계측·안전 설비, 특고압 케이블	단계별 구축
Bruce 리퍼브	온타리오	약 130억 CAD	대용량 변압기·차단기·제어 설비	순차 추진

자료: Major Projects Office(캐나다)(‘25년 10월)

## 라. 기계

### □ 개요

- '24년 미국 일반기계 산업 규모 약 3,267억 달러로 추산(IBIS World, '25년 4월)
  -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제조업체들은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또한 행정부의 Made in America 아젠다에 따라 제조업 관련 인프라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중,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는 '23년에 약 622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13.2%씩 성장하여 '30년에는 1,482억 달러가 될 전망

- 포드(Ford)는 AI 기반 자동화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3년 만에 생산 효율을 20% 향상, 운영 비용을 15% 절감하는 성과를 거둠
- 또한 에어버스(Airbus)는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결함률 30% 감소
  - \* 미국 일반기계 시장 규모 : ('24년) 약 3,267억 달러 → ('28년) 연평균 1.7% 성장
  - \* 미국 자동화기계 시장 규모 : ('24년) 470억 달러 → ('30년) 연평균 10.5% 성장

### 미국 일반 기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USD 백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규모	324,600	326,700	331,700	339,300	344,200	348,900	352,500

자료: IBIS('25년 8월)

- 최근 수출입 동향

- HS Code 8462.62 기준, '24년 미국의 금속 성형 가공 기계 수입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7억을 기록
- 주요 수입국으로는 일본, 한국, 독일 등이 있으며, 이 중 한국은 미국의 제2위 수입국으로 점유율 24%, 수입액 2.3억 달러로 나타남

### 최근 3개년 미국의 금속 성형 가공 기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수입국명	2022년	2023년	2024년	'23년 점유율	'24년 점유율	증감률 ('23년 대비 '24년)
1	일본	4,567	13,592	25,089	18.91	25.67	84.59
2	대한민국	15,754	7,546	23,539	10.50	24.08	211.96
3	독일	11,849	11,529	17,808	16.04	18.22	54.46
4	중국	1,995	1,099	7,688	1.53	7.86	599.71
5	대만	1,224	7,429	6,979	10.33	7.14	-6.05
6	캐나다	20,752	2,047	6,418	2.85	6.57	213.61
7	스위스	744	142	4,117	0.20	4.21	2,789.48
8	튀르키예	10	83	1,933	0.12	1.98	2,225.04
9	이탈리아	1,109	1,689	1,755	2.35	1.80	3.88
10	영국	106	6,502	713	9.04	0.73	-89.03
<b>전체</b>	-	88,344	71,886	97,751	100.00	100.00	35.98

주1: HS Code 8462.62 기준

주2: 증감률은 '23년 대비 '24년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8월)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AI 서버, 데이터센터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정밀도와 생산 안정성이 중요한 금속 성형 장비 수요가 증가
  - 이에 따라 유압 프레스와 서보 프레스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계식 프레스와 같은 자동화·고정밀 프레스 장비에 주목

### 미국 제조업체 코마츠 아메리카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코마츠 아메리카 (Komatsu Am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시설 확대 및 자동화 연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년 4월, 코마츠 아메리카는 애리조나 주 메사(Mesa)에 2만m<sup>2</sup> 규모의 최신 판매 및 서비스 시설 건설을 착수</li> </ul> </li> <li>총 8,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로, 광산·중장비 고객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자동화 시스템 적용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li> <li>'25년 8월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 프론토(Pronto)와 협력하여 북미 시장에서 스마트 광산용 자율운반 트럭 솔루션(Smart Quarry Autonomous)을 발표하는 등, 자동화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li> </ul>

자료: 코마츠 아메리카('25년 8월)

###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금속 가공 기계는 높은 응력과 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금형 접촉 부위의 마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고강도 합금 소재와 첨단 윤활 시스템을 적용해 마모를 최소화하는 기술력이 경쟁력 확보가 핵심 요소로 부각
- 정밀도와 내구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용도 가공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 확대 가능

## □ 기타

- 미국 제조업 및 신산업 성장에 따른 설비 수요 증가할 전망
    - '25년 6월 기준, 미국 데이터센터 착공액은 24억 달러였으며, '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9억 달러 기록
    - 데이터센터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은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냉각장치, 전력관리 시스템, 금속 쇄시·케이스와 같은 산업용 부품 수요 증가 전망
- \* '25년 6월 기준, 상반기 금속 가공 기계 신규 주문 총액 '24년 상반기 대비 13.7% 증가한 약 25억 2,000만 달러(The Association For Manufacturing Technology, AMT, '25년 8월)

## 마. 자동차·부품

### □ 미국은 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 생산 및 소비 시장으로, '30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미국 자동차 생산량은 '24년 기준 약 1,056만 대로(OICA, '25년 8월), '31년까지 약 1,100만 대에 이를 전망

#### 미국 자동차 생산 전망

(단위: 백만 대)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생산	10.1	10.4	10.5	10.8	10.9	10.9	11.0

자료: Plante Moran('25년 4월)

- 미국 신차 판매는 '24년 1,570만 대를 달성, 고금리와 관세 등 불확실성으로 '26년까지 감소할 전망

#### 미국 자동차 판매 전망

(단위: 백만 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상)	2026년 (예상)	2027년 (예상)	2028년 (예상)	2029년 (예상)	2030년 (예상)
판매	14.6	15.1	13.9	15.6	15.7	15.1	14.0	15.1	16.0	16.0	15.8

자료: BCG('25년 5월)

- 미국 중고차 시장 규모는 '25년 1조 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고금리와 관세 부담에 따른 신차 구매 위축으로 중고차 수요 확대
  - '25년 8월 판매는 약 155만 대로, 상반기 평균 147만 대 대비 증가세
  - 평균 소매 가격은 '24년 하반기 상승세 이후 '25년 들어 안정 구간에 진입, 단기 변동성은 축소 국면
  - 재고 물량은 200만~220만 대에서 유지되며, 재고 일수는 평균 40일 대로 '19 팬데믹 이전 평균 (약 60일)보다 낮아 공급이 타이트한 상태

#### 미국 중고차 시장 주요 지표

(단위: 천 대, USD 천, 일)

구분	'24년 9월	'24년 10월	'24년 11월	'24년 12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25년 8월
매출	2,063	2,181	2,207	2,166	2,180	2,008	2,119	2,204	2,159	2,179	2,160	2,205
판매	1,335	1,384	1,366	1,320	1,338	1,502	1,607	1,511	1,472	1,408	1,481	1,553*
평균 가격	\$25.3	\$25.5	\$25.6	\$25.8	\$25.2	\$25.0	\$25.2	\$25.5	\$25.4	\$25.5	\$25.5	\$25.4
재고 일수	46.3	47.3	48.5	49.2	48.9	40.1	39.6	43.8	44.0	46.4	43.8	42.6

\* 최근 30일 기간의 판매에 대한 선행치로, 향후 데이터 발표에서 수정될 수 있음  
 자료: Cox Automotive('25년 9월)

- (자동차 부품) 매출액 기준 연간 약 700억 달러 규모 제조 산업으로, 수입 비중이 45%를 상회
  - '24년 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매출은 약 703억 달러로, 절반 이상이 완성차 업체와 거래에서 발생, '30년까지 1.8% 성장세를 보여 775억 달러에 이를 전망

###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USD 십억)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 매출액	70.3	70.8	71.9	73.5	74.8	76.1	77.5

자료: IBIS World('25년 4월)

### □ 현지 주요기업 동향

- (북미 중심 공급망 재편) 통상질서 개편에 대응해 생산과 조달 거점을 멕시코·캐나다 등 역내로 집중시키고, 미국 내 제조 공정을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

### 미국 자동차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멕시코·캐나다 거점 유지, USMCA 기준 충족으로 관세 부담 30% 절감 목표('25년 5월)</li> <li>(투자) 미시간, 캔자스, 테네시의 3개 공장에 향후 2년간 40억 달러 투자, 연간 200만 대 이상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보 목표('25년 6월)</li> </ul>
F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미국 내 조립 비중 확대 및 멕시코 생산 모델의 유통 경로 조정 검토('25년 2월)</li> <li>(투자) 켄터키 루이빌 조립공장에 20억 달러 투자, 신규 전기 픽업트럭 생산 라인 구축('25년 8월)</li> </ul>
Stellan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단기 조정, 멕시코 생산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북미 전역 생산 구조를 재편('25년 5월)</li> <li>(투자) 일리노이주 조립공장 재가동 및 디트로이트·토레도·코코모 등 50억 달러 투자로 설비 현대화·차세대 라인 구축('25년 1월)</li> </ul>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앨라배마·조지아 공장 중심 북미 생산 확대, HMGMA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으로 Ioniq 시리즈 등 현지 조립 강화('25년 3월)</li> <li>(투자) '25~'28년 총 210억 달러 투자로 EV 생산능력 확대, 로컬 조달·혁신 기술 협력, 철강 내재화 기반 구축 추진('25년 5월)</li> </ul>
Volkswa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멕시코 거점 유지, 북미 통합 생산 체계로 비용 효율·관세 대응('25년 3월). 또한 북미 수출 의존을 줄이기 위해 Audi 등 일부 브랜드의 미국 내 생산을 신규 검토('25년 5월)</li> <li>(투자) Rivian에 58억 달러 지분 투자, 북미 EV 인프라 확충을 위해 Siemens와 함께 Electrify America에 4억 5,000만 달러 공동 투자('25년 5월)</li> </ul>
Toy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멕시코 생산 거점을 유지하며 Tacoma·Corolla 등 USMCA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북미 통합 생산 체계 운영, 장기적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25년 5월)</li> <li>(투자) 미국 버지니아 공장에 8,800만 달러 추가 투자, 총 28억 달러 규모의 하이브리드 트랜스액슬 생산라인 구축('25년 4월)</li> </ul>

자료: 각 사 홈페이지('25년 9월)

- (하이브리드와 저가형 EV 병행 생산) 고수익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기차(EV)를 병행 생산하여 수익성과 시장 대응력 동시 확보

### 미국 자동차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브리드) 현대차와 협력, 중남미 시장용 SUV·픽업 등 하이브리드 병행 모델 공동 개발('25년 8월)</li> <li>중국 PHEV 기술 활용, '27년 북미 전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 발표('24년 1월)</li> <li>(EV) '26년 목표로 Chevrolet Bolt 후속 저가형 EV 개발('25년 5월)</li> </ul>
Fo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브리드) Escape·Maverick 중심으로 판매 확대, 픽업 모델까지 적용 범위 확장('25년 3월)</li> <li>(EV) '27년 목표로 3만 달러대 보급형 모델 개발('25년 8월)</li> </ul>
Stellant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브리드) Wrangler·Grand Cherokee 4xe 중심 PHEV 라인업 강화, Cherokee 후속 모델까지 확대 적용('24년 11월)</li> <li>(EV) Jeep 브랜드 중심으로 2만 5,000 달러대 보급형 EV 출시 계획 발표('25년 5월)</li> </ul>
현대·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브리드) 앨라배마·조지아 공장서 하이브리드 SUV 생산 확대('25년 3월)</li> <li>(EV) 기아 EV3 등 3만 달러대 보급형 EV 모델 미국 내 판매 개시('24년 10월)</li> </ul>
Volkswa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브리드) 주요 시장은 유럽 중심, 북미에서는 제한적 운영('25년 3월)</li> <li>(EV) ID.2 기반의 저가형 EV를 미국 시장에 도입 검토 중('24년 11월)</li> </ul>
Toy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브리드) RAV4·Camry 등 주력 모델 중심의 하이브리드 생산 확대('25년 4월)</li> <li>(EV) bZ 시리즈 저가형 EV 신모델 미국 시장 투입 검토('25년 6월)</li> </ul>

자료: 각 사 홈페이지('25년 9월)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미국 주요 하이브리드 기술 및 부품 내재화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협업 수요 존재
    -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엔진-모터 통합 제어, 회생 제동 제어, 주행 모드 전환 전략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반 통합 제어 기술
    -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셀·모듈·팩 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배터리 수명 연장과 에너지 최적화를 실현하며,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력 관리 기술
    - (경량화 및 소재 가공)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탄소·유리 섬유 등 복합 소재 적용, NVH 저감 기술 등 경량화 기반 소재·부품 가공 기술
- \*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 소음, 진동, 불쾌감

- 멕시코 정부, 非FTA 국가 대상 전기차 등 50% 상한 관세 인상 추진
  -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한국·인도 등 非FTA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기차 및 1,400여 개 이상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안 발표(9월 11일), 최종 시행은 의회 승인 필요
  - 실행 시 전기차 관세는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되며, 플라스틱, 전자제품, 가구 등 전체 멕시코 수입의 약 8.6%에 해당하는 품목에 영향
  -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의 고율 관세와 유사하게, 저가 수입 공세 차단과 국내 산업 경쟁력 등을 목표로 제시
  - 현지 언론은 중국의 멕시코 자동차 분야 투자 확대 등 중국 이슈가 '26년 7월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검토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 전망

## 바. 조선

### □ '24년 미국 조선업 규모는 약 370억 달러 규모로 방위산업 중심이며 상업용 선박은 제한적

(IBIS World, '25년 4월)

- 미국 조선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상업용 선박 건조 역량은 축소된 상태
  - \*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받으며 50개 이상의 조선소에서 1,0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 했으나, 이후 상업 조선에 대한 정부의 관심 약화와 해외 조선업체 성장으로 상업 분야는 급격히 쇠퇴
- 현재 미국 조선산업은 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등 고부가가치 방위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보유
- 존스법 적용으로 상업용 조선소는 약 20곳에 불과하며, '25~'30년 연평균 11.8% 성장해 '30년 약 511억 달러에 이를 전망
  - \* 존스법(Merchant Marine Act, 1920 제27조)은 미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보유하며, 미국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
  - \* '83년 이후 약 30년간 미국 내 상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400여 곳에서 대부분 폐업하며 현재 소수만 남게 됨

### □ 최근 수출입 동향

- 존스법 규제로 외국산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이 불가능해 미국 선박 수입 시장은 제한적이며, 주로 부품·소재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짐
- 수출은 전년 대비 20.71% 증가한 960억 5,3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이스라엘, 멕시코 등

## 최근 3년간 미국 조선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1	베트남	808	794	1,051	11.78	20.90	26.47	32.39
2	캐나다	431	1,034	487	6.28	27.22	12.27	-52.86
3	중국	85	323	428	1.24	8.51	10.77	32.20
4	터키	68		311	0.99		7.84	
5	우크라이나	404	542	297	5.89	14.27	7.48	-45.19
6	독일	63	30	290	0.92	0.78	7.31	879.32
7	멕시코		178	269		4.68	6.76	51.07
8	일본	76	50	242	1.11	1.32	6.09	383.07
9	호주	338		121	4.93		3.05	
10	폴란드			112			2.82	
	세계	6,864	3,799	3,972	100.00	100.00	100.00	4.55

주: HS Code 8901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6월)

## 최근 3년간 미국 조선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31	이스라엘			53,643			55.85	
38	멕시코	420	14,008	16,767	1.15	17.60	17.46	19.70
10	캐나다	24,186	59,560	13,269	66.36	74.85	13.81	-77.72
3	바하마	3,055	228	2,913	8.38	0.29	3.03	1174.77
41	나이지리아	803	3,387	2,122	2.20	4.26	2.21	-37.34
45	페루	47	7	1,673	0.13	0.01	1.74	24798.93
33	일본	52	63	1,300	0.14	0.08	1.35	1954.95
47	폴란드	6	33	1,158	0.02	0.04	1.21	3407.67
22	독일	60	73	850	0.16	0.09	0.88	1065.20
54	스페인	19		394	0.05		0.41	
	세계	36,446	79,573	96,053	100.00	100.00	100.00	20.71

주: HS Code 8901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6월)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흥 전략
  - 미국 의회는 세계 무역의 약 80%가 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의 상업 선박 제조 경쟁력이 사실상 상실('24년 글로벌 점유율 : 중국 53.3%, 한국 29.1%, 일본 13.1%, 미국 0.1%)되었음을 지적하며 해양·조선 분야 패권 회복을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 조선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을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25년 3월 의회 연설에서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조선소 소유·운영, 구축함 생산 허용 가능성과 미 해군의 외국산 비전투 수상함 구매 가능성을 언급

### (참고) 미국 주요 조선소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General Dynamics Corp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5위 방위 산업 업체, 1952년 일렉트릭 보트(Electric Boat)를 모체 1952년에 설립</li> <li>• 현재 10여 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전 세계에서 영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군수 업체 인수·합병을 통해 항공우주·방위 산업·해양 시스템·전투 시스템 등 방산 분야에서 사업 운영</li> </ul> </li> <li>• 해양 시스템 부분에서 핵 잠수함 조선소 일렉트릭 보트와 이지스 구축함 전문 조선소 아이언 웍스(Iron Works) 자회사 운영</li> <li>• 경쟁 동향 : '98년 미 서해안의 유일한 대형 조선소 NASSCO를 인수했으며, 이로 인해 헌팅턴 인걸스(Huntington Ingalls)와 미 해군 함정 건조 양대 체제 구축</li> </ul>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함께 미 해군 주요 전투함 건조 양대 체제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모함, 이지스함, 수상 전투함, 잠수함 등을 건조하고, 함대 지원 및 수리를 하고 있음</li> </ul> </li> <li>• 미 동부의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조선소 및 함대 지원 거점을 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포트뉴스 조선소 : 미국 내 유일의 원자력 항공모함 조선소</li> <li>- 잉겔스 조선소 : 미시시피주 거점으로 구축함, 상륙함, 연안전투함 등 다목적 전투함 건조</li> </ul> </li> <li>• 국방, 사이버, 무인체계, 행 관련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 중이며, 인공지능, 자율 운항, 사이버 보안 등에 투자하고 있음</li> </ul>
Hanwha Philly Shipy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 조선소를 인수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르웨이 기업 Aker의 소유 기업이었으나 '24년 12월 한화오션과 한화 시스템이 인수</li> <li>- 한화그룹의 그로벌 방산·조선 네트워크와 결합하여 미국 내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계획</li> </ul> </li> <li>• 미국 조선업의 방산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상선·군수지원선 중심의 특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LNG 운반선 수주하며, 미국 내 상업 선박 조선업의 부활을 예고('25년 7월)</li> </ul> </li> <li>• 시설 증대를 통해 '35년까지 연간 건조 10척이 가능한 조선소로 확대 예정</li> </ul>

자료: 각 사 홈페이지('25년 9월)

##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 및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조선 기술을 도입하고, 한국산 선박 구매를 추진할 의사 표명



### 한국 기업 현지 조선소 인수 사례

- (조선소 인수) 한화 오션, 미국 진출을 미국 조선소 필리십야드 인수 및 미국 해군 유지보수(MRO) 사업 수주
  - 노르웨이 기업 아케르(Aker)로부터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십야드를 1억 달러에 인수하며 미국 조선업에 진출
  - 필리십야드를 통해 '35년까지 연간 10척 선박 건조 가능한 조선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총 7,000만 달러 투자할 계획
  - 필리십야드를 통해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는 한편 해군 유지보수 사업도 수주할 예정
- (미 조선소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HD현대와 삼성중공업, 미국 방산 조선소와 협력을 통해 선박 공동 건조
  - HD현대는 헌팅턴 잉글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에디슨 슈웨스트 오프쇼어(Edison Chouest Offshore)와 업무 협력을 통해 기술을 공유 및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으로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기로 합의
  - 삼성중공업은 비거 마린 그룹(Vigor Marine Group)과 MOU를 체결하고, MRO 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기자재 공급과 인력 양성에도 나설 예정
- (시사점) 우리 기업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 의지를 파악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해 미국 조선업 진출에 적극 추진
  -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 조성을 약속하고, 미국 조선업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후원할 예정
  - 우리 기업은 정부 후원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소 현대화,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조선소 인수 등에 투자하며, 이를 통해 선박 수주와 기자재 공급 등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

자료: 백악관(25년 10월)

## □ 미국 정부의 협력 의지와 한미 간 협상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분야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MASGA 프로젝트)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할 계획

## 사. 제약·바이오

###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24년 미국의 제약 시장 규모는 6,343억 달러로 추산
  - 미국의 제약 산업은 치료제 발전과 견고한 파이프라인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표적 치료제, 바이오 기술, 맞춤형 치료제 분야의 발전이 치료제 모델을 재편했으며, 암, 유전병, 자가면역질환 분야에 효과적인 솔루션 제공이 산업 성장 주도
  - 美 제약 산업은 '25~'30년까지 연평균 5.7% 성장해 '30년 시장 규모는 8,8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최근 수출입 동향)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16위로 금액 '24년 39억 7,800만 달러로, '23년 28억 6,300만 달러 대비 41.71% 증가

### 최근 3년간 미국 의약품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아일랜드	32,462,331	35,590,339	50,221,572	19.73	20.05	23.61	41.11
2	스위스	17,595,509	15,154,872	18,880,685	10.69	8.54	8.88	24.58
3	독일	17,845,162	18,885,176	17,233,742	10.84	10.64	8.10	-8.74
4	싱가포르	4,384,609	9,890,631	15,265,253	2.66	5.57	7.18	54.34
5	인도	9,071,119	10,987,634	12,722,529	5.51	6.19	5.98	15.79
6	벨기에	10,132,028	6,585,659	12,318,946	6.16	3.71	5.79	87.06
7	이탈리아	6,521,702	8,131,262	11,572,167	3.96	4.58	5.44	42.32
8	중국	10,387,341	5,986,834	7,905,849	6.31	3.37	3.72	32.05
9	일본	6,999,047	6,600,972	7,489,975	4.25	3.72	3.52	13.47
10	영국	6,351,750	6,831,401	7,287,395	3.86	3.85	3.43	6.67
	세계	164,551,947	177,489,099	212,705,809	100.00	100.00	100.00	19.84

주: HS Code 30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6월)

### 최근 3년간 미국 의약품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출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중국	9,275,330	9,893,920	9,465,658	11.16	11.05	10.02	-4.33
2	네덜란드	7,916,203	8,602,269	8,701,444	9.52	9.61	9.21	1.15
3	일본	6,532,411	6,299,416	8,409,270	7.86	7.04	8.90	33.49
4	독일	6,547,289	6,504,267	7,686,998	7.87	7.27	8.14	18.18
5	캐나다	6,992,574	5,887,506	6,975,653	8.41	6.58	7.38	18.48
6	영국	5,566,296	5,487,104	5,604,251	6.69	6.13	5.93	2.13
7	스페인	4,954,676	5,518,614	5,150,055	5.96	6.17	5.45	-6.68
8	벨기에	3,162,284	8,045,800	4,639,688	3.80	8.99	4.91	-42.33
9	아일랜드	3,748,700	4,021,245	4,474,595	4.51	4.49	4.74	11.27
10	멕시코	2,134,436	2,466,659	3,479,184	2.57	2.76	3.68	41.05
	세계	83,143,822	89,504,726	94,467,599	100.00	100.00	100.00	5.54

주: HS Code 30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6월)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혁신 동력 확보 수요 증가
  - 의약품 특허 만료에 따른 성장 공백('30년까지 상위 35개 제약바이오 기업 성장 공백 2,300억 달러)
  - 특허절벽에 직면한 빅파마들이 M&A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추세
  - AI 스타트업과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중심의 3상 이전 단계를 타깃으로 한 합리적인 소규모 거래 기조 지속
- 공급망 재편
  - 트럼프 대통령은 필수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료의약품 전략 비축고'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의약품에 100% 부과예고하였으나 '25년 10월 현재 시행 유예'
  - 이에 따라 화이자와 비롯한 주요 제약사들은 대중 견제 및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당 리스크가 낮은 국가로 공급망을 이전 중
  -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가격이 타 국가 대비 높은 상황 고려, 해외 대비 인하 정책 시행, 대표적으로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합의를 통해 두 회사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체중 감량용 약) 가격 인하 유도, 가계지출에서 의약품 지출 비중 경감 유도

## (참고) 미국 제약 산업 주요 기업 동향

연번	기업명	투자금	투자 계획
1	Johnson & Johnson	\$5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R&amp;D·기술 투자 확대</li> <li>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공장 건설</li> </ul>
2	AstraZeneca	\$5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의약품 제조시설 및 연구 개발 확대</li> <li>버지니아·메릴랜드 등 신규 및 생산 거점 확대</li> </ul>
3	Genentech(Roche)	\$5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 및 진단·R&amp;D 확충</li> <li>인디애나·펜실베이니아 등 제조거점 확충</li> </ul>
4	GSK	\$3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R&amp;D 및 공급망 인프라 확충</li> <li>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li> </ul>
5	Eli Lilly	\$2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뇨·비만 치료제 생산능력 확충</li> <li>버지니아 신공장 등 총 4곳 신규 설비 착공</li> </ul>
6	Novartis	\$2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연구 개발 확충 및 고용 확대</li> <li>신규 제조시설 6개 및 연구 거점 확충</li> </ul>
7	Sanofi	\$2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연구 인프라 확충</li> <li>미국 내 파트너십 통한 생산능력 강화</li> </ul>
8	Gilead Sciences	\$1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캘리포니아에 제약 개발·제조 허브 신설</li> <li>美 내 2개 신규 부지 개발 추진</li> </ul>
9	AbbVie	\$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역·종양 치료제 생산 확대</li> <li>미국 내 11개 제조시설 확충</li> </ul>
10	Merck & Co	\$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부지 및 R&amp;D 확장</li> <li>델라웨어 신공장·노스캐롤라이나 확충</li> </ul>
11	Celltrion	\$7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cGMP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li> <li>추가 증설 최소 \$7B, 캐나다 포함, 즉시 매출 확보 및 공급망 통합</li> </ul>

자료: IBIS World, 각사 홈페이지, 언론보도('25년 8월)

##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글로벌 제약사 협업 기회
  - 대규모 임상·허가·판매에 강점을 가진 빅파마와 협력 → 초기 혁신 기술 확보 가능
  - Eli Lilly 휴스턴 공장, 셀트리온 북미 생산시설 등에서 기술·생산 협업 기회
- 국제 규제 환경 대응
  - 미·중 갈등, 생명공학 장비·서비스 수출 통제법, 생물보안법 등 규제 리스크 분산 필요
  - 한국 기업은 규제 리스크 낮고, 플랫폼 기술·제형 혁신·차세대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 아. 소비자

### □ 현지 산업 규모

- 미국 전체 화장품 제조 산업의 매출 규모 약 4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성장 감소했으나 '25년에는 452억 6,000만 달러로 2.4% 성장 예측
- 미국의 '24년도 전체 화장품 수입 규모는 약 54억 1,37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8% 수입 증가
- 미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24년도 기준 약 13억 8,557만 달러로 전년 대비 69.7% 증가, 한국산 제품이 수입 1위 기록. 미국의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비중은 25.6% 차지

### 최근 3년간 미국의 화장품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백만, %)

순위	국가명	수입 규모			점유율			증감률 ('24/'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대한민국	587,980	816,297	1,385,577	13.64	17.62	25.59	69.74
2	프랑스	830,445	903,353	976,955	19.26	19.50	18.05	8.15
3	캐나다	696,810	812,633	822,370	16.16	17.54	15.19	1.20
4	이탈리아	320,104	343,768	363,066	7.42	7.42	6.71	5.61
5	중국	243,978	301,695	314,953	5.66	6.51	5.82	4.39
6	영국	237,153	244,067	241,548	5.50	5.27	4.46	-1.03
7	멕시코	158,084	183,878	186,093	3.67	3.97	3.44	1.20
8	스웨덴	235,659	149,154	146,362	5.47	3.22	2.70	-1.87
9	일본	163,616	121,639	139,137	3.80	2.63	2.57	14.39
10	독일	93,309	80,805	111,314	2.16	1.74	2.06	37.76
	세계	4,311,253	4,631,869	5,413,765	100.00	100.00	100.00	16.88

주: HS Code 330499

자료: Global Trade Atlas('25년 6월)

##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로레알, 유니레버, P&G, 에스티로더 등 세계적 기업들이 대규모 R&D 투자, 글로벌 유통망,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로 미국 시장 주도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로레알 (L'or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YX, 랑콤(Lancôme), 메이블린(Maybelline)으로 미국에서도 현지 생산을 통해 제품 공급</li> <li>• '25년 CES에서 Cell BioPrint를 공개, 고도화된 생체 분석(proteomics) 및 AI 기술을 활용하는 관리 기기로 개인의 피부 나이를 진단하고 피부 고민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맞춤형 기기로 주목을 받음. 주요 기업들은 AI 및 생체 분석 기반의 맞춤형 스킨케어, 친환경·지속가능성 소재, 고기능성 프리미엄 라인 등 차별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트렌드 선도</li> </ul>
에스티로더 (Estee Lau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미엄 제품 라인 중심으로 세포라(Sephora) 등의 뷰티 전문점과 백화점 중심으로 제품 판매</li> </ul>

자료: 각사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25년 10월)

- ‘가성비’ 높은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제품에 주목
  - COSRX·조선미녀·달바(D'alba)·라운드랩(Round Lab)·티르티르(TirTir) 등 인디 브랜드가 성분·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 MZ 세대 중심 인기
  - SNS 인플루언서·한류 콘텐츠가 수요 확대 핵심 동력. 단, MoCRA 규제 준수와 변동적 무역환경 대응 필요

##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한국콜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한국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시설 증설 및 현지 자회사 투자 활발
  - 특히 한국콜마는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기존 공장에 텍사스 생산 공장을 확장, '25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 및 생산 시작. 현지 브랜드들과 신규 ODM 계약을 확장하며 원료 개발부터 마케팅, 유통 채널까지 지원하는 종합 뷰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진행
  - 현지 생산 능력 증대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함과 동시에 비건·클린 트렌드 등 현지 트렌드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져 경쟁력에서도 우위 가능
  - 한류와 한국 상품에 대한 미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관심 및 인식 증가 추세로 환류 콘텐츠와 K-뷰티 상품의 협업 수요가 활발, SNS 인플루언서 및 팝업 스토어, 디자인 콜라보 등 다양한 기회 부각

## □ 기타

- K-뷰티 유통망의 미국 진출 가속, 소액면세 제도 폐지가 변수
  - CJ올리브영, '25년 LA 법인 설립·'26년 오프라인 매장 추진
  - '25년 2분기 역직구 뷰티 판매 +7.5%(7,388억 원), 미국 비중 18.7%
  - 관세 부과로 가격 상승 예상 → 온라인몰은 관세 공지·할인 프로모션 대응

### 소액관세면제에 따른 관세 등 수수료 부과 예시

구분	가격	구분
수입가격	\$150.00	CIF가격
수입관세(Duty)(15%)	\$22.50	15% 예시
상품취급수수료(MPF)	\$27.23	Merchandise Processing Fee (min \$27.23, 0.3464%)
비공식 엔트리 비용 (Informal Entry Fee)	\$2.63	CBP 고정비용
항구관리비용(MPF)	\$0.00	항구관리비용(항공운송의 경우 → \$0)
추가비용합계	\$52.36	0
<b>총 비용(상품가격+비용)</b>	<b>\$202.36</b>	0

주: 상호관세 전제, 항공운송, 별도 품목관세 등 없음. 항공운임과 보험 등 제외  
자료: 해운사, 물류사, CBP 등 KOTRA 종합('25년 9월)

- 소액면세 폐지 이후 물류·유통 전략 전환 필요
  - 미국 내 물류 거점 확보 중요 : 자체 센터 또는 3PL(Third Party Logistics) 풀필먼트(fulfillment) 활용

### 3. 협력 기회

#### 가. 통상·G2G

##### □ (무역합의)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무역 합의

- 한국은 '25년 7월 30일 미국과 기존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했으며,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기로 합의
- APEC 연계 미 대통령 방한 오찬 정상회담 개최(10월 29일) 및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 성명 발표(11월 14일)
  - ① 핵심산업 재건 및 확장, ② 외환시장 안정, ③ 상업적 유대 강화, ④ 상호무역 촉진, ⑤ 경제 번영 수호, ⑥ 한미동맹 현대화, ⑦ 한반도 및 지역사안에 대한 공조, ⑧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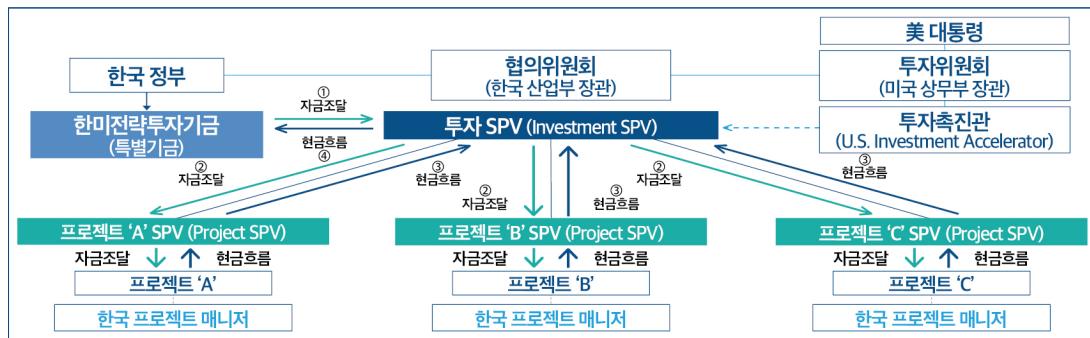
##### 관세 분야 요약

구분	합의내용
상호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유지('25년 8월 7일부터 적용 중)</li> <li>• 자동차 부품 : 25%에서 15%로 인하(일본, EU와 동일한 수준)</li> <li>• 원목 및 목재 파생상품 : 15%</li> </ul>
품목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 15%</li> <li>• 반도체 : 한국보다 교역량 높은 국가와의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음</li> <li>•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 추가 관세 비부과</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미부과</li> <li>•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 되도록 함</li> </ul>

자료: 백악관('25년 11월)

- (투자) 총 3,500억 달러로 2,000억 달러는 양국 산업부 장관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및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 \*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 미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고, 분쟁 발생 시 협의위원회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함

### 〈2,000억 달러 투자의 자금조달 및 현금흐름 구조도〉



자료: 산업통상부('25년 11월)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설정, 외환시장 충격 방지
- 한국 기업 총 1,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를 재확인하고,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로 미국산 상품 수출과 연례 전시회를 지원
-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포함 분야에서 협력
- (비관세 장벽) 한국 시장 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 한국 시장 비관세 장벽

구분	합의내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 자동차 수입상한 폐지</li> <li>• 기존에 한미FTA 따라 브랜드별로 연 5만 대까지 동등성 기준 적용</li> </ul>
식품,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li> <li>•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 전담 U.S. Desk 설치</li> <li>•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육류,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 유지</li> </ul>
디지털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포함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비차별 보장</li> <li>• 정보의 국경 간 이전(위치, 재보험, 개인정보 등) 원활 약속</li> <li>• 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나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관련 절차에서 추가적 절차적 공정성 규정 마련</li> <li>•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li> <li>• 노동권 보호 보장, 전 세계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 협력</li> <li>• WTO 수산보조금 협정 충실 이행을 위해 국내 환경법 효과적 집행</li> </ul>

자료: 백악관('25년 11월)

### □ (무역협정) 한-캐 FTA를 통한 교역 확대, 공업품과 원자재 중심 상호 보완

- (캐나다) 한-캐 FTA 이후 교역액은 2배 증가해 '24년 172억 달러이며, 한국은 캐나다의 7번째, 캐나다는 한국의 14번째 교역국



### 성공 사례(韓 중간재 생산기업 캐나다 시장 판로 확대)

- 개요 : 국내 한 중간재 생산기업이 콜라겐 펩타이드 원료를 생산하며, 美 관세 불확실성 속 ‘대체 소싱’ 수요를 활용하여 캐나다 시장 내 판로를 확대
- 내용
  - 加 현지 콜라겐 완제품 생산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바이어의 對美 수입 축소에 따른 추가 수출 물량 확보
  - 캐-미 관세 갈등에 따른 소싱 다양화 수요 확대, 한-캐 FTA 무관세 혜택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가 성공의 핵심
- 시사점
  - 한-캐 FTA를 활용한 원료·중간재 분야 ‘美 대체 소싱’ 판로개척 성공 사례
  - 캐나다 내 건강기능식품·콜라겐 수요 성장에 따른 한국산 원료의 시장 확대 기반 마련

자료: KOTRA('25년 11월)

##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한미 간 무역 및 조선업 투자, 첨단산업 협력 등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협력
  -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한-미 정상회담(8월 25일) 계기,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
  - (방산)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미국산 군사 장비 주요 구매자로서, 미국이 B-2 폭격기 등 고도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각
  - (에너지 및 첨단산업) 한-일과의 에너지 협력을 주요 사안으로 제시, 미국 최대 석유 가스·석탄 자원과 함께 알래스카를 활용한 한·미·일 3국 에너지 협력 강조
    - \*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 내 첨단 제조 강화와 공급망 다양화 노력
- 조선, 원자력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펀드 조성,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6건 체결
  -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항공, LNG 분야 계약 및 MOU 4건, 우리 기업의 핵심 희소금속 대미 수출을 위한 공급망 분야 MOU 체결 등

### MOU·계약 체결 내용(총 11건)

분야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체결 내용	비고
	HD현대, KDB	Cerberus Capital	• 수십억 달러 규모 공동 투자펀드 조성	MOU
	삼성중공업	Vigor Marine	• 미 해군 지원함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	계약
	대한항공	Boeing	• 보잉 항공기 103개 신규 도입(\$362억) • 3월 구매분(50개)에 추가, 역대급 규모	계약
		GE Aerospace	•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137억)	계약

분야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체결 내용	비고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X-energy, AWS	• SMR 설계, 건설, 운영 관련 협력	MOU
	두산에너빌리티	Fermi America	• 텍사스 AI캠퍼스 대형 원전 등 협력	MOU
	한국수력원자력, 삼성물산	Fermi America	• 텍사스 AI캠퍼스 원전·화력·태양광 통합 운영 협력	MOU
	한국수력원자력	Centrus	• 우라늄 농축 공장 설비 구축 지분 투자	MOU
	한국가스공사	Trafigura, Cheniere Total Energies	• '2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연 330만 톤 신규 도입	계약 계약
	고려아연	Lockheed Martin	• 우라늄 농축 공장 설비 구축 지분 투자	MOU

자료: 백악관, 대통령실('25년 11월)

#### □ (미국) 상호 조달 협정(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 한국은 현재까지 미국의 국방 조달 상호개방 협정(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에 공식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이미 28개국과 RDP 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한-미 양국 협의 중
- RDP 협정 체결은 한국 방산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따른 조달 제한을 완화 가능

#### □ (캐나다) G2G 전략적 파트너십

- 미국 의존 탈피를 위해 G2G 전략을 추진하며, '25년 EU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스웨덴·핀란드와 북극 쇄빙선 공동 건조 협정을 맺음
- 한국은 첨단 제조 경쟁력과 캐나다 자원·에너지 강점을 결합해 핵심광물·배터리·전기차 공급망, 조선·해양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협력이 유망하며, 캐나다의 방위비 증액에 따라 방산 협력도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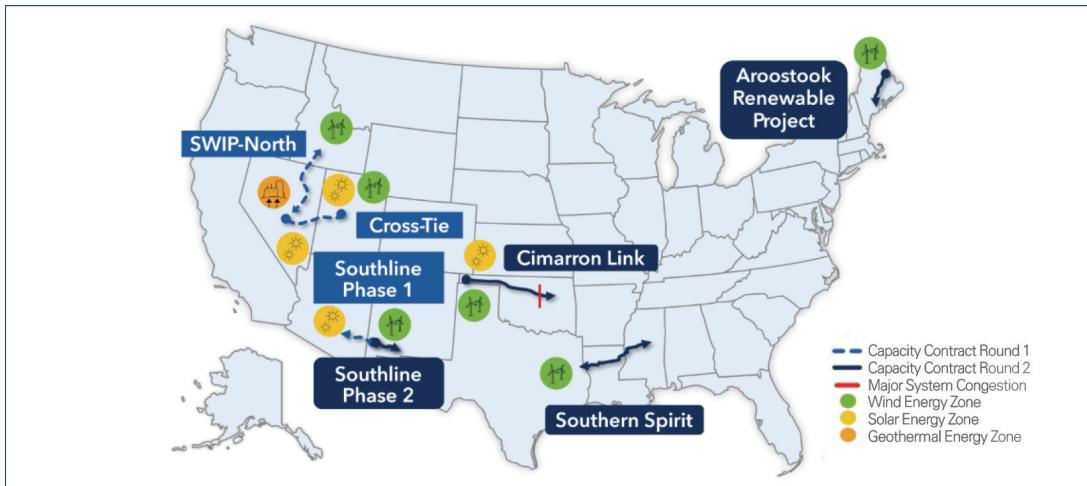
## 나. 프로젝트

#### □ (유망 프로젝트) 전력망, Southern Spirit Transmission(텍사스)

- 텍사스의 고립 전력망 ERCOT을 미국 남동부 전력망과 연결하는 프로젝트가 Pattern Energy 주관으로 추진. 525kV HVDC 전송선 320마일, 3GW 양방향 전력 전송 용량을 갖추며, '26년 착공해 '29년 완공 예정

- 미국 에너지부(DOE)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1차 사업에 선정돼 3.6억 달러 인프라 보조금을 확보
- 연방정부 프로젝트로 BABA(Buy America, Build America)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어서, 한국 기업은 단독 진출이 제한되며 현지 기업과의 합작·파트너십 참여가 요구. 따라서 우리 전력 공기업과 미국 주요 EPC사 및 기자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G2B 협력 필요

#### 〈美 에너지부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1차 승인 프로젝트〉



자료: 미국 에너지부(DOE), Transmission Facilitation Program Selections 1st Round('24년 10월)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성공 사례 : 한국전력공사(KEPCO) – Burns & McDonnell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 협력

- (개요)
  - 한국전력공사(KEPCO)는 미국 대형 엔지니어링·건설사 Burns & McDonnell과 미국 내 765kV 초고압 송전망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 (내용)
  - KEPCO에서 제주 연계선, 국내 대형 송전망 건설 등 HVDC 및 초고압 송전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
  - Burns & McDonnell은 미국 내 송전·변전소 EPC 역량, 규제·허가 절차 관련 대응 역량 보유
  - 두 기업의 기술 및 경험을 결합하여 미국 차세대 송전 인프라 사업에 공동 대응 목적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대표적인 우리 전력 공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력하여 미국 초고압 송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KEPCO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자재 공급 및 EPC 참여 가능성 제고
  - 본 성공 사례를 모델 삼아 Southern Spirit Transmission 프로젝트 주관사인 Pattern Energy와도 협력관계 구축 필요

## □ (유망 프로젝트) 데이터센터 건설(애틀랜타)

-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 '24년 북미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는 총 6,350.1MW로 전년 대비 두 배 확대
- 애틀랜타는 저렴한 전력, 안정적 공급, 풍부한 부지로 IT 기업 유치가 증가. 이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애틀랜타 지역 내 데이터센터에 투자 확대



###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의 최근 데이터센터 투자 동향

- AWS(Amazon Web Services, 아마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
  - \* AI 인프라 개발을 위해 조지아에 110억 달러 투자 계획
- Microsoft
  - \* 조지아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AI 및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데이터 건설에 '25년 회계 연도에 800억 달러 투자
- Lincoln Property
  - \* 조지아주에 소재한 DXC 데이터센터를 인수하여 30MW 규모의 콜로케이션(Colocation)시설로 재개발

자료: KOTRA('25년 10월)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데이터센터 건설 분야별 한국 기업 기회

분야	내용
전력/UPS/발전기/배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압 변전·배전 설비 경험 풍부. 글로벌 전력사와 JV/파트너십 구축 시 경쟁력 ↑</li> </ul>
냉각 시스템/공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효율·친환경 냉각 솔루션 제공 가능</li> </ul>
전기·통신 인프라 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사·SI기업과 건설사 협업해 통합 설비 시공 가능</li> </ul>
무정전 시스템/이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건설·반도체 공장 시공에서 축적된 무정전·클린룸 이중화 설계 노하우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 가능</li> </ul>
정밀 콘크리트/내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고층빌딩·플랜트 시공 경험(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내진 기준 엄격한 일본·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li> </ul>
BIM/설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BIM, Digital Twin, Smart Construction 적극 도입 중. 발주처 요구 수준 부합</li> </ul>
감리/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CM기업·건설사 해외 진출 경험 풍부. 미국·중동 발주처는 “Owner's Rep”</li> <li>• 역량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 선호 → 한국 CM사가 파트너십으로 참여 기회</li> </ul>

자료: KOTRA('25년 10월)

## □ (유망 프로젝트) Fermi America 'HyperGrid' AI-에너지 캠퍼스(텍사스)

- 텍사스 아마릴로 지역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민간 전력·데이터센터 단지는 총 5,769에이커 규모로, 최대 11GW 전력 설비를 갖추고 원자력·가스·태양광·배터리 저장장치를 결합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167만m<sup>2</sup>)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계획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AP1000 원자로 4기(총 4.4GW)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며, '26년 착공, '31년 가동을 목표
- 트럼프 대통령은 '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기존 100GW에서 400GW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텍사스 주정부는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텍사스 첨단 원자력 개발 기금'을 조성
- 추진 현황
  - 원자로 설계·시공 분야에서는 현대 E&C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고 있고, 기술 라이선싱은 웨스팅 하우스가 맡아 협력 중

##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성공 사례

- (개요)
  - '25년 7월, 현대E&C는 Fermi America와 HyperGrid 원전 부문 기획 및 EPC 검토 협력 MOU 체결
  - '25년 8월, 두산에너빌리티는 Fermi America와 대형 원전 및 SMR 기자재 협력 MOU 체결
- (내용)
  - HyperGrid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11GW급 전력·AI 데이터센터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민간 주도 사업으로, 원전 건설·송배전·데이터센터 인프라가 통합된 구조
  - 한국 기업은 원전 핵심 장비와 전력 인프라 기술을 바탕으로 초기 설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HyperGrid는 에너지-데이터 인프라 동시 구축 모델로, 이번 사례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데이터 인프라 프로젝트에 전략적 파트너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
  - 원전 관련 규제 대응(NRC 인증 등)과 현지 인센티브(JETI 세제 혜택, DOE 보증 프로그램 등) 활용 필요
  - 대형 원전 EPC의 비용·시간상 리스크를 고려할 때 EPC 단독 수주보다는 기자재·전력 인프라·데이터 센터 솔루션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분할 참여하는 방식이 현실적

자료: KOTRA('25년 11월)

## □ 캐나다, “탈미 경제자립은 선택 아닌 생존” 국가재건 프로젝트 추진 속도

- 카니 총리, 신정부 출범 직후 ‘국가재건 프로젝트’ 추진 속도, ’25년 하반기 범국가 대형 프로젝트 선정 결과 발표
  - 연방-주정부, 6월 고위급 회의 개최 후 4일 만에 ‘캐나다 경제통합·자립 법안(Bill C-5)’ 발의 → 6월 20일 하원 심의 통과 → 7월 1일 발효 완
  - 8월 말, 사업 수행을 전담할 연방 프로젝트 사무소(Major Project Office) 개설(8월 29일), 9월부터 ‘국가재건사업 리스트’ 선정 결과 순차 발표 개시

### ※ 연방정부, 국가재건(Building Canada) 프로젝트 1차 명단 발표(9월 11일)

- ① **에너지** LNG Canada 2단계 확장(LNG 처리시설 2기 추가, ’30년대 초 완공 목표)
- ② **에너지** Darlington 신형 원전 프로젝트(북미 최초 SMR 원전 건설, ’30년 완공 목표)
- ③ **광물** McIlvenna Bay Foran 구리광산 개발(캐나다 최초 Net Zero 구리광산, ’26년 생산 개시 목표)
- ④ **광물** Red Chris 광산 확장(기존 광산 수명 10년 연장, ’25년 말 사업 승인 추진)
- ⑤ **물류** Contrecoeur 항 확장(컨테이너 처리 능력 40% 확대, ’30년 완공 목표)

- (유망 프로젝트) 국가 미래 책임질 에너지·인프라·공급망 중심 전략 프로젝트 추진
  - ①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안보·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회랑형 기반 시설, 탄소중립형 원유·가스, 핵심광물 수출 인프라를 전략 분야로 설정
    - 카니 총리, 美 지향 수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역설하고 亞·유럽 시장과 연계할 수출 회랑 구축 지원 계획 시사
    -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송유관, 원자력 등 청정·전통 에너지 모두가 포함된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
  - ② (서부 & 북부 개발) 서부·북부 회랑(Western and Arctic Corridor)을 에너지 및 광물 수출을 위한 전략적 통로로 제안
    - 앨버타는 탄소포집활용저장시설(CCUS), SMR 등 탈탄소 기술 기반의 탈탄소 형 원유생산 모델을 접목한 BC주 북서부 해안 연결 송유관 구상을 발표하며 연 CAD 200억 수익 창출 청사진 제시
    - 북극권은 주권수호, 에너지 독립, 지역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프라 개발을 통해 新교역로 & 국가안보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

### ※ 참고 : 캐나다 재건법(Building Canada Act, '25년)

- 개요
  -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국익 프로젝트(national interest projects)'에 대해 규제 승인 과정을 앞당겨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는 법률 제정('25년 7월)
- 주요 내용
  - (투자 규모와 재정 전략)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건 기반의 인프라 및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약 CAD 150억을 배정하고, 민간 투자를 포함한 총 CAD 5,000억 규모 투자 유치 계획
  - (중점 투자 분야) 에너지, 인프라, 광물, 교통, 전력망 등을 포함한 대형 사업
    - 국가 이익 프로젝트 : 에너지 회랑, 전력망 통합, 항만·철도 확충, LNG·SMR 등 전략 분야 포함
- 주요 제안사업 현황
  - 동서 전력망(East-West Electricity Transmission Grid) : 캐나다 전역을 연결하는 국가 규모의 전력 송전망 구축 프로젝트
  - 링 오브 파이어(Ring of Fire) : 온타리오 북부 핵심광물(니켈, 크롬 등)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밴쿠버 항만 확장 :對아시아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서부 관문 항만 확장 사업
  - 에너지 파이프라인 : 원유·가스를 국내 및 해외 시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신규·확장 건설
  - 처칠항 개발(Port of Churchill) : 매니토바 북부의 전략적 수출항 개발 사업. 북극항로 및 농산물·자원 수출과 연결
  - BC주-앨버타 송유관 : 앨버타산 원유를 BC 북부 해안까지 운송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
- 대형 프로젝트 전담국(Major Project Office, MPO) 개설(8월 29일)
  - 초대 대표: 돈 패럴(Mrs. Dawn Farrell, 前 트랜스마운틴 공사 사장)
  - 위치 : 본부(캘거리/앨버타주) + 분원(주요 주/준주)
  - 역할 : 국가재건 인프라사업 심사·관리 업무 종괄 컨트롤타워
  - 전략 : 캐나다 오일·가스 산업 거점인 앨버타에 MPO 본부 개설 → 에너지·자원개발 중심 국가 인프라 전략 추진 가속

### 다. 공급망(자원개발)

#### □ 미국은 핵심광물·전략 소재의 자국 생산과 동맹국 조달을 확대해 공급망 내재화, 캐나다는 핵심광물 전략 기반 광물 탐사와 정제·투자를 강화 한국 등과 협력

- (미국)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전략 소재의 국내 생산 확대 및 동맹국 조달을 강화 ▲ 대중 의존도 축소 ▲ 역내·동맹국 기반 생산 확대 ▲ 전략물자 비축을 목표로, 국방생산법(DP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활용
  - 반도체·배터리·AI, 에너지, 철강·알루미늄, 희토류·리튬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세액공제, 수출통제, 관세체계 등을 정책 도구로 운용 중
- (캐나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 및 자원을 다수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핵심광물 전략 (Critical Minerals Strategy, '22)'을 기반으로 '30년까지 30개 이상 프로젝트에 수십억 CAD를 투자 중'

- 온타리오·魁벡 지역을 중심으로 광물 탐사를 가속화하며, 원주민 협력 및 환경 기준 충족을 병행
- 또한 산화 게르마늄(GeO<sub>2</sub>) 생산·정제를 강화하고 미국·독일과 협력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수요도 확대 중

## □ 유망 산업별 공급망 내재화 정책 기조 및 추진 동향

- (반도체) 중국 의존 구조 제한, 국내 제조·패키징 생태계 자립화
- (바이오·의약품) 제네릭·원료의약품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의존도 축소
- (핵심광물) 리튬·흑연·희토류 등 채굴·정련·재활용 전 과정 내재화

### 미국 주요 공급망 프로젝트 현황('25년 8월 기준)

분야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반도체	Intel Ohio One (오하이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법(CHIPS Act) 기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li> <li>• 미국 내 제조·패키징·부품 공급망 자립화 촉진</li> </ul>
배터리	BlueOval SK Battery Park (肯터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개 셀 공장 가동 개시, 총 80GWh+ 규모 확장</li> <li>• 북미 역내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통합 체계 구축</li> </ul>
태양광	First Solar Ohio Expansion (오하이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모듈 美 생산라인 증설(연산 14GW 목표)</li> <li>• 중국산 셀 웨이퍼 의존도 완화 및 국산화 기반 확보</li> </ul>
원전	Centrus HALEU Demonstration Project (오하이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농축 저준위 우라늄(HALEU) 시범 생산 추진</li> <li>• 차세대 원자로(AMR/SMR) 핵연료 국내 조달 기반 구축</li> </ul>
핵심광물	MP Materials-DoD Rare Earth Supply Chain Project (네바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토류 채굴·정제·자석 생산 등 전주기 내재화</li> <li>• 국방생산법(DPA) 기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li> </ul>
바이오·의약품	Civica Rx 제네릭 허브 구축 (버지니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네릭·인슐린 등 대량생산 허브 구축·가동 확대</li> <li>•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제고 및 해외 의존도 완화</li> </ul>

자료: 미 상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및 현지 언론 종합('25년 10월)

###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110 |
| 2. 진출전략         | 112 |

# III 진출전략



## 1. PEST/SWOT 분석

### PEST 분석



#### 정치정책(Political)

- 트럼프 2기, 보호무역·리쇼어링·Buy America 강화
- 중간선거('26년) 등 정치 이벤트에 따라 통상·환경·이민 정책 방향성 변동
- 경제 안보 기조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강화
- IRA(전기차·재생에너지 세액공제), CHIPS Act(반도체 투자 보조금) 등 산업 지원 정책 변동성 증대에 따른 의회, 행정부 대상 로비 증가
- USMCA 2026 개정 시기 도래 및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로 역내화 압박 강화



#### 경제(Economic)

- 상호관세, 품목관세 등 전 세계 대상 관세 부과
- 미국은 더딘 물가하락, 팬데믹 이후 과열된 노동시장이 완만히 둔화
- 미국은 소비 호조로 단기 회복 가능하나 투자·수출 부진 제한
- '26년 북미 시장은 AI 투자·정부 지출로 해당 분야 성장세
- 관세와 긴축 통화로 원가 부담·소비 위축, 물가 상승 리스크 존재
- 미국 2차례 금리인하, 캐나다 4차례 금리인하 단행
- 미국 정부 재정적자 확대, 정부 지출 조정 압력 상승



####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헬스케어 지출 증가
- ESG·윤리 요구 강화, 가격 민감 소비자 확대, K-컬쳐로 프리미엄 시장 창출
- 소비 트렌드 변화 : 가성비(저가형)와 프리미엄 양극화
- 온라인·구독 서비스 소비 확대
- 친환경·ESG 중시 : RE100, 탄소중립, 윤리적 소비 등 ESG 기반 구매 기준 강화
- 다문화 사회 : 히스패닉·아시아계 인구 증가 → 새로운 소비시장 형성
- 고령화 & 건강 관심: 고령층 소비 증가, 헬스케어·바이오 수요 확대
- 사회적 갈등 : 정치적 양극화, 인종·이민 갈등



#### 기술(Technological)

- 미국, AI·반도체·첨단 제조 투자와 수출 통제로 산업 경쟁력 강화
- R&D 지원과 규제 완화, AI·전력망 인프라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 캐나다, 전략산업 보조금과 ESG·공급망 규제로 기술 산업 안정화
- 청정에너지·원자력·SMR 등 에너지-기술 연계 전략 추진
- 첨단기술 투자 :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등 세계 선도

##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이차전지·조선·원전 조격차 기술력</li> <li>• 품질·납기 신뢰로 북미 공급망 연계 가능</li> <li>• 한·미 협상에 따른 투자·협력 유망 분야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생산·조립 인프라 부족</li> <li>• 북미 내 유통망·브랜딩 역량 부족</li> <li>• 현지 인증·규제 대응 인력·경험 부족</li> </ul>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공급망 재편, 中 수입대체 수요 확대</li> <li>• 북미 공급망 다변화·인센티브 활용</li> <li>• EV·전력망·데이터센터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관세·캐나다 TRQ·비관세 장벽 강화</li> <li>• 대만·일본·EU 기업과 경쟁 심화</li> <li>• ESG·친환경·비자 이슈 등 다양한 리스크</li> </ul>

###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첨단 반도체·이차전지 기술과 산업 정책 연계
- K-컬쳐·프리미엄 이미지 활용 현지 브랜딩 강화
- 북미 공급망 재편·배터리·전력망 수요 발굴 및 현지 생산·조달 확대

###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첨단 기술 우위·고부가품목 중심 경쟁력 확보
- USMCA·FTA 기반 북미 전진기지 활용 및 통상 채널 유지
- 품질·납기 신뢰 기반 OEM·조달 프로젝트 공략

###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현지 인프라·규제 대응 역량 부족, 주정부 협력·인센티브 활용
- 마케팅 역량 부족, 브랜딩·B2C·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 중국 의존도 축소, 수입대체·진입장벽 완화

###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환율·관세 변동 대비 다중 소싱·가격 연동 계약
- ESG·규제·인허가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 해외 진출 공장 기반 구조 전환 및 자동화 설비 등 현지 진출 방식 고도화

동남아 이전 기반 중국  
대체·미국 확대

첨단기술·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확대

전력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

전략산업·관련  
기자재 진출 기회

바이오 협력·시장  
접근성 강화

정책 활용·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 디지털 혁신  
산업 협력

## 2. 진출전략

###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디지털 혁신 및  
첨단 기술 협력

전력 인프라 대응

동맹형 전략산업 협력

제약·바이오  
국가 안보화

브랜딩·K-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아시아 구매본부(APO), 중국 → 동남아로 이전·확대됨에 따라 중국 제품 수입 대체 수요 대응
- 동남아 진출, 현지 공장 생산 → 미국향 수출 확대

- 디지털 마케팅, AI·데이터센터·전력 효율 솔루션 등 첨단 기술 기반 산업 협력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 대응

- AI 수요로 인한 전력 부족으로, 전력망 기자재·솔루션 공급 확대
- 배터리 소재·리사이클링 기술 협력 및 경제안보 대응

- 제조업 부흥 정책,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체계 구축
- 기계·첨단 기자재 수요 대응

- 북미 정부 프로젝트 참여로 바이오의 약품·백신 협력 확대
- 인증·규제 대응과 현지 협력으로 시장 접근성 강화

- 한류 활용 K-푸드·K-뷰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 유통망 공동 진출로 인증·물류·브랜드 동시 해결

전략적 통합 및  
협력 강화

미국 중심의 통상변화 속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및  
산업 분야별 차별적인 진출방향 고려

## 전략 ①

## 글로벌공급망재편 대응, 아시아구매오피스(APO) 활용 글로벌 소싱 수요 발굴 및 한국 기업 해외 공장 수출 확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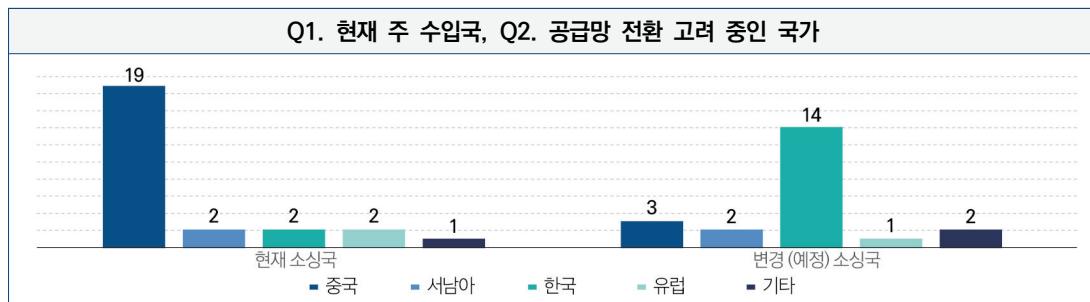
## 전략 수립 배경

- 북미 글로벌 유통기업 한국산 제품 관심 증가
-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생산 기업으로부터의 구매 수요 확대

## □ 현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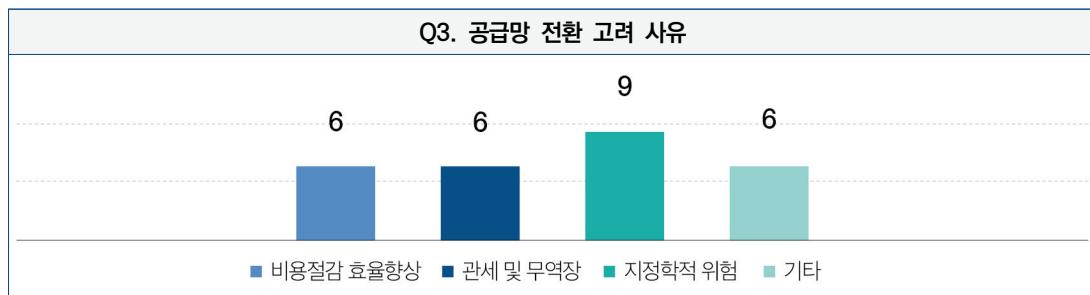
- (제조업) '25년 GP USA Chicago('25년 9월) 참여 미국 소재 글로벌 부품 소재, 이차전지, 자동차, 기계 분야 구매자들은 대부분 현재 중국에서 구매 중이나 추후 한국으로 공급선 전환 의사 표명
  - 주요 공급망 이동은 중국에서 일부 있었으며, 특히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음
  - 그 외 지역에서도 소규모 이동이 있었는데, 기존의 국가에서 멕시코로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가 2건 포함

〈GP USA in Chicago 2025 참가 바이어 설문조사('25년 9월 15일)〉



자료: KOTRA('25년 9월)

〈GP USA in Chicago 2025 참가 바이어 설문조사('25년 9월 15일)〉



자료: KOTRA('25년 9월)

- (유통업) 미 공구류 대형 유통망, 종합 소비재 대형 유통망 등은 중국 구매 물량 축소, 아시아 구매본부 베트남으로 이전 등을 통해 한국산 조달 확대 고려



### 글로벌 소비재 유통기업 소싱 담당임원 인터뷰('25년 10월)

#### ※ 한국으로부터 제품 조달 희망 사유

-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관세율이 타국가대비 유리. 화장품 외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관심
- 현재 잘 팔리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1개 공급업체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공급자 다각화
- 기존 중국 선전 중심 소싱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 등으로 공급업체 발굴 다각화
- 상품 등록 결정(Merchandising)은 홍콩에서 하는데, 소싱(Sourcing) 파트에서 이를 지원하여 공급업체 발굴
- 소싱팀은 K-Beauty 분야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Market Place팀은 전자제품 분야를 한국으로부터 발굴 희망

자료: KOTRA('25년 10월)

#### □ 유망 품목

- (부품 소재) GP Chicago 2025 행사 참여 기업 수요 제품
  -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 EV 소재부품 장비, 냉난방 시스템, 금형 및 사출, 배터리팩, 모터, 센서, 배선 장치, 서킷 브레이커, 변속기, 자동화 관련 기자재, 변압기 및 스위치, 이차전지 소재, 전략 기자재, 물류 자동화 부품 등
- (배터리팩용 금속 가공 부품) 공급망 탈중국화 준비 중이나, 품목 및 사양이 자사 제품에 특화되어 있고, 물량이 많지 않아 납품 가능한 비중국 제조업체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 (열교환기) 공급망 탈중국화 준비 중이나, 품목 및 사양이 자사 제품에 특화되어 있고, 물량이 크지 않아 납품 가능한 비중국 제조업체 발굴 희망
- (공구류) 지붕재, 제빙기(모터-컨덴서-컴프레셔-펌프) 등 주택산업 연관 품목

#### 탈중국 공급망 전환 수요

기업	수요
AA사/배터리팩용 금속 가공용품 (실리콘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 가공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NC 정밀 가공(CNC Machining)</li> <li>- 샌드 주조(Sand Casting)</li> <li>- 압출(Extrusion)</li> </ul> </li> <li>• 공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토타입 전문 금속 가공업체</li> <li>- 소량 생산 및 신속한 납기 대응이 가능해야 함</li> </ul> </li> </ul>

기업	수요
<b>B사/열교환기 (실리콘밸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면 : NDA 체결 후 엔지니어링 도면 공유 가능</li> <li>•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디자인을 변경 없이 제조해야 함</li> <li>- 공급업체는 경쟁력 있는 가격과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공해야 함</li> <li>- 재료 : 알루미늄 6,061만 가능(경량화가 중요하며 다른 재료는 고려 대상 아님)</li> </ul> </li> </ul>
<b>C사/메탈케이블 (시카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공급업체는 대량 수량 위주로 다루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맞출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밝힘</li> <li>•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매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PPM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li> <li>• 중국 업체는 보안 문제로 협력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관세 문제도 있어 한국 업체가 더 적합해 보인다고 언급</li> </ul>
<b>D사/공구류 (상하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유통망 아시아 구매본부</li> <li>• 지붕재, 제빙기(모터-컨덴서-컴프레셔-펌프) 등 주택산업 연관 품목 한국산 수요</li> </ul>
<b>E사/화장품 (워싱턴D.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유통망, 아시아 소싱본부 베트남으로 이전</li> <li>• 한국산 화장품 이니셔티브 추진</li> </ul>
<b>F사/의류 (워싱턴D.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의류 관세로 수입 곤란,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 대상 수입 관심</li> </ul>

자료: KOTRA('25년 10월)

## □ 진출전략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상담 기회 참여
  - GP USA in Chicago,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사업 등 미국 글로벌 공급망 수요 발굴 사업 참여
  - '26년 예정된 글로벌 유통사 방한 소싱 플라자 등 사업 기회 활용
- 아세안 진출 공장 생산, 미국 수출 혹은 상호관세율 고려 한국 공장에서 생산
  - 한국 상호관세율 15%와 아세안 주요국 19% 상호관세율 및 생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 APO 구매 수요 발굴 및 대응
  - 글로벌 유통사는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아시아 구매 오피스를 두고 신규 공급업체 발굴 및 추천하고 있으며, 미국 본사에서 최종 구매가 결정됨
  - 글로벌 소싱 헤드쿼터(미국) 및 아시아 소싱 다변화 기회(아세안, 중국) 수요 발굴 → 아세안 공장에서 수출 시 KOTRA 아세안 무역관이 수출선적 지원 → KOTRA 미국 무역관은 통관, 물류 인증 등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

### 미국 주요 유통망 및 소비재 브랜드 아시아 소싱 현황

유통망 및 브랜드	중국	기타	비고
Walmart	60%		'18년 80%에서 축소 중
Target	50%	인도 6%, 인도네시아 3%, 캄보디아 3%	
NIKE	18%	베트남 50%, 캄보디아 15%	의류 기준
LULULEMON ATHLETICA		베트남 42%, 인도네시아 10%, 캄보디아 16%	
ADIDAS	16%	베트남 27%, 인도네시아 19%	
PUMA	28%	베트남 26%, 캄보디아 16%, 방글라데시 11%	
ABERCROMBIE & FITCH		베트남 34%, 캄보디아 19%, 인도 12%	

자료: 로이터('25년 4월)

- 신규 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최소구매수량(MOQ) 보장 등 유통망과 협상 및 현지 3PL 물류체계 구축



#### 성공 사례로 보는 미국 진출 전략 : 중국산 부품 전환 수요

- 바이어가 활동 중인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시장은 오랫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및 대만산 제품이 주도해왔으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강화에 따라 N社 내부에서도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활발해짐. 이에 바이어는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부품으로의 전환 의지를 표명
- 변속기용 애프터마켓 부품(마찰판 및 강판) 품목 공급

## 전략 ② 디지털 혁신 및 첨단 기술 협력



### 전략 수립 배경

-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관련 시장·인프라 확대 기대
  - \* AI 산업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차세대 반도체, 엣지 컴퓨팅 등 관련 시장과 인프라 투자 확대
  - \* AI 확산으로 전력·냉각·보안 수요가 늘고, 데이터 주권·책임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
- 우리 기업의 진출 강점
  - \* 고효율 전력장비, 냉각·보안 솔루션과 ICT·AI 응용 기술을 활용해 현지 파트너와 패키지 솔루션을 공동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
  - \* 이를 기반으로 파트너십, 현지 인재·투자 유치, 빅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 현지 동향

- AI 산업 성장 및 시장 기대
  - 미국 AI 시장 '25년 약 740억 달러, 향후 5년 연평균 27% 이상 성장 전망
  - OpenAI, Databricks, Anthropic 등 AI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 투자, 산업 특화 AI 수요 확대
  - 금융·의료·제조업 등 전 산업군에서 AI 적용 확대
- AI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 빅테크(Google, Meta, Amazon, Microsoft)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공격적 투자, AI 학습·서비스용 고성능 GPU/TPU, 서버 수요 증가, Edge·양자컴퓨팅 투자 또한 확대
- 규제 강화 추세
  - 미국 캘리포니아 중심 AI 투명성·책임성 규제, 학습 데이터 저작권 강화, 딥페이크 규제 등
  - AI 생성 콘텐츠 관련 △ 식별 도구 공개 △ 명시적 표시 △ 원천 데이터 공개 의무 강화
  - 연방 통일 정책 부재로 주 단위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 외부와의 기술 협력(오픈 이노베이션) 수요 확대
  - AI, 반도체, 클라우드, 퀀텀, 로보틱스, 헬스테크 등 분야에서 기술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체 개발만으로는 경쟁 유지가 어려워, 외부에서 기술을 흡수하려는 수요 발견(오픈 이노베이션)
  - 내부 R&D 투자 부담을 줄이고, 유수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대학 연구 성과를 신속히 흡수를 통해 기업 R&D 비용 절감 등 모색
  - 신흥국 및 특화 분야 스타트업과의 협력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 중
- 디지털플랫폼 사용 증가
  - Sprout Social에 의하면 링크드인 사용인구 미국 내 약 2억 3,000만 명으로 B2B 마케터 중 링크드인 사용 비율 약 89%, 링크드인에서 관심 수요인 Lead를 발굴하는 경우 약 62%로 밝혀짐

- B2B 연락처를 제공하는 ZoomInfo의 경우 24,215개 라이브 웹사이트에서 ZoomInfo를 사용 중이며, Rocket Reach의 경우 RocketReach는 개인 이메일 주소, 직통 전화번호, 연락처 조회 등에 강점을 둔 연락처 검색 중심 툴

## B2B 연락처 제공 플랫폼

항목	ZoomInfo	RocketReach
강점	완전한 B2B 인텔리전스 플랫폼 (기업+연락처+인텔리전스)	연락처 중심 (직통 이메일/전화번호 조회)
데이터 범위	기업 정보+조직 구조 등 다양	연락처 중심, 일부 부가 기업 정보 포함
통합성	CRM/마케팅 자동화와의 통합 강점 있음	일부 통합 기능 있으나 전체 플랫폼 수준은 낮음

자료: KOTRA('25년 10월)

## □ 유망 품목

- AI 인프라 및 하드웨어(GPU, AI 칩, 서버)
  - AI 산업의 중점은 거대언어모델(LLM) 및 생성형 AI로 초고속 연산 성능이 필수적. 때문에 AI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GPU, AI 전용칩, 고성능 서버의 수요 확대로 귀결
    - \* 생성형 AI에 대한 미국의 민간 투자액은 288억 달러로 글로벌 투자액의 85%를 차지, 전년 대비 18.7% 성장하며 미국 내 AI 산업의 성장 견인
  - '25년 현재에도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확장·신축에 따른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되며 고대역폭 메모리, 고성능 GPU에 대한 지속적 공급 가능
  - 장기적으로는 AI 효율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반도체 및 컴퓨팅 기술에 대한 개발·협력 확대 예상
- 산업 맞춤형 AI 소프트웨어·플랫폼
  - 제조·물류·의료·금융 등 산업 특화 AI 서비스 수요 증가
  - 한국 기업은 원천 데이터 보유로 산업 맞춤형 AI 소프트웨어·플랫폼 제공에 강점
  - SaaS 기반 제공으로 넓은 사용자층 확보, B2B 협력 사례 구축 가능
    -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인터넷(클라우드)을 통해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서비스 모델
-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 AI 기술
  - 미국 AI 규제 강화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XAI, 윤리 검증 솔루션 수요 확대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 기반 기술 적용 가능하여, 규제 대응 솔루션 진출 용이
  - 빅테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 미국 AI 생태계에서 컴플라이언스 테크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블루오션
    - \* 컴플라이언스 테크 : 법제도 규제 적용에 따른 기업·사용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여주는 규제 대응 자동화 기술
  - 캐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C-27) 및 AI 규제법(AIDA) 시행으로 데이터 주권·보안 솔루션 수요 증가

- 글로벌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지속
  - 자율주행, 드론 등 AI 활용 기술 수요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예시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론 제어 부문 : 조종의 용이성, 비행 경로 설계 및 제어 기능(관련 SDK를 제공 가능한 경우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메라 성능 및 예외 상황 대응 능력(특히 직사광을 마주보는 복잡한 시각 환경에서의 대응력)</li> <li>- GPS 공간 해상도(예 : differential GPS 기술 활용 여부)</li> <li>- 가격 대비 성능 :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갖춘 제품 우대</li> </ul> </li> </ul>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li> <li>• 초소형 전기차 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도 제한이 있으며 고속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한국산 초소형 전기차(중국산 제외)</li> </ul> </li> <li>• 자동차 텔레매틱스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을 통한 차량 제어(문 열림·잠금, 시동), 위치 추적, 배터리 모니터링 등 차량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li> </ul> </li> </ul>

자료: KOTRA('25년 10월)

### □ 진출전략

- (오픈이노베이션 기술 협력) 글로벌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발굴 및 대응
- (현지 파트너십 구축) 통신사(Bell, Rogers, Telus) 및 클라우드 사업자(AWS, MS, Google)와 협력,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와 제휴
- (규제 대응 및 인증 확보) 데이터 보안·AI 책임 규제 대응 위해 CSA, ULC, ISO/IEC 27001 등 인증 조기 획득
- (인재 유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첨단산업 종사 고급인재 유치 기회로 K-Tech Pass 등 정책 활용 및 인재채용설명회 참여, 헤드헌팅 등 활용 확보
- (디지털 플랫폼 활용) 디지털 기술 활용 바이어 쉽게 찾기
  - Linkedin 활용 B2B 바이어 관심사 밸글(Lead)하는 디지털마케팅 수행
  - 광고 설정 → 타깃 설정 → 키워드 또는 직업군 또는 업무 → 수신자 관심반응(Lead) → Lead 회신자 대상 세부 수요 파악 및 마케팅 진행
  - Linkedin의 Inmail을 통한 유력 바이어 접촉 및 ZOOMINFO, RocketReach 등의 바이어 연락처 찾기 기능 활용

### 전략 ③

### 전력 인프라 분야 진출과 현지화·정부 지원 활용 전략



#### 전략 수립 배경

- 제조업 부흥 정책 및 AI 활용 증가에 따른 전기차의 고전압화(800V),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화, 200mm SiC 전환 등으로 전력 반도체 및 전력 기자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
  - 전력망 기자재(변압기·송전망·ESS) 수요가 확대되고, 조달시장에서는 친환경·ESG 요건 및 원산지(국산 요건, FEOC 회피) 강화

#### □ 현지 동향

- (전력 기자재) 그리드 확충·안정화 투자 및 운영 고도화 수요 확대
  - 변압기(LPT 포함)·배전반·전력케이블·계통 안정화 관련 기자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며, 납기 지연 등이 프로젝트 진행의 병목으로 남아 주요 기자재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조립 확대
  - AAR/DLR·전력조류제어 등 전력 운영의 안정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전력 제어 통합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및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PPA 주도 수요 지속 및 기자재 현지화 가속
  - 데이터센터·AI 부하가 태양광과 저장(ESS) 발주를 견인, 태양광 패널, BESS 관련 기자재 수요가 빠르게 확대
  - 국산 요건·FEOC 회피 등 정책 신호로 미국 내 조립/가공과 원산·비용 문서화 역량이 수주 필수 요건으로 부상

#### □ 유망 품목

- (전력망 기자재) 변압기, 개폐장치, 전력케이블, 배전반, 보호계전기 등
  - 북미 전역의 그리드 확충·현대화 및 기후 대응형 전력망 구축에 따른 구조적 수요에 부응
  - 한국산 제품은 고효율·고내구성·품질 신뢰도를 강점으로 조달시장 진출 유망

### 미국의 전력기자재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USD 백만, %)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배전반 (853710)	1	멕시코	4,221	43.3	케이블 (854460)	1	멕시코	171	18.5
	2	캐나다	937	9.6		2	한국	147	15.9
	3	중국	587	6.0		3	폴란드	125	13.5
	5	한국	338	3.5		4	중국	122	13.2
	총 수입액		9,745	100		총 수입액		927	100
변압기 (650Kva 이하) (850421)	1	한국	229	32.3	변압기 (1만Kva 초과) (850423)	1	멕시코	383	19.3
	2	멕시코	192	27.1		2	한국	343	17.3
	3	캐나다	79	11.2		3	브라질	277	14.0
	4	브라질	65	9.2		4	오스트리아	186	9.4
	총 수입액		707	100		총 수입액		1,982	100

자료: Census Bureau('25년 9월), '25년 상반기 수입액 기준

- (재생에너지) PPA 수요가 가장 큰 태양광·전력 저장 분야에서 태양광 패널, ESS 인버터, 배터리셀이 주요 품목으로 부상
  - 한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으나 송전 연계 개선과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풍력터빈(타워 포함)은 여전히 핵심 품목으로 자리하며, 교체·O&M 수요까지 감안하면 안정적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USD 백만, %)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품목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태양광 패널 (8541)	1	인도네시아	1,093	14.2	풍력터빈 타워 (730890)	1	멕시코	679	24.7
	2	라오스	1,042	13.5		2	캐나다	405	14.7
	3	말레이시아	949	12.3		3	중국	281	10.2
	8	한국	330	4.3		5	한국	146	5.3
	총 수입액		7,712	100		총 수입액		2,755	100
ESS 인버터 (850440)	1	중국	2,691	14.0	배터리셀 (850760)	1	중국	6,336	62.1
	2	태국	1,240	13.1		2	일본	1,169	11.5
	3	멕시코	1,163	11.1		3	한국	1,169	11.5
	14	한국	149	1.7		4	캐나다	231	2.3
	총 수입액		8,856	100		총 수입액		10,206	100

자료: Census Bureau('25년 9월), '25년 상반기 수입액 기준

## □ 진출전략

- 에너지·전력 산업 관련 기자재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각 산업별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입증된 주요 유망 품목의 전망은 긍정적
  - 다만, 미국 수입 관세, Buy America 정책 등으로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화 대응이 필수이며, 캐나다의 조달 현지화·원주민 참여 요건 등은 진출 시 핵심 변수
  - (전력 인프라)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를 변전소 단위로 묶어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시험한 뒤 납품하는 계획 및 전력망 운영 소프트웨어와 SI 역량을 결합한 통합 패키지로 제안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초기에 모듈·PCS/인버터·BESS·MV 스위치기어·케이블을 단일 설계·단일 인터페이스로 제시 및 각종 인증 및 A/S 대응 체계를 현지 조건에 맞춰 구축하여 파트너사의 요구사항 사전 충족 필요
  - 그리드의 설치–시운전–운영을 일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파트너십 제안,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정책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하는 바이어에 신뢰도 제고

**전략 ④****북미 조선·원전 산업 진출 및 전략적 협력 기회 강화****전략 수립 배경**

- 조선업 등 미국 전략산업 협력 요청에 따른 우리 기업 현지 조선소 투자 등 산업 협력 수요 증가
  - \* 미국 내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 SHIPS Act를 발의하며, 해양 패권을 가져오려는 노력
- 충분한 전력수요 확보를 위한 원전 정책 수행 등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 현지 동향**

- 조선 분야
  - 미국은 조선업 부흥 전략을 추진하며 상선 확대, 인프라 재건,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미 의회는 미국 조선산업 강화 법안을 통해 미국 상선의 규모를 크게 늘리고 조선 인프라를 재건할 계획
    - \*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 : SHIPS Act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 현재 93척 규모의 미국 상선을 '34년까지 250척으로 확대하고, '29년까지는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한시적으로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 미국의 대중(對中) 경제 기조와 조선업 협력국의 제조 역량을 고려할 때,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가장 현실적·타당한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으로 평가됨
  - 미국의 조선업은 강력한 보호법(존스법,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
    - \* 존스법(Jones Act)은 내항 상선의 경우 미국에서 건조된 것이 아니면 운항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고, 번스-톨레프슨 수정법(Byrnes-Tollefson Amendment)에서는 타국에서는 미 해군 군함의 건조와 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
    - \* 미국산 우선구매 정책(BuyAmerican Act)은 해군, 해안경비대, 상선 프로젝트 참여 시 핵심 기자재 75%를 미국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아주 배를 잘 만든다”고 언급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
    - \*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 '25년 8월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제안한 협력 구상으로,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내 조선소 건설·현대화,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하는 방안
- 한국 3대 조선사의 미국 진출 현황
  - '24년 12월 한화그룹은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의 조선소를 인수하며 시장 진출
  - 이후, 미국 해운 법인 한화수핑(Hanwha Shipping)을 설립해 수주를 추진하고, 필리십야드와 거제 한화오션 간 협력을 통해 선박을 제조할 계획

- HD현대는 '25년 미국 방산 조선사 헉팅턴 잉겔스, 에디슨 슈웨스트 오프쇼어와 파트너십(MOU)을 체결하고 미국 진출을 추진 중
  - \* HD현대는 양국 조선업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서울대 및 미국 미시간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진 40여 명이 참여한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25년 6월 한국에서 첫 포럼을 개최하였음('25년 6월)
- 삼성중공업은 선박 정비 및 현대화 전문 기업인 비거 마린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및 공급망 클러스터 조성에 참여할 예정
  - \*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전역에서 선박 건조·정비·현대화를 수행하며, 국방·상업용 선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종합 조선·해양 서비스 기업

### 한국 3대 조선사의 미국 투자 협력 현황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화오션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인력을 강화하고 현재 생산 용량을 10배 이상 늘리기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li> </ul>
HD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D 현대와 세르베루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 자율 운항, 디지털화, 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할 예정</li> </ul>
삼성중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중공업과 비거마린그룹은 해군 함정의 정비, 수리 및 점검(MRO), 조선소 자동화, 미국 국적 선박의 신규 건조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li> </ul>

자료: 백악관('25년 8월)

- 캐나다도 국가조선전략(National Shipbuilding Strategy)을 기반으로 해군함정·경비함 발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조선 기자재, 전기·통신 시스템, 정비(MRO) 분야에서 수요가 점차 증가
- 아울러, 최근 캐나다 초기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화오션-HD현대가 솟리스트에 선정되며, 내년 입찰 결과에 따른 사업 향방 주목 필요
- 원전 분야
  - 미국 DOE(에너지부)와 NRC(원자력규제위원회)의 SMR(Small Modular Reactor) 인허가 절차 개선·상용화 지원 가속하고 있으며, NuScale 이후 X-Energy, GE Hitachi 등 주요 기업들이 실증 프로젝트 추진 중
  - 원전 부품의 현지화 요구(Nuclear Grade 소재·배관·계측기기 등)가 증가하여 글로벌 공급망 확대 수요 증가
-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종의 SMR 등 선진원자로 노형을 개발 중이며, 이 중 상당수는 미국 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 \* Nuclear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 산하 원자력 에너지 기구, OECD 산하 기구)에서 발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현황 보고서

- 미정부는 3+세대 SMR 상업 배치를 위한 First Mover/Fast Follower 정책 운영, Price-Anderson 법 연장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추진
- 캐나다는 온타리오·사스캐처원 중심 SMR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며, OPG의 SMR 프로젝트가 북미 시범 모델로 부상

### 〈미국이 개발 중인 SMR 등 선진원자로〉

원자로 구분			개발사	모델명	출력	
SMR 등 선진 원자로	경 수 형	가입경수로 (PWR)	NuScale	NPM	MWe	MWth
			Westinghouse	AP300	330	990
			Holtec	SMR-300	300	1,050
		비등경수로 (BWR)	GE Hitachi	BWRX-300	300	870
	비 경 수 형	소듐냉각고속로 (SFR)	TerraPower	Natrium	345	840
		고온가스냉각로 (HTGR)	X-energy	Xe-100	80	200
		불화염냉각고온로 (FHR)	Kairos Power	KP-FHR	150 (75×2)	320
				Hermes 1 (시험로)	-	35
				Hermes 2	20 (10×2)	70 (35×2)
	초 소 형	히트파이프 냉각 (Heat Pipe)	Westinghouse	eVinci	5	15
		액체금속냉각고속로 (Liquid Metal Cooled)	Oklo	Aurora Powerhouse	15~50	50~150
		고온가스냉각로 (HTGR)	NANO	KRONOS MMR	3.5~15	10~45
			Radiant	Kaleidos	1.2	1.9
	실 증 로	美 국방부 & BWXT	Project Pele	1~5	정보 없음	
			TerraPower	MCRE	-	0.3
		용융염원자로 (MS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MSRR	-	1

자료: 각 개발사 공식 홈페이지('25년 11월)

## □ 유망 품목

- (조선)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및 수출 확대에 따른 LNG선·VLCC 수요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포, 석유·가스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 이를 통해 '30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고, 유럽·한국·일본 등 주요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
    - \* 미국은 세계적 천연가스 수요 급증과 걸프만 지역 3개 LNG 터미널 건설에 따른 공급 확대를 바탕으로, LNG 생산이 '25년 20%, '26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미국 에너지정보국, '25년 3월 단기 에너지 전망)
    - \* 한국은 '25년 8월 협의를 통해 '28년까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합의('25년 8월)

- 이와 같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 확대와 수출 증가로 한국·일본·유럽 등 주요 수입국을 향한 글로벌 LNG 및 원유 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LNG선과 VLCC 건조 역량이 높은 한국 조선소의 수혜가 클 것으로 전망
  - \* SHIPS Act에 따라 '29년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도 전략 상선단에 편입할 수 있어, 미국 선주들이 한국 조선소에 선박 발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미 해군 함정 증강에 따른 MRO 시장 확대와 한국 조선소 진출 기회
  - 미 해군은 현재 296척 규모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54년까지 이를 381척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평균 약 3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미 의회예산국, '25년 1월)
  - 함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보수(MRO)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함정 1척당 수리 및 무기체계 업그레이드에는 평균 6~12개월 소요
  - 그러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미국 내 조선소는 제한적이어서, 한국 등 우방국 조선소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
- 탄소중립 이행과 노후 원전 대체를 위해 SMR(Small Modular Reactor)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SMR 설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이에 따라 SMR 핵심 기자재(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시스템)의 조달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설계·제작 역량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또한 미국은 러시아산 핵연료(HALE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 연료 공급망을 미국·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연료 펠릿·집합체 가공 기자재, 핵연료 운반·저장 시스템 등 관련 품목의 시장 기회도 확대

## □ 진출전략

- (조선)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 조선소 인수 및 파트너십 전략
  - 우리 기업은 보유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시장 진입 모색 필요
  -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공정을 한국 조선소에서 수행하고, 최종 조립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분업형 생산 구조 활용 고려 가능
    - \* 한화는 미국 법인 한화쉬핑(Hanwha Shipping)을 통해 선박을 수주한 뒤, 미국 한화필리십야드에서 최종 조립을 수행하고, 일부 제작 공정은 한국 거제의 한화오션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 구조를 운영 중
  - 우리 조선소는 미국 주요 조선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자재 공급망에 참여하고, 핵심 부품·소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지 조선업과의 협력 기반 강화 가능
    - \* HD현대는 미국의 헌팅턴 잉글스(Huntington Ingalls Industries), 에디슨 슈웨스트 오프쇼어(Edison Chouest Offshore)와 MOU를 체결하고, 기술 공유를 통해 컨테이너선 및 LNG 운반선을 공동 건조하기로 협의

- 우리 기업은 미국 전략 상선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국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에 속한 글로벌 선사(Maersk, MSC, APL 등)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LNG선 및 VLCC 수주 기회 적극 포착 필요
- 한·미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증가하는 MR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태평양에서 다수 함정을 운용하는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정정비협약(MSRA) 등 수행 자격을 선제적으로 확보 방안 고려
  - \* 현재 미국 내 조선소의 MRO 비용은 높고 효율성도 낮아, 그동안 일본 조선소에서 일부 MRO가 수행되어 왔으나, 향후 미 해군 함정 수 증가에 따라 MRO 수요 크게 확대 전망
- 존스법 대응 : 한국이 미국에서 건조하는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나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는 방안도 검토 가능(방사청, '25년 9월 17일, CSIS 포럼)
- (원전) SMR 수요 등이 존재하나 한국 기자재 기업 단독 납품보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필요
  - 에너지 업계 보수성으로 기존 대형 원전의 경우 현지 공급망을 대체하는 것이 어려우며 가운데, SMR 개발사의 경우에도 부품 납품권을 투자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 소형업체 직납품 기회는 흔치 않음
  - 두산중공업 등 파운드리 기업에 납품하는 간접 수출이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관련 전시회 참가시 한수원이나 두산 등 대기업과 동반 진출 고려 필요
  - 아직은 많은 SMR 디자인이 기존 대형 원전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 기술적 호환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한국 기업에 유리할 전망
  - 하지만 미국에서는 납품을 위해 'N stamp' 등 ASME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취득과 유지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캐나다도 원전 운영사(OPG, Ontario Power Generation 등)와 조기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캐 원전 협력 대화 채널을 통한 인허가 가이드라인 확보 및 규제기관 네트워크 강화

## 전략 ⑤

## 제약·바이오 산업 현지 진출과 공급망 안보 대응



## 전략 수립 배경

- 제약·바이오를 안보 산업으로 규정, API 비축제도 신설 및 약가 인하 압박 등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현지 생산 투자 확대를 유도

## □ 현지 동향

-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리더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강화로 공급망 전환 가속화
  - ‘제약·바이오=안보’ 인식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 트럼프 행정부는 △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 최혜국(MFN) 수준의 약가 인하 △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건 자국 중심의 제조·공급망 재편 추진
    - \*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미국 내 처방 약 가격을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25년 7월)
    - \* 미국 내 필수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API) 전략 비축고(SAPIR)’를 신설하고 핵심 26종 내외 의약품을 지정, 해당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API 최소 6개월 치 비축·관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 ('25년 8월)

##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투자 발표 현황

(단위: 십억\$)

연번	기업명	투자금	투자 계획
1	Johnson & Johnson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R&amp;D·기술 투자 확대</li> <li>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공장 건설</li> </ul>
2	AstraZeneca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의약품 제조시설 및 연구 개발 확대</li> <li>버지니아·메릴랜드 등 신규 및 생산 거점 확대</li> </ul>
3	Genentech(Roche)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 및 진단·R&amp;D 확충</li> <li>인디애나·펜실베이니아 등 제조거점 확충</li> </ul>
4	GSK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R&amp;D 및 공급망 인프라 확충</li> <li>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li> </ul>
5	Eli Lilly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뇨·비만 치료제 생산능력 확충</li> <li>버지니아 신공장 등 총 4곳 신규 설비 착공</li> </ul>
6	Novartis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내 연구 개발 확충 및 고용 확대</li> <li>신규 제조사설 6개 및 연구 거점 확충</li> </ul>
7	Sanofi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연구 인프라 확충</li> <li>미국 내 파트너십 통한 생산능력 강화</li> </ul>

연번	기업명	투자금	투자 계획
8	Gilead Sciences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포니아에 제약 개발·제조 허브 신설</li> <li>• 美 내 2개 신규 부지 개발 추진</li> </ul>
9	AbbVie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역·종양 치료제 생산 확대</li> <li>• 미국 내 11개 제조시설 확충</li> </ul>
10	Merck & Co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부지 및 R&amp;D 확장</li> <li>• 델라웨어 신공장·노스캐롤라이나 확충</li> </ul>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뉴욕무역관 정리('25년 9월)

## □ 유망 품목

- 플랫폼 기술
  - 신약 개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후보 물질이나 기술 활용 범위가 넓어 다양한 신약 개발에 기술 적용이 가능
  - 기술 치료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확장성과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전 수요도 매우 광범위
  - 항체-약물 접합체(ADC), 방사성의약품과 같은 고부가 플랫폼은 중증 암과 같은 미충족 수요가 큰 영역에서 지불 의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기업 플랫폼 기술 수출 주요 사례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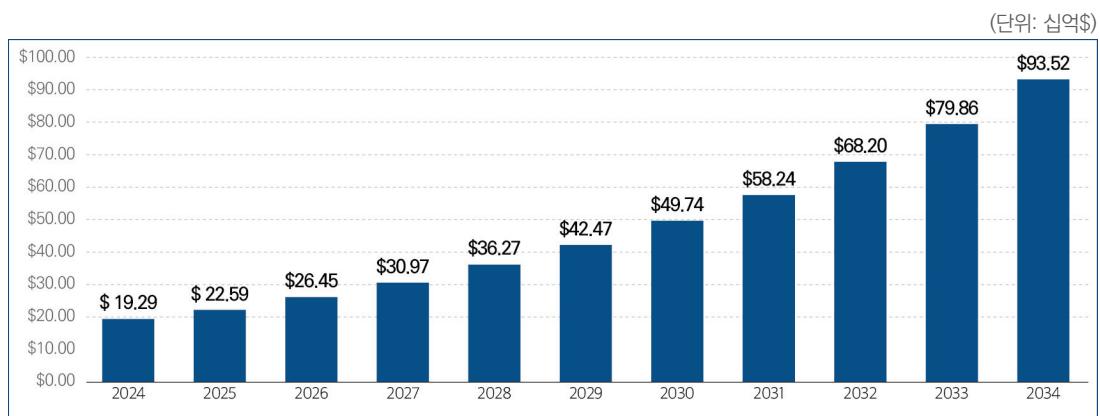
한국 기업	해외 기업	기술 분야	계약 규모	체결 일자
올릭스(OliX)	Eli Lilly(미국)	RNA 기반 치료 플랫폼	9,000	2025년 2월 10일
ABL바이오	GSK(영국)	BBB 통과 신약 전달 플랫폼	41,000	2025년 4월 6일
알지노믹스(Rznomics)	Eli Lilly(미국)	RNA 기반 치료 플랫폼	16,900	2025년 5월 15일
알테오젠(Alteogen)	AstraZeneca(영국) Daiichi Sankyo(일본)	제형 전환(정맥 → 피하)	13,000 3,900	2025년 3월 17일 2024년 11월 10일
레고켐바이오	Janssen/J&J(미국)	항체-약물 접합체(ADC)	22,100	2023년 12월 22일
오름테라퓨틱스(Orum)	Vertex(미국) BMS(미국)	단백질 분해 기반 플랫폼	4,030 2,340	2024년 7월 16일 2023년 11월 6일

자료: KOTRA('25년 8월)

## • 바이오시밀러와 복합제네릭

- 약가 인하를 압박하고, 관련 지출 축소를 추진하는 미 정부 정책으로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와 복합제네릭 수요 상승 전망
-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도 동 시장의 기회로 작용
  - \* '25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935억 2,0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오는 '34년까지 연평균 17.1% 성장할 것으로 전망(Statifacts, '25년 2월)

### 〈'24~'34년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전망〉



자료: Statifacts('25년 1월)

#### □ 진출전략

- 현지 인수합병으로 그린필드 투자 대비 현지 진출 가속화, 현지 인력풀 및 판매 공급망 확보, 물류비 절감



#### 성공 사례

- (개요) 셀트리온, 현지 공장 인수합병
  - 美 현지 실가동 중 바이오의약품 cGMP 시설 4천 6백억 원에 인수... 초기운영비 등 포함 7천억, 추가 증설에 최소 7천억 투자
  - 신규 건설 대비 시간과 비용 절감, 증설 시 송도 2공장 1.5배 수준 캐파 확장 가능 및 뉴저지주 바이오 인재풀 적극 이용
  -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생산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 시장내 구축 및 물류비 절감

- 주요 제약사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니즈(needs) 파악과 함께 꾸준히 접점을 늘리는 노력 필요
  - 해외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홍보
  -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니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복잡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각 자료, 동영상, 데모 등을 준비해 잠재 고객, 파트너,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현지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가 제안하는 트럼프 2기 시대 진출 전략



### 전문가 인터뷰

- 공급 보안을 핵심으로 한 자국 중심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 응급·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인식
  -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중국과 인도 등 특정 국가에 원료 및 완제품 공급이 집중되어 있어 공급 차질이 미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시 ‘품목’에 주목한 전략 필요
    - \* 미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부족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약물 모니터링
    - \* 시장이 성장 중인 적응증 내에서 함께 처방되는 약물들의 제형 및 함량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
    - \* GLP-1 계열처럼 특정 치료제가 급성장할 때 동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공급 보안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전략 ⑥

##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 현지화 역량 강화



### 전략 수립 배경

- 관세장벽, Chips Act 등 보조금, Buy America 압박 심화, 북미 내 생산·투자 확대
- 우리 기업 23개 기업 공장 건설 중, 현지 진출 지원 필요

### □ 현지 동향

- (자동차 부품) OEM 현지화 압박, 현지 공장 필요성 증가
  - 고율 관세와 USMCA 기준 요건 강화 등 현지화 압박 강화로 미국 내 생산·조달 확대 가속화
  - 스웨덴 자동차 메이커 볼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CX60 SUV 생산 공장투자계획 발표('25년 9월)
  - 지역 부가가치 비율(Regional Value Content, RVC) 요건 충족 요구가 1차 협력사뿐 아니라 하위 공급망으로 확산되며, 현지 생산 확대가 구조화
    - \* USMCA는 차량 핵심 부품의 RVC 기준(75%), 철강·알루미늄 사용 비중(70%), 고임금 노동(LVC, 40~45%)을 핵심 원산지 요건으로 규정
  - 멕시코·캐나다는 단기적 보완 거점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조달 확대가 핵심 측면으로 전환



### 주요 부품사 구매 전략 동향(바이어 인터뷰)

- (하위 공급망 관리 압박) Tier 1 N사의 바이어는 “최근 완성차기업들의 ‘Tier-N Resilience’ 요구로 인해 북미 특히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보유한 공급업체를 우선 검토한다.”라고 언급('25년 8월)
  - 1차 공급사들에 Tier 2 이하 공급망의 현지화 수준과 조달 구조를 관리하도록 요구
- (미국 생산 가능 기업 중심) OEM G사와 Tier 1 S사의 바이어는 “현재 구매 전략은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신규 협력사 추가 발굴 계획은 당분간 없다”라고 밝언 ('25년 8월)
- 미국 자동차 OEM, 북미에서는 Localization이 가장 중요('25년 9월)

자료: KOTRA('25년 9월)

### □ 유망 품목

-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가 부가 중이나, 상대적으로 그간 한-미 FTA로 경쟁우위로 발굴한 외국계 자동차 OEM과 한국 부품사 간의 협력 수요 공략
  - 글로벌 OEM들은 공급망 안정과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생산 및 조달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진출 부품사들의 수요 증가

- 일부 한국계 부품사는 이미 현대차 그룹 외에도 미국·독일·일본계 OEM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음
  - \* A사(조지아주) : 현대·기아차 외 GM, Chrysler 등 OEM에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부품 등을 공급
  - \* B사(앨러배마주) : Tesla, BMW, Mitsuishi, Mazda 등 글로벌 OEM에 자동차 부품 공급
  - \* C사(조지아주) : GM에 브레이크 제품 납품
  - \* D사(조지아주) : GM, Stellantis, Ford에 브레이크 패드 공급

## □ 진출전략

- (현지화 역량 강화)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통한 로컬소싱 기반 구축이 핵심 요건, 다만 아직 생산 거점이 없는 기업은 단계별 현지화 로드맵을 제시해 OEM 신뢰 확보 필요
- 부피·중량이 크거나 고부가가치 부품은 미국 현지 생산·공급 체계를 통한 조달 요구가 강화되는 품목 중심
- 주요 OEM들의 투자·생산 계획에 맞춰, 동일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현지화 계획(공장 설립, 생산 품목, 규모)을 제시하는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 기업 조언(자동차 부문 Big 바이어 인터뷰)

- (현지 지원 체계 구축) “현지 지원(Local Support) 체계가 최우선 과제이며, 현지에서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감수해야 할 리스크(must-take risk)’이다.”

자료: KOTRA('25년 5월)



### 성공 사례로 보는 북미 진출 전략 : S社(현지 바이어 F社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S社는 50여 년간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전문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강도, 내열성, 내화학성 등 품질 경쟁력을 확보
  - 선박, 자동차, 건축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안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품 공급 능력 보유
- 필수 인증 : UN1866 – Class 3, IMDG Code, EPA TSCA, SDS
- 성약 소요 기간 : 7개월
- 바이어 발굴 경로
  - 애틀랜타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F社를 유망 바이어로 발굴
  - 약 3개월간 무응답이 있었으나, 무역관 후속 접촉과 기업 자료 제공으로 '24년 12월 교신 재개
  - 무역관이 F社 의사결정권자(CEO)와 S社 담당자를 직접 연결하여 초기 상담 주선
  - 이후 미팅 및 샘플 테스트 논의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미국 대형 전문 유통업체(Distributor)와 약 13만 달러 납품 계약 성사로 북미 시장 내 레퍼런스 확보
  - 초도 납품 이후, 장기거래 계약 체결로 안정적 거래선 확보
  - 기존 원료사 선호도가 높아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미국 시장 구조 속에서도, 지사화 사업을 통한 장기간 협력 관계 기반으로 거래 성사 사례 창출

자료: KOTRA('25년 8월)

- (인적 네트워크 관리) 미국 자동차 업계는 추천(Referral) 중심 문화가 강하며, 인적 네트워크가 거래 성사에 직접적 영향
  - 현지 바이어·협회(MEMA 등)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전시회·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 형성 필요
  - 엔지니어·구매 담당자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교류가 장기적 공급망 진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 성공 사례

- (개요) 한국 A사(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북미 OEM 대상 합리적 원가 설계 기반 기술 제안과 현지 엔지니어링 지원으로 신규 프로젝트 수주
  - OEM의 초기 가격 인하 요구에 단순 할인 대신 구조 단순화·소재 최적화를 통해 성능을 유지하면서 제조원가 절감안을 제시
  - 부품 오버스펙 조정과 공정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였으며, 설계 엔지니어(Design Release Engineer, DRE)와 직접 협력해 개선안을 검증, 기술 기반 파트너로 신뢰 확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북미 시장은 가격이 아닌 기술적 합리성으로 비용 절감 솔루션을 제시하는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 DRE를 핵심 설득 대상으로 삼고, 기술·설계 지원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전략이 효과적

자료: KOTRA('25년 8월)

- (USMCA) 미국 소재 기업과 멕시코 부품사로부터의 소식
  - 글로벌 OEM들은 USMCA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일부 부품을 멕시코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MexicoNow, '25년 5월 25일)
    - \* 글로벌 부품사 Valeo는 멕시코에서 수출하는 자사제품의 90%가 USMCA를 준수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Reuters, '25년 4월 29일)
  - 다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멕시코 생산 역량 및 물류 안정성의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소싱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며, 오히려 미국 동남부에 진출한 기업을 통한 현지 직접 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큼
    - \* 멕시코는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50%의 고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멕시코 소재 2,3차 협력사들이 영향 예상(AP News, '25년 9월 10일)
- (대미 투자펀드) 2,000억 달러 투자사업 시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시 한국 업체를 우선하여야 하기로 양국 MOU 체결
  -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 현지 진출 기회로 활용 모색
- 현지 주정부, 경제개발청 아웃리치 강화
  - 한국 방한 투자설명회 및 투자환경조사단, Select USA 참가 등 연방정부, 주정부 인센티브, 노무, 세무 등 여건 파악 및 관계자 파악, 네트워킹 필요

**전략 7****K-콘텐츠로 촉발된 한류 열풍, 마케팅으로 연결하라****전략 수립 배경**

- 한류 확산과 소비재 시장 확대
  - \* K-팝·K-드라마를 넘어 K-뷰티·K-푸드·K-패션 등 전반적 라이프스타일로 확장
  - \* 팬층이 10~50대로 확대되며, 중장년층까지 소비층이 다양화
- 우리 기업의 강점
  - \* K-뷰티·K-푸드 등은 현지 브랜드 인지도 및 프리미엄 이미지 확보
  - \* 한류 콘텐츠 확산과 결합한 'K-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시장 확대 가능

**□ 현지 동향**

- 한류 확산과 K-라이프스타일 수요 증가
  - K-팝·드라마를 넘어 K-뷰티·K-푸드 등으로 확산, 미·캐 시장 전반에서 라이프스타일로 정착
  -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성공은 K-팝 등 한류에 생소했던 신규 팬층까지 유입하며 한류 콘텐츠가 더 이상 드라마나 음악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문화 현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
- 아시아계 인구 증가와 유통망 확장
  - 캐나다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로 구성, 아시아계 중심으로 한국 제품 친숙도 상승
  - 북미 주요 유통망(Walmart, Target, Loblaws 등)에서 K-뷰티·K-푸드 전용 코너 확대
- 웰니스·친환경 소비 트렌드 강화
  - 팬데믹 이후 건강·비건·저당·글루텐프리 등 '클린 라벨' 제품 선호 증가
  - ESG·지속가능성 요구 확산으로 친환경 포장·저탄소 생산 브랜드 선호
- 콘텐츠 결합형 소비 확산
  - 유튜브·넷플릭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한류 콘텐츠와 제품이 결합 소비
  - 콘텐츠 기반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K-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긍정적 파급

**□ 유망 품목**

- K-라이프스타일 소비재 전반 확산
  - K-콘텐츠(드라마·K-팝·애니메이션 등)의 인기가 패션, 뷰티, 굿즈, 게임 등 다양한 소비재로 확산되며 'K-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

-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흥행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패션·굿즈 판매 급증, 전통문화 소재 상품도 해외 팬층 확대에 기여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통 굿즈 판매는 ’25년 상반기 기준, 11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K-뷰티의 프리미엄·친환경 제품 성장
  - 클린뷰티, 비건·저자극, 친환경 포장 중심의 제품이 미국·캐나다 시장 모두에서 경쟁력 강화
  - K-팝 아이돌 메이크업 스타일, 스킨케어 루틴 등이 트렌드로 확산되며 주요 유통망에서 입점 확대
- K-푸드의 건강·웰니스 중심 전환
  - 단백질 강화 식품, 저칼로리 간식, 김치·발효식품 등 건강지향형 제품 수요 증가
  - 비건·글루텐프리·무첨가 등 클린 라벨 제품에 대한 선호 강화로 프리미엄 K-푸드의 성장세 지속
  - 최근 미국 내 ‘위고비(wegovy)’ 등 GLP-1 기반 다이어트 열풍과 맞물려 단백질 강화 식품, 저칼로리 간식, 대체식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성장
- 디지털·팬덤 기반 복합형 콘텐츠 상품 부상
  - 웹툰·게임·메타버스·NFT 굿즈 등 디지털 융합형 소비재로 진화, 팬덤 중심의 구독 서비스 및 굿즈 시장 확대

## □ 진출전략

- 문화적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 스토리 확장 전략으로 소비자 어필
  - 한류 콘텐츠를 기반한 미 소비재 시장 진출에서 중요한 전략적 요소는 SNS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
  -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소비자들과의 소통 전략 중요. 기존 한류 콘텐츠 팬덤 외에도 신규 소비자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마케팅 전략이 핵심
  - 온라인·오프라인을 융합한 옴니채널 유통망 구축으로 한류 콘텐츠나 온라인 마케팅을 소개된 제품을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체험하여 구매로 연결되도록 기회 확대 필요
- 건강·웰니스 트렌드와 연계한 제품 포지셔닝 강화
  - 건강·웰니스 중심 라이프스타일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류 소비재도 단순한 문화상품을 넘어 웰니스 지향 제품군으로 자리매김 필요
  - 단백질 식품, 저칼로리 간식, 말차 음료 등 트렌드를 반영하여 ‘건강관리+K-라이프스타일’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 한류 소비재를 단순 트렌드가 아닌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으로 확장 가능



### 성공 사례로 보는 K-뷰티 진출 전략 : 화장품 T사(현지 U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크며, 다양한 피부 톤을 고려한 제품군으로 미국 소비자 니즈를 충족
  - 합리적인 가격 대비 고품질, 그리고 한류 콘텐츠와 결합한 브랜드 스토리로 경쟁우위 확보
- 필수 인증 : 미국 FDA 화장품 안전성 기준 준수
- 일부 제품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 및 비건·크루얼티 프리(Cruelty-Free) 인증 확보
- 성약 소요기간 : 미국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이커머스)로 초기 반응 확보 후, 약 1~2년 내 오프라인 대형 리테일 체인 입점 성사
- 바이어 발굴 경로 : SNS에서 화제가 된 쿠션 파운데이션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확산, 이후 온라인 판매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 소비자 수요가 확인되면서, 뷰티 체인 U사와 오프라인 입점 계약 성사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K-뷰티 제품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및 한류 결합 마케팅으로 차별화 가능
  - 미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는 SNS, 인플루언서, 틈새시장 타깃이 효과적이며, 이후 대형 유통망 확장으로 규모 확대 가능

자료: KOTRA('25년 10월)



### 성공 사례로 보는 미국 진출 전략 : 화장품 기업 A사(현지 U사 입점 계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아마존 “주름 개선 및 노화 방지 기기(Wrinkle & Anti-Aging Devices)” 부분, 판매 2위 기록(판매 1위, 팔사)
- 필수 인증 : 미 식약청, US FDA 의료기기 등록 및 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 성약 소요기간 : 1~2년
- 바이어 발굴 경로 : 온라인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미 주요 오프라인 뷰티숍과 입점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 SNS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들과의 소통 확대, 옥외 전광판 광고, 팝업 스토어(Pop-Up Store) 운영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 집중한 것이 성과로 반영
  -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를 확대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전문 뷰티숍 입점 성공. 고객 접근성 개선, 고객 충성도 강화와 함께 온·오프라인 판매 확대의 단계별 성장·마케팅 전략이 밀거름 역할

자료: KOTRA('25년 10월)

- 현지 물류창고 및 3PL 활용을 통한 유통망 구축이 필수 전략화
  - 그간 한국 기업들의 대미 온라인 B2C 판매는 de minimis(미국 내 800달러 이하 무관세) 혜택을 기반으로 역직구 방식이 주류였으나 de minimis 제도가 폐지되면서 소비자 직접배송 방식은 더 이상 가격 경쟁력 유지 곤란

- 관세 외에도 MPF, Entry Fee 등 가격의 전방, 후방 전가에 따른 수출업체 애로 및 소비자 가격 상승
- 이에 따라 현지 물류창고를 통한 재고 확보와 3PL·풀필먼트 서비스를 활용한 유통망 운영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 물류창고 거점을 확보하면 배송 시간 단축, 관세 부담 완화, 반품·AS 관리 등 소비자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 가능
- 특히 3PL은 통관·보관·포장·배송 등 B2C 기업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을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4PL은 IT 데이터 기반으로 물류 전반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공급망 불안정을 최소화
- 또한 de minimis 폐지로 인한 비용 상승과 가격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 역직구 판매에서 벗어나, 현지화된 물류 인프라와 전문 물류 서비스(3PL·풀필먼트)를 결합한 유통망 확장이 필수적
- 건별로 B2C 배송보다는 현지 물류창고 확대 또는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을 통해, 현지 재고 보유 후 현지배송체계 구축 고려 필요



### 성공 사례로 보는 농산물 진출 전략 : 한국산 딸기 생산업체 F社(현지 H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AI 기반 디지털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적용한 자체 재배 키트는 현지 노지 재배 품목 대비 맛·당도·외관 등 품질 경쟁력이 높아 프리미엄 시장 진입에 적합하며, 일본산 'Oishii'와 비교할 경우 가격 대비 품질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
- 필수 인증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미국 내 수입자가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에 신청
  -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 수출국 검역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APQA)이 화물별 검역을 실시하여 병해충 및 검역 병해가 없을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미 통관 시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
- 성약 소요기간 : 지사화사업 가입('23년 9월) 후 약 4개월 만인 '24년 1월 첫 수출 성약 달성
- 바이어 발굴 경로 : 바이어 발굴 경로는 ▲ DMV(DC·VA·MD) 권역의 창고·유통망 및 자체 리테일 매장을 보유한 H사를 통한 오프라인 채널 확보와 ▲ 한국산 프리미엄 농산물 전문 온라인 플랫폼 W사의 선오더 기반 D2C 택배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채널 활용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신선 농산물을 통관·검역 절차가 까다롭고 지연 시 상품 가치가 하락하므로, 사전 필수 인증 요건 및 물류 계획 마련 필요
  - 안정적 유통을 위해서는 현지 물류·창고·리테일망을 보유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초기 진출 단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선 오더·D2C 방식 활용이 효과적으로 판단됨
  -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판촉·마케팅 활동과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 등 현지 생산 연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 KOTRA('25년 10월)

-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단기적 판매 감소 리스크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미국 내 소비자 기반을 확보 가능

### 수출 물류 단계

구분	국내 물류					국제 운송		해외(현지) 물류					수출 형태
	수출자	수출 통관	국내 운송	보세 입고 (CY)	수출항 적재	해운	항공	도착항 하역	보세 입고 (CY)	수입 통관	보세 반출	현지 운송	
EXW	Ex Works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B	Free On Board												
CFR	Cost & Freight												
CIF	Cost, Insurance & Freight												
CPT	Cost Paid To												
CIP	Carrier & Insurance Paid To												
DAP	Delivered At Place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DDP	Delivered Duty Paid											B2C/ D2C	
협업 파트너	국내 플랫폼	관세법인	국내 물류사		선사/ 물류사	항공사/ 특송사	현지 물류사						
			국내외 물류사, 특송사									B2B 바이어/ 소비자	해외 플랫폼 풀필먼트
지원 수요	SNS 마케팅	FTA· 수출 통관	국내 픽업 비용 지원	LCL CFS	우선 적재	운임 인하 선복 확보	우선 하역	해외 보세창고	상표권·인증· 관세·세무· 결제·수입 통관	4PL CS (반품)	CS		

자료: KOTRA('25년 10월)



## 1. 미국

### 차량용 카메라 모듈

- 선정사유**
- 전 세계 자동차 카메라 모듈 시장은 '24년 약 98억 달러에서 '33년 80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6.3% 성장 전망(Global Growth Insights)
  - 북미 시장은 신규 차량의 약 72%가 후방 카메라, 53%가 전방 카메라를 채택, 상용차 부문은 다중 카메라 시스템 확대
  - 후방 카메라 의무화, 자동 비상제동(AEB) 단계적 의무화 등 안전 규제 강화가 카메라 탑재의 최소 기준으로 작용
  - Tesla FSD Beta v12 도입 이후 카메라 기반 end-to-end 학습 확산과 GM·Ford의 카메라 중심 센서 융합 전략 강화에 따른 고해상도 외부 카메라 수요 확대
- 경쟁동향**
- 북미 시장은 Bosch, Continental, Aptiv, Magna, Valeo, ZF, Hyundai Mobis 등 주요 Tier-1 부품사주도 구조(Allied Market Research)
  -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는 Onsemi(미국), Sony(일본), OmniVision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높은 기술력 확보(Maximize Market Research)
  - 시장 구조는 다수 글로벌 공급자가 경쟁하며, 상위 기업 간 점유율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Allied Market Research)
- 진출방안**
- 정밀 광학 및 센서 패키징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정밀 모듈+비용 최적화’ 차별화전략 추진
  - SAE 자율주행 단계별 성능 요건 대응 및 북미 OEM이 추진하는 차량 전방위 시야 확보(360° 카메라 융합) 수요에 맞춘 멀티 카메라 패키지 공동 개발 제안

### 차량용 레이더(밀리미터파) 센서

- 선정사유**
- ACC(Adaptive Cruise Control), 전방 충돌 방지 등 핵심 ADAS 기능 구현에 필수 센서로, 카메라와 함께 복합 센서 구성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Mordor Intelligence)
  - 미국 자동차 레이더 시장 규모는 '24년 약 18억 달러에서 '30년 42억 달러로 성장 전망, '25~'30년 연평균 성장을 18.15% 기록 예상(MarkNtel Advisors)
  - '29년까지 승용차·경상용차에 레이더 기반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필수 탑재 예정, 규제 기반 수요 확대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국(FMCSA)이 AEB 장착 의무화 규정 발표('24년 4월)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Tier-1 부품사 Bosch, Continental, ZF, Aptiv, Denso, Valeo가 시장을 주도하고, 반도체 공급사는 NXP, Texas Instruments, Infineon, Renesas 등으로 구성(Research and Markets)</li> <li>77GHz를 중심으로 하는 7X-GHz 레이더가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200m 이상 장거리 감지와 고해상도 이미징을 지원하는 자율주행 및 ADAS용 핵심 기술(MarkNtel Advisors)</li> <li>차세대 4D 이미징 레이더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Continental, Bosch, Arbe Robotics 등이 다중 주파수·고해상도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추세(Driving Vision News)</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CU 통합 및 안테나 일체형 패키징 기반 차별화 제안, 플랫폼 단가 최적화와 경량화 대응 전략</li> <li>북미 현지 FAE(Field Application Engineer)와 실도로(필드) 테스트 체계 확보를 통한 OEM 신뢰성 검증 및 수주 기반 마련</li> <li>4D 레이더와 소형화·단일 칩 CMOS 기반 센서 등 차세대 응용 분야 겨냥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 전략</li> </ul>

## 첨단 전장 부품(Advanced Automotive Electronics)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 전장 부품은 전자제어 장치(ECU),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카메라, 자동 긴급제동 장치(AEB)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 요소로, 미국의 자율 주행차 보급 확산으로 수요 증가추세</li> <li>미국의 ADAS 시장은 '24년 약 97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향후 10년간 연 15.4% 성장 전망 (Claight)</li> <li>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모든 신차에 AEB 의무화를 확정했으며, '26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NCAP)에도 ADAS 적용 여부를 포함해 첨단 전장 부품 수요 견인</li> </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슬라, GM, 포드 등의 완성차 업체가 독자 개발하거나, 현지 또는 외국 부품사와 협력해 ADAS 전장부품을 내재화하는 추세</li> <li>부품사로는 Bosch, Continental, Valeo, Denso, Hitachi 등이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며 미국 내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음</li> <li>우리 기업은 ADAS 기술개발 및 부품 공급으로 미국 시장 진입</li> </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M, 포드, 테슬라를 비롯한 구글 웨이모, 애플 카프로젝트 등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의 파트너십 모색 필요</li> <li>소형화·고성능 센서와 같이 기술적 강점을 활용한 차별성 확보</li> <li>자동차 클러스터 지역(조지아, 미시간, 텍사스 등)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및 조달 거점 구축</li> </ul>

##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의 생물의약품(biologics)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2.5% 성장해 왔고, 전체 의약품 지출의 약 46%를 차지(IQVIA)</li><li>•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로 시장 경쟁 진입 가능성이 높음</li><li>• IQVIA는 '27년까지 바이오시밀러 관련 누적 판매액(cumulative sales)이 약 1,2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li><li>•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비용이 낮아 의료보험 / 의료 시스템 측의 부담이 줄고 환자의 접근성이 높음</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재 개발 중이거나 승인된 바이오시밀러 분자의 상당 부분(약 79%)이 소규모 업체(small manufacturers)에 의해 개발 중</li><li>• 이러한 업체들은 특허 만료 제품 중심, 기술적 도전이 덜하거나 허가 경로(regulatory pathway)가 명확한 제품을 타깃</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 FDA 허가 절차, 상호 대체(interchangeability) 요건, switching study, comparability 자료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수</li><li>• 미 관세 정책과 공급망 구축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내 GMP 인증된 생산거점 또는 CMO/CMO 계약을 통한 공급 안정성 확보 필요</li></ul>   |

## 세라믹 기판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기차 인버터와 AI 데이터센터용 전력모듈은 고온·고전압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세라믹 기판은 열전도성과 기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소재로 사용</li><li>• 글로벌 시장에서 SiC 또는 GaN 채택이 늘어남에 따라 세라믹 기판 수요도 동반 성장</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미쓰이, 쇼와덴코), 유럽(루살트론), 대만 등 주요 기업이 세라믹 기판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력모듈 전용 <math>\text{Si}_3\text{N}_4\text{-AMB}</math> 제품군이 확대</li><li>• 미국 내에서는 전력반도체 기업들이 자사 모듈용 기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모듈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고열전도·저결함 기판 수요가 증가 중</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산업을 통해 고품질 세라믹 가공·박막 증착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력모듈용 <math>\text{Si}_3\text{N}_4\text{-AIN}</math> 기판 양산 경험을 축적</li><li>• 미국 시장에서는 국제 인증(AEC-Q, UL) 확보와 현지 모듈업체와의 공동 검증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벤더리스트에 조기 진입하는 전략이 효과적</li></ul> |

## 고전압 MLCC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V급 전기차가 인버터, 온보드 충전기(OBC), AI데이터센터 전원공급장치(PSU) 등에서는 고전압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1,000~2,000V급 MLCC가 필수적으로 사용</li> <li>• 글로벌 MLCC 수요가 모바일 중심에서 전장·산업용으로 이동하면서, 고전압·고신뢰성 제품의 시장 성장</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무라타가 전장용 MLCC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TDK·Taiyo Yuden 등도 고전압 제품군 확대</li> <li>• 한국 기업 역시 세계 2위권 점유율을 유지하며, 최근 2,000V급·AEC-Q 규격 대응 제품을 연이어 출시해 경쟁력을 강화</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완성차·데이터센터 기업과의 공동 신뢰성 시험 및 현지 인증 획득을 통해 벤더리스트 진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li> <li>• 차세대 EV용 800V 플랫폼과 AI 서버용 전원장치를 주요 타깃으로 삼아, 고전압·고온 대응 라인업을 확장하는 전략 필요</li> </ul>                             |

## 중저압 케이블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전력망 현대화(IIJA, GRIP 등)와 분산형 전원 확대로 배전망 보강 수요 급증</li> <li>• 중저압 케이블은 지역 유틸리티·산업단지·데이터센터 배전용으로 꾸준한 수요</li> <li>• 한국 중소기업이 생산 가능한 기술 수준이며, BABA(Buy America) 규정에 따라 현지 조달 파트너십 필요</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uthwire, Encore Wire, General Cable 등 지역 기반 업체가 강세</li> <li>• Prysmian(이탈리아), Nexans(프랑스) 등의 유럽 기업도 북미에 생산공장 보유</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파트너십, 인증 사전확보, 현지화 생산 고려</li> </ul>  |

## 기계식 프레스(HSCODE : 8462.62)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식 프레스는 자동차·항공우주·전자 등 전략 산업의 대량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설비</li> <li>• 제조업 자동화·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정밀 금속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기계식 프레스의 수요도 확대될 전망</li> <li>• '24년 기준, 미국 수입액 9억 4,000만 달러, 전년 대비 30.6% 증가했으며, 한국산 수출은 2억 3,000만 달러(전년 대비 +228.6%)로 급성장</li> </ul> |
|-------------|---|

- 
- |             |   |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 시장 주요 경쟁사는 Komatsu America, AIDA-America, Macrodyne, Schuler 등</li><li>• 기술적으로는 일본과 독일산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li><li>• 최근에는 자동화 라인과 결합된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보 프레스 및 하이브리드 프레스(유압+기계식)가 각광받고 있음</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 전시회(FABTECH 2025, IMTS 등)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와 고객사 네트워킹</li><li>• 고강도 합금 소재와 첨단 윤활 기술을 적용해 정밀도와 내구성을 강화함으로써 품질적 차별화 이루기</li><li>•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 및 대형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체결 병행</li></ul>  |
- 

### 실리콘카바이드(SiC) 웨이퍼 후공정 장비(HS Code : 8486)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리콘카바이드(탄소규소) 웨이퍼는 고온 안정성, 고전압, 저전력 등의 강점을 가진 전력반도체의 핵심 소재</li><li>• 전기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 적용 산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추세</li><li>• 미국 에너지부(DOE)가 SK실트론 CSS의 200mm SiC 웨이퍼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 대출을 승인하는 등 미국의 국가적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반도체 웨이퍼를 칩으로 자르고 패키징하는 후공정 장비는 정밀도와 생산성, 고객사를 위한 기술 지원 능력이 중요한 경쟁 요소</li><li>• 특히, 웨이퍼를 칩으로 분리하고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Wire Bonding) 기술이 후공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해당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는 K&amp;S(Kulicke&amp;Soff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pplied Materials) 등이 존재</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 기업들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기에, 기존 기술력으로 활용하여 SiC 반도체에 특화된 장비 개발에 유리</li><li>• 한국의 웨이퍼링 기술과 미국의 SiC 잉곳 제조 기술을 결합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미 공급망 내재화 흐름과 시너지 창출</li><li>• 반도체 전시회(SEMICON West 등) 참여, 기술 데모 및 현지 업체와 네트워킹 강화</li></ul>                     |
- 

### 열교환기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 발전소·LNG·정유·화학 플랜트 전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기기자재</li><li>• 노후 설비 교체 수요와 함께 데이터센터 냉각·ESS 열관리 등 신수요 창출</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Alfa Laval(스웨덴), Kelvion(독일), Tranter(미국)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강세</li><li>• 산업용 로컬 중소기업 다수 존재</li></ul>              |

- 진출방안**
- 특정 산업을 공략해 맞춤형 남품 전략
  - 부품 수출 후 완제품 현지 조립을 통한 관세 리스크 최소화
  - EPC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형 진출전략 마련

## 전력 케이블

- 선정사유**
-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및 제조 시설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전망 확충과 송전 인프라를 위한 전력 케이블 수요 확대될 전망
  - 미국의 평균 40년 이상된 노후 배전·송전망 교체 시기에 따른 수요 발생
  - 트럼프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축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및 민간 주도의 전력망 현대화와 데이터센터·산업단지 전력 수요는 지속될 전망
- 경쟁동향**
- Prysmian, Nexans, Southwire, LS전선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
  - 고관세 정책으로 원자재(구리, 알루미늄) 가격 변동성에 따른 경쟁이 치열
- 진출방안**
- 미국 내 인프라 건설에 'Buy America' 조항 등 현지 조달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현지 생산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전략 필요
  - 주요 유틸리티 업체 및 EPC(설계·조달·시공)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 미국 내 수요가 높은 중전압케이블(MV),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용 케이블, EGS에 대응한 친환경 절연재 케이블 등 차별화된 제품군으로 시장 진출 시도
  - 품질인증(UL, IEEE, ICEA 등) 사전 획득으로 수출 기반 마련

## GLP-1 친화적 단백질 식품

- 선정사유**
-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체중 감량 치료제 오젬피(Ozempic)과 위고비(Wegovy) 열풍으로 음식 섭취 후 글로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인기
  - GLP-1 친화적 단백질 섭취를 통해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당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미국 식품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로 급부상 중. '22~'24년까지의 일반 스낵류 성장률은 연평균 3%로 집계되었으나 단백질 간식은 연평균 9% 성장률 기록
  - 미국의 '24년도 GLP-1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은 약 99억 5,000만 달러의 매출 기록. '30년까지 372억 8,000만 달러로 성장 전망
- 경쟁동향**
- 촘스(Chomps) 브랜드는 고단백, 저당 육포 제품, 슈퍼컷(Supercut) GLP-1 부스터 출시.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인 네슬레(Nestle)는 Vital Pursuit를 출시하여 고단백, 저칼로리, 고섬유질의 스낵 제품들로 현당 반응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 퀘스트(Quest) 브랜드는 단백질 칩(chips)을 출시 했으며 GLP-1 친화 식단을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이 간편히 즐길 수 있는 스낵 제품으로 인기

- 진출방안**
- 탄수화물 중심의 한식 메뉴(김밥, 떡볶이 등)에서 벗어나 단백질 함량을 높이거나 두부, 콩 등의 고단백 재료를 사용한 메뉴 개발 중요. 동물성 단백질 메뉴 개발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채식 및 식물성 메뉴에 대한 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 채식 메뉴도 중요 고려 요소로 꼽힘. 식사 대용의 간편식, 스낵, 음료, 베이커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 개발과 제품 기획 필요
  -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색소 사용, 주요 알러지 유발 재료 확인, 불필요한 조미료나 첨가물 사용을 배제, 건강한 비건(vegan) 및 클린(clean) 제품들이 최신 트렌드로 부상. 지구 열대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포장, 라벨링 등 원재료 수급에도 이러한 노력이 반영되는 제품들에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이 높음

## 헤어케어 제품

- 선정사유**
- 헤어케어의 스킨케어화, 개인 라이프스타일과 모발, 두피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제품 선택 가능성, 유해 화학 성분이 없는 식물성 성분 및 친환경 포장에 대한 제품 수요 빠른 증가
  -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장기화로 전문 살롱에서 받는 고가의 관리 대신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집에서 직접 관리 추세. 화학적 성분에 대한 불신으로 친환경, 자연 유래 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세
  - ’24년도 미국의 헤어케어 소매 판매 규모는 약 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 ’23년에 이어 고급화 트렌드가 지속되며 스킨케어에 준하는 스킨케어화(skinification) 추세와 살롱급 품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성장 원인으로 분석
- 경쟁동향**
- 모로칸오일(Moroccan Oil) 브랜드의 아르간 오일(Argan Oil) 기반의 고급 헤어 트리트먼트, Redken & Pureology의 전문 살롱 라인 제품, 자연주의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아베다(Aveda), 글로벌 브랜드인 Unilever의 Dove Scalp+Hair Therapy 등 인기
- 진출방안**
-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전성을 맞이한 K-뷰티의 강점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되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들을 고려한 제품 개발 및 출시 필요.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 맞추어 두피, 모발 유형, 컬러 트렌드 등 다양성을 고려한 제품 구성 필수
  - 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클린 뷰티’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미 소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유연성 있는 진출전략 필요

## 냉동 김밥

- 선정사유**
- 한류 열풍으로 미국 내 냉동 김밥 인기는 지속적으로 상승
  - 냉동 방식으로 보관과 섭취가 간편하며, 김과 밥을 기본으로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한 끼 식사로 여겨져 수요 지속 전망
- 경쟁동향**
- 미국 냉동 김밥 시장은 현재 한국 기업들이 주도
- 진출방안**
- 김밥에 들어가는 동물성 식재료는 대체육 등 식물성 재료로 대체해 비관세 장벽을 극복
  - 미국 내 채식 열풍을 지렛대 삼아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 가능
  - 최근 미국에서 유행에 성공한 K-콘텐츠와 협업을 통한 마케팅도 고려할 수 있음

## 2. 캐나다

### 전기용 스탠드 램프/조명기구(LED)

- 선정사유**
- 캐나다 조명 시장은 '24년 기준 약 29억 CAD 규모이며, 그중 LED 조명 비중은 약 75%를 차지
  - '28년까지 LED 조명 시장은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와 건축·리모델링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 스탠드형 LED 램프 수요도 동반 증가 추세
  - '24년 기준, 전기용 스탠드 램프/조명기구의 대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7.3% 증가한 80만 달러로 전체 수입 국가 중 4위에 위치
- 경쟁동향**
-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 조명기구 수입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산이 약 20%를 점유
  - IKEA, Home Depot, Canadian Tire 등 대형 유통망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 브랜드는 고급·디자인 특화 제품군에서 강세를 보임
- 진출방안**
- CSA·cUL 인증 취득은 필수이며, 일부 주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규제가 적용되어 준수 필요
  - 캐나다 조명 온라인 유통 시장은 연간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Amazon·Wayfair에서 LED 램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스마트홈·IoT 연동형 조명, 고급 디자인·친환경 제품군으로 차별화하여 niche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상업용 프로젝트(사무실·호텔 등)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 혈액 냉장고

- 선정사유**
- 캐나다 의료기기 시장은 '24년 기준 약 108억 CAD 규모로, 연평균 5% 내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혈액은행과 병원에서 사용되는 혈액 냉장고는 고령화와 수혈·이식 건수 증가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확대 중
  - 연간 혈액 기증 건수는 약 80만 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혈액 보관 장비 수요가 안정적으로 존재
  - '24년 기준, 혈액 냉장고의 대한 수입액은 전년 대비 92.1% 증가한 350만 달러로 전체 수입 국가 중 8위에 위치
- 경쟁동향**
- 글로벌 메이저 브랜드 Helmer, Thermo Fisher, PHCbi 등이 점유율 약 60%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
  - 그러나 중소형 병원과 검사실에서는 합리적 가격대와 A/S 접근성을 중요시하여, 신규 기업에도 시장 기회가 존재
  - 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시장의 70% 이상은 미국과 유럽산 제품이 차지하나, 아시아(한국·일본) 제품의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진출방안**
- Health Canada Class II 의료기기 라이선스 취득과 ISO 13485 인증은 필수
  - 초기 진출 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1°C 이하 정밀 온도 유지, 원격 모니터링 등 기술적 차별성을 강조 필요

## 샴푸

- 선정사유**
- 캐나다 퍼스널케어 시장은 '24년 기준 약 124억 CAD 규모이며, 그중 헤어케어 시장은 약 19억 CAD 수준
  - 향후 '28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비건·천연 원료 기반 샴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산 K-Beauty 헤어케어 제품은 '24년 약 8,600만 CAD 수출 규모를 기록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 경쟁동향**
- 다국적 대기업(L'Oréal, P&G, Unilever 등)이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며 주도
  - 그러나 중소 브랜드와 아시아산 제품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비건·저자극·탈모케어 제품군은 연평균 8%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주요 경쟁 분야로 부상
- 진출방안**
- Health Canada의 Cosmetic Notification Form(CNF) 신고와 Hotlist 성분 규제 준수 필수
  - 대형 리테일 채널(Shoppers Drug Mart·Walmart) 진입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Amazon.ca, Well.ca 등)에서 K-Beauty 헤어케어 제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한 사례가 있어, 온라인 채널 공략 유효
  - 현지 소비자의 60% 이상이 “비건·천연 성분”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성분 차별화·브랜드 스토리텔링 강화 필요

## 전력망 송배전 설비

- 선정사유**
-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전력망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일 전력망 강화 추진 중(북미 전력망은 발전 방식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동(BC)↔서(온타리오)가 아닌 남(워싱턴)↔북(BC) 방향으로 연결되는 구조)
  - 또한, 노후화된 송전·배전 설비 교체와 더불어 전기차·AI 데이터센터·전기화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현대화·확충 시급(캐나다 기후연구소 전망: 캐나다 발전설비 용량 '50년까지 현재 대비 2.2~3.4배 확대 필요)
- 경쟁동향**
- 캐나다 전력망·송배전 설비 시장은 ABB, Siemens, Schneider Electric, GE, Eaton 등 글로벌 기업이 변압기·스위치기어·스마트그리드 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주도
  - 이외에도 Hitachi Energy, Toshiba, Mitsubishi Electric 등이 고압 트랜스포머 및 특수 기자재 분야에서 틈새 경쟁력을 확보
  - BC Hydro, AltaLink, SaskPower, Hydro One, Hydro Quebec 등 지역 전력회사가 주요 발주처로 시장 수요를 형성
- 진출방안**
- 주정부·지역 전력공사와의 파트너십 또는 현지 EPC 업체와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입찰 접근성 강화 필요
  - 초고압 변압기, 전력용 반도체 모듈(SiC 기반), 스마트그리드용 계측·제어 시스템 등 대기업 대비 기술 차별화 가능한 분야에 집중
  - 설치·유지보수 인력이 필수적인 전력 기자재 특성상, 캐나다 내 서비스 거점 확보 및 A/S 역량 강화 요구

##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자재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나다는 '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 아래, 청정에너지 전환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탈탄소 전환 사업추진 중</li> <li>캐나다 총리는 '25년 신정부 출범 직후 '에너지 슈퍼파워(Energy superpower)'로의 캐나다 도약을 선포하며, 풍력, 태양광, 수소, 배터리 등 핵심 기술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제안</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나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수력 중심 구조지만, 최근 5년('19~'24년)간 캐나다 내 풍력·태양광·에너지 저장 설비의 설치 용량이 46% 증가(캐나다 신재생에너지 협회)</li> <li>캐나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Acciona SA, Canadian Solar Inc., Vestas Wind Systems AS 등이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확대(Mordor Intelligence 보고서)</li> <li>특히 Canadian Solar는 태양광 모듈 제조와 프로젝트 개발 역량을 강점으로, Brookfield Renewable Partners는 수력·풍력·태양광·저장시설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시장 주도</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력 중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부품,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가 현지 유망 수요 품목</li> <li>Canadian Solar, Brookfield Renewable, Hydro-Québec, BC Hydro 등 대형 발주사·프로젝트 개발사와 협력 강화</li> <li>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 등 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한 지역에 대한 집중 진출전략 수립 필요</li> </ul>  |

## 히트펌프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기후 변화로 극심해지는 폭염과 한파로 인해 냉/난방 기능을 동시 제공하는 '히트펌프' 수요 증가 추세</li> <li>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기여 등 친환경 효과가 크고,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낮아진 것이 수요 증가 요인</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나다 열펌프 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경쟁이 치열하며 주요 업체는 캐리어(Carrier), 다이킨(Daikin Industries), 잉거솔랜드(Ingersoll Rand), 로버트보쉬(Robert Bosch), 댄포스(Danfoss) 등</li> <li>'24년 기준 캐나다 총 수입 규모는 약 USD 5,462만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47.6%), 중국(27.2%), 이탈리아(11.0%) 순. 한국(4.7%)은 4위를 차지, 지난 3년간 43.493%의 폭발적 성장 기록(자료 : 캐나다 통계청)</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대한 국토로 인해 지역별 기후와 소비자 특성이 상이하므로, 주별 기후·정책·소비 패턴에 맞춘 성능·가격·유통 전략 등 맞춤형 접근이 요구됨</li> <li>아울러 CSA &amp; CEC 인증(전기/전자 안전), 에너지 효율 및 HVAC 규제 등 히트펌프 관련 현지 인증제도 및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li> </ul>   |

## 플라스틱 식탁·주방용품

- 선정사유**
- '24년 기준 캐나다 식탁·주방용품 시장 규모는 약 CAD 32억 2,370만으로, '29년까지 연평균 2%의 안정적 성장을 예상(유로모니터 Homewares in Canada 보고서)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식 감소와 집밥 선호 확산 그리고 주택 리모델링 및 주방 업그레이드에 따른 실내 활동 소비 중심 트렌드가 수요 견인
- 경쟁동향**
- 캐나다 플라스틱제 식탁·주방용품 수입국은 중국(53.3%), 미국(33.3%)이 압도적. 한국은 수입국 순위 10위로 전체 수입의 1% 미만 비중 차지
  - 시장은 소수 브랜드 독점이 아닌 다극화 구조로, 상위 3개 브랜드 합산 점유율이 20% 미만이며 브랜드별 점유율은 5% 이하로 소비자 선택 폭 큼
  - 유통채널은 '24년 기준 오프라인 비중이 82.5%이며, 온라인은 17.5%로 꾸준히 성장 중. 특히 대형 식료품 유통업체들의 주방용품 프로모션 강화 추세
- 진출방안**
- 캐나다 정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로 소비자가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품 선호 경향 강화, 이에 따라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친환경 소재 제품군 확보 필요
  -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틈새시장 공략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 국내 기업에도 진입 기회 다대
  - 유통 전략으로는 식료품 기반 대형 유통망과 온라인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옴니채널 마케팅 접근이 효과적

## 립 메이크업 제품

- 선정사유**
- 팬데믹 이후 '합리적 사치' 트렌드가 자리 잡으며 립 메이크업이 심리적 만족을 주는 핵심 품목으로 성장. '28년까지 연평균 3.9% 성장이 예상되며, 동기간 전체 색조화장품 시장 성장률(3.4%) 추월 전망
  - 캐나다 최대 화장품 유통 매장인 세포라에서 라네즈와 같은 국산 브랜드가 판매 상위권을 기록하며 인지도·신뢰도 확대
- 경쟁동향**
- '24년 기준 캐나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43.7%), 이탈리아(12.4%), 중국(10.4%), 한국(10.1%) 순
  - 글로벌 기업인 로레알(L'Oréal S.A), 에스티로더(Estée Lauder), 코티(Coty)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
  - 시장 주요 인기 브랜드는 로레알 파리(L'Oréal Paris), 메이블린 뉴욕(Maybelline New York) 등
- 진출방안**
- 스킨케어 성분을 결합한 '스킨니피케이션(Skinification)' 트렌드 확산으로 기능성 립 제품(보습, 항산화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가. 이에 한국 기업은 보습, 항산화 등 기능성 요소를 강화하고 미니 사이즈, 키트 구성 등 제품군 다변화 필요
  - 틱톡,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짧고 시각적 매력이 강한 '틱톡커블' 콘텐츠 중심 마케팅이 효과적
  - 온라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후 오프라인 진출 검토 가능



## 1. 미국

### AI 기반 피부 노화 방지 헬스케어 서비스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은 고령화와 외모 관리 수요 확산에 따라 피부 노화 예방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실시간 피부 분석과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선호가 뚜렷</li> <li>AI 기반 피부 관리 서비스는 단순 미용을 넘어 예방 중심 헬스케어 분야로 영역을 확장 중</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레알(Modiface), 퍼펙트코프, 뉴트로지나(360 스킨 스캐너) 등 글로벌 기업은 AI 기반 피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제품·관리 솔루션을 제시하고, 병원 연계 진단 및 구독 모델을 활용해 수익 구조 다변화 추진</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진입 시 AI 분석 정확성·안전성을 강조하고, 피부과 전문의 자문·FDA 등록·임상자료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li> <li>실시간 분석, 건강 점수화, 제품 추천 등 개인화 콘텐츠와 SNS·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네트워크 제휴를 통해 차별화 시도 및 신뢰도 상승 가능</li> </ul> |

### 맞춤형 유아용 장난감 정기 구독 서비스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에서는 밀레니얼·Z세대 부모를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li> <li>맞벌이 확대와 ESG 소비 확산으로 구매보다는 편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맞춤형 구독 선호</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ovevery, KiwiCo, Hoppi Box 등이 대표적이며, 연령별·발달단계별 장난감을 전문가가 선별해 배송</li> <li>Lovevery는 몬테소리 기반 놀이 콘텐츠를, KiwiCo는 STEM 학습 키트를 제공</li> <li>주요 경쟁 요소는 브랜드 신뢰도·서비스 유연성·반납 시스템·안전성 검증</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NS·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확보가 효과적이며, 친환경 소재·반납·재사용이 가능한 순환형 서비스로 신뢰 제고 가능</li> <li>AI 기반 맞춤 추천, 앱 구독 관리, 부모 대상 놀이 가이드 등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지 육아 플랫폼·키즈 콘텐츠 채널과 제휴해 차별화와 초기 시장 진입</li> </ul>        |

## 디지털 재활 치료(Telerehabilitation) 서비스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국은 고령화, 수술 부상 후 재활, 근골격계 질환 증가로 재활 치료 수요가 확대</li><li>의료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격 재활 서비스가 주목받으며, AI·센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맞춤 피드백 서비스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춰 성장 잠재력이 큼</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Hinge Health, Sword Health, Kaia Health 등이 AI·웨어러블 앱을 결합해 개인 맞춤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보험사·고용주 제휴, 원격 상담, 임상 근거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HIPAA 규제 준수, FDA 인증·임상자료 확보가 필수이며, 현지 의료진 네트워크 제휴, 다국어 지원, 문화 적합성 반영이 필요</li><li>실시간 분석, 진행 리포트, 게임화 기능으로 차별화하고, 보험사·헬스케어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용자 접근성을 확대 가능</li></ul>

## AI 기반 금융 자산 관리 서비스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AI 산업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금융 분야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및 관련 수요 증가 추세</li><li>AI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의 재정 상황, 목표, 위험 성향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음</li><li>시장 변화나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보다 고객의 개입이 적은 편이며 저렴한 수수료와 모바일 앱, 웹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li><li>전통적인 금융서비스보다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MZ세대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li><li>'24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8억 3,900만 달러며, 연평균 30.3%씩 성장해 '32년 69억 3,2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Betterment, Wealthfront 등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에 진출해 있음</li><li>Betterment는 은퇴 주택 구매 등 고객의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투명한 수수료 체계로 복잡한 금융 지식이 없어도 쉽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됨</li><li>Wealthfront는 AI 기반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와 고금리 저축 계좌,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며,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고객에게 미국 투자환경(규제, 세금, 투자 성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제공하고 현지화된 포트폴리오 및 UI/UX를 제공</li><li>현지 금융사(은행, 증권사, 핀테크 플랫폼)과 협업하여, 초기 시장 진입 비용 절감</li><li>소액·마이크로 투자 기능을 통해 젊은 세대 유입</li><li>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MZ 세대 타겟팅</li></ul>

## 예지보전 시스템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수요 급증 대비 노후화된 전력망으로 사전 예방 유지보수 수요 증가</li> <li>• 스마트 그리드·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정책 지원 多</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 Digital, Siemens, ABB 등 글로벌 대기업</li> <li>• SparkCognition, Uptake 등 미국 스타트업</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서와 예지보전 시스템을 결합한 SaaS 모델로 공급</li> <li>• EPC 및 유틸리티사와의 파트너링을 통한 실증사업 실행</li> </ul>        |

##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s)(애틀랜타)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S)은 교통 인프라와 차량, 이용자, 데이터 기술을 연결해 교통 데이터를 수집, 분석, 관리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li> <li>• 미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주요 도시의 스마트 시티 구축, 자율 주행차 도입 가속 등에 따라 ITS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li> <li>• '25년 기준 초당적인프라법(BIS)에 따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배정된 금액은 620억 달러이며, 미국 교통부(DOT) 예산은 2.9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상승</li> <li>•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5년 미국 ITS 시장 규모는 약 416~425억 달러 규모이며, 연 5.4~6.6%로 성장 전망</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주요 ITS 기업으로는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과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Simens Mobility, 전자 요금 시스템과 교통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Kapsch TrafficCom, 교통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Cubic Corporation 등이 있음</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정부의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공공 조달 시스템에 참여를 모색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현지 인프라 기업, 기술기업, 정부 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시장 진입이 필요(기술 제공,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협력 모델 확보 등)</li> <li>• 미국 교통 인프라와 환경에 적합한 기술 현지화 및 교통 관련 표준 준수</li> <li>• ITS World Congress('25년 8월 애틀랜타 개최) 등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를 통한 기술 홍보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li> </ul>   |

##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산업

- 선정사유**
- 미국은 매년 약 1,200만대의 차량이 폐차 처리되며, 이에 따른 폐차 차량 재활용 산업 수요존재
  - 북미 폐차(ELV) 시장은 '24년 264억 달러에서 '32년 63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성장 초기 단계에서 시장 진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Verified Market Research)
  - 고효율 해체, 선별 기술과 품질 관리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내 기존 기업이 충족하지 못하는 고부가 가치 부품 재활용 수요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자체 인터뷰, '25년 8월)
- 경쟁동향**
- 북미에서는 Lkq Corporation 및 Schnitzer steel社 가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기반 중소업체는 주별 폐차장이나 보험사와 협력하여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틈새시장 공략 전개(Verified Market Research)
- 진출방안**
- (기술 차별화) 자사가 보유한 정밀 해체, 부품 선별 기술을 앞세워 현지 기업 대비 화수율 및 효율성 강화
  - (B2B 파트너십 확보) 보험사, 정비업체, 렌터카사 등 다량의 폐차 발생 채널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물량 확보
  - (정책·규제 대응 전략) 주정부 친환경 규제 충족 및 인센티브 활용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리스크 감소

##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Supply Chain Visibility Platforms)

- 선정사유**
-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이란 해상·항공·철도·트럭 등 다양한 운송 모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기업이 제품의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Estimated Time of Arrival, ETA)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관세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해상운송 차질)으로 인해 실시간 추적 및 예측 관리 솔루션 수요 증가
  - 글로벌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 시장 규모는 '25년에 약 31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13%씩 성장하여 '35년에는 104억 달러가 될 전망
  - 공급망 가시성 플랫폼을 도입한 글로벌 온라인 소매업체는 잘못된 배송을 70% 줄이고, 예외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5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Wilioot)
  - '25년 기준, 글로벌 제조업체의 76%가 여전히 공급망 가시성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평판 손실과 규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가시성 확보가 필수로 인식됨(Deloitte)
- 경쟁동향**
- Amazon, UPS, FedEx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드론 배송, 자율주행 트럭, 자동화 물류센터 기술 개발을 선도
  - 미국 시장은 시카고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프로젝트44(project44), 포카이츠(FourKites) 등이 점유
- 진출방안**
- 미국 고객사가 선호하는 실시간 추적, 예측 분석, 배송 효율화 솔루션을 현지화해 제공 필요
  - 시카고를 거점으로 북미 내륙 물류망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신뢰 확보

## 2. 캐나다

### 모바일 의료진단 서비스

- 선정사유**
- 캐나다 디지털 헬스 시장은 '23년부터 연평균 약 18.5% 성장세 기록, '33년까지 시장 규모 약 1,065억 달러로 성장 전망
  - 자가 건강관리 인식 및 모바일 헬스 확산, 고속인터넷 접근성 강화, 병원·헬스케어 비용 절감에 대한 수요 증가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움직임이 제한적인 노약자를 대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 등 다양한 시장 진입 기회 요인
- 경쟁동향**
- 캐나다·미국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이 주요 시장 점유
  - 대형 보험사·통신사의 헬스케어 기업 인수합병 활발, 의료·통신·IT 융합 생태계 강화 중
- 진출방안**
- 호흡기·감영성 질환의 빠른 진단 등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진 ICT 센서 기술로 차별화된 서비스로 진입
  - 현지 보험사, 통신사 등 로컬 기업과 플랫폼 협력
  -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모바일 진단, 원격 모니터링 결합형 솔루션 공급

### 전자상거래 결제솔루션

- 선정사유**
- 캐나다 전자상거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의류, 외식, 식료품, 전자제품, 뷰티제품 등 다양한 일상 소비재를 전자상거래로 구매
  - 최근 현지 온라인 유통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기 방지, 결제 자동화, 개인화 경험 도입 수요 증가
  - 웨어러블 결제, 비접촉 결제, 스마트홈·SNS 결제 등 다양한 신기술에 기반한 결제방식이 빠르게 증가 중
- 경쟁동향**
- Alexa, Google Home, Instagram, Facebook, Siri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으나 캐나다 현지 유통망 협력하고 있는 결재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협력 기회 포진
  - 이민자 유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크로스보더(cross-border) 결제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해외보다 캐나다 로컬 기업 결제 환경을 더 신뢰하는 경향
- 진출방안**
- 현지 은행,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과 연계
  - 로컬 PSP, 핀테크 기술기업과의 기술 제휴 또는 공동개발 협작
  -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의 경우 저비용, 투명한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 등

##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영상제작 서비스 등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캐나다 에듀테크 시장, 연간 약 15.9% 지속 성장세 유지하며 '30년 교육용 콘텐츠 시장 규모 약 8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li><li>코로나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유연한 학습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폭</li><li>영상, 퀴즈, 시뮬레이터 등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에 대한 관심 확대</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지 연방정부/지자체 차원의 기술기업·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자국 기업이 에듀테크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 중</li><li>영어권 국가로 미국 또는 유럽권 기업이 다양하게 시장에 진입</li><li>최근 아태평양 시장의 기술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교육용 콘텐츠 제작 기업 또는 기관과 디지털 콘텐츠 공동 기회 개발 및 제작 협력을 통한 현지 파트너십 활용 전략</li><li>국가 특성상 해외 기업도 캐나다 법인 설립 시 지원 정책 대상이 되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직접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음</li></ul>                                      |

## 스마트팜 솔루션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 자동화·로봇 기술 관심 및 수요 증가</li><li>식량안보, 지속가능성 등 농업 분야 정책기조 대응</li><li>정밀농업, 수직농장, 최적화 솔루션 등 적극 도입</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네덜란드, 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높음</li><li>캐나다 농업 분야 대기업의 스마트솔루션 도입 강화</li></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격·기술 경쟁력 활용 중견·중소 농가 타깃 진출</li><li>현지 파트너 협력 테스트베드 구축, 시범 보급 및 유지보수·데이터 서비스 결합형 협력 모델 유망</li></ul>                               |

## 사이버보안 솔루션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캐나다 중대기업·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li><li>원격근무, 클라우드 기반 업무 확산으로 보안 수요 증가</li><li>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 시행</li></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국 대형 클라우드 기업이 시장 선도</li><li>중소형 기업들은 보안·컨설팅 분야 틈새시장 공략</li><li>국가안보와 연계, 글로벌·현지 협력 필요성이 큼</li></ul>     |

- 
- 진출방안**
- 위협 탐지, 개인정보보호 등 비교우위 기술 분야 집중
  - 현지 통신사·IT 기업 협력 하 정부조달시장 진출 공략
  - 북미 표준 및 캐나다 규제 사전 점검 필수

## 에듀케이션 콘텐츠

-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사회로 한국 문화·언어 교육 관심 증가</li> <li>• K-콘텐츠 확산, 한류 기반 온라인교육 수요 확대</li> <li>• OTT·디지털 교육 서비스 도입 속도 빠름</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ursera, Udemy 등 美교육 플랫폼 점유율 상승</li> <li>• 외국어·문화교육 콘텐츠 제작 공급기업 확대</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원 연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보급</li> <li>• 사립학교 협력 한국어·문화 교과과정 진출</li> <li>• 한국어·수학·AI 기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현지화</li> </ul>    |

## 건설/건축 컨설팅

-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년까지 387만 채 신규 주택 공급 계획 발표</li> <li>• 기후·에너지 절약형 빌딩 리모델링 수요 증가</li> </ul>   |
| <b>경쟁동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기업들이 친환경 건축 자재·설계 시장 선도</li> <li>• 현지 건축·엔지니어링 기업 공공 프로젝트 참여 확대</li> </ul> |
| <b>진출방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가격 경쟁력 기반 틈새시장 진입</li> <li>• 현지 건설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정부 입찰 참여</li> </ul>          |

## AI 기반 고객 서비스

- 
- |             |  |
|-------------|--|
| <b>선정사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AI 서비스 시장은 '23년 약 187억 달러에서, '24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34.9% 성장을 거듭해 '30년에는 1,526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li> <li>• 특히 소비·유통 분야 AI 도입은 '24년 10.4억 달러에서 '30년 27.3억 달러로, 연평균 16.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Grand View Research 보고서)</li> </ul> |
|-------------|--|

- 경쟁동향**
- 캐나다 AI 소비자 서비스 시장은 현지 & 글로벌 기업이 활발히 경쟁하며, 소비자 신뢰형(Maple Scan)과 맞춤형 추천(Flipp, HelloFresh, Rakuten) 서비스가 주도

〈캐나다 현지 플랫폼〉

- Maple Scan : 소비자가 제품 라벨을 스캔하면 원산지·브랜드·성분을 분석해 “Made in Canada” 여부를 알려주는 앱. 미국발 관세 충격 이후 빠르게 확산되며 소비자 신뢰 확보형 AI 서비스로 자리매김
- Flipp : 토론토 기반 앱으로 2,000개 이상의 소매점 할인·쿠폰 정보를 모아 제공. AI 기반 맞춤형 할인 추천 기능을 강화하며 월간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확보

〈글로벌 플랫폼〉

- Rakuten Canada : 글로벌 리워드·캐시백 플랫폼으로, AI 추천 엔진을 활용해 개인화된 쿠폰과 리워드를 제공
- HelloFresh Canada : 독일 본사의 식품 구독 서비스로, AI를 통해 소비자 취향·영양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식단·레시피 추천

- 진출방안**
- 한국 기업은 현지 시장 ‘AI 기반 라벨 검증’과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K-푸드·K-뷰티 등 K-컬쳐 제품에 접목해, 한류와 결합한 차별화된 소비 경험을 캐나다 시장에 제공 가능
  - 현지 진출은 고객 접점이 큰 대형 리테일·핀테크와의 협력이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AI 기반 신뢰형 서비스와 금융·소비 융합 모델로 확장 기대

## 문화 콘텐츠

- 선정사유**
-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로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고, 온라인 스트리밍과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보편화함
  - 한류 콘텐츠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4~’25년이 한-캐 수교 60주년 및 문화 교류의 해로 자정돼 양국 민·관 교류 확대
  - 최근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인기로, 한국 문화 관심 증폭
- 경쟁동향**
- ’24년 기준 캐나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규모는 약 1,474억 달러였으며, ’25년부터 ’35년까지 연평균 9.1% 성장해 3,84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영화 분야는 ’24년 가장 큰 비중(402억 달러)을 차지하며, 소셜 미디어, 스포츠 콘텐츠, 방송까지 전 분야에 걸친 성장세 가속
  - 넷플릭스, 디즈니+, Amazon Prime Video 등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는 캐나다 내 콘텐츠 소비를 주도하는 반면, 현지 로저스(Rogers Communications)는 NBC 유니버설, Warner Bros. Discovery와 다년제 콘텐츠 유통 계약을 맺고 지역화된 콘텐츠 강화에 주력
  - K-컬쳐 소비는 주로 K-팝(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글로벌 그룹), K-드라마(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등), K-뷰티 브랜드(라네즈, 이니스프리 등)를 중심으로 확산

- 진출방안**
- K-컬처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Z세대·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틱톡 및 인스타그램 등의 SNS 솟폼 마케팅을 적극 활용
  - K-드라마, K-팝, 애니메이션 등 이미 확보된 인지도와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현지 OTT·방송사와 협력 배급 및 로컬 소비자 맞춤형 콘텐츠 현지화 가능
  -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에 맞춰 2개 국어를 병기하는 현지화 전략 필요

## 온라인 교육

- 선정사유**
- 팬데믹을 통해 온라인 학습이 빠르게 확산하며, 원격·하이브리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음
  -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 부문 온라인화를 적극 지원
  - 온타리오주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온라인 학습 이수 학점 의무화를 도입했으며, BC주는 K-12 교육에서 온라인 학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마련
- 경쟁동향**
- '24년 캐나다 온라인 교육(E-Learning)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220억 달러로, '25~'30년 동안 연평균 20.7% 성장해 '30년에는 약 6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Grand View Research 보고서)
  - 글로벌 기업(Google Canada, Microsoft Education)이 빠르게 시장 점유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로컬 플랫폼(D2L, Instructure)은 적응형 학습 기술로 차별화를 추진 중
  - eCampusOntario는 온타리오주의 공공 교육 기관 네트워크를 통합해 온라인 강의 포털, 오픈 교과서, 디지털 도구 실험 공간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확산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입지 확대
- 진출방안**
- 캐나다 온라인 교육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과 현지 학습관리시스템(LMS) 기업이 양분하고 있으나, 언어·문화 특화 교육 콘텐츠 수요가 뚜렷해 한국 기업에 틈새시장 진입 기회 존재
  - 정부 디지털 교육 정책(DLEP, 광대역 인프라 확충 등)으로 온라인 학습 기반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 성장 잠재력 높음
  - 한국 기업은 “플랫폼 경쟁”보다는 “콘텐츠·기술 특화” 전략을 통해 틈새 수요를 공략해야 하며, 특히 K-콘텐츠(언어·문화·STEM)와의 접목을 통해 차별화 가능

## 디지털 헬스케어

- 선정사유**
- 캐나다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개선 시급. 특히 1인당 의사 수가 부족해 원격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 '24년 기준 캐나다 원격 진료 시장 규모는 약 135억 달러로, '25~'30년 연평균 21.3%로 급성장해 '30년 421억 달러에 이를 전망(Grand View Horizon 보고서)
  - 팬데믹을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원격 의료 구축 예산 지원 확대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장 내 주요 글로벌 플레이어로 Teladoc Health, Twilio, Zoom Video Communications 등이 있으며, 서비스·소프트웨어 중심의 성장이 두드러짐</li><li>또한 캐나다 내에서는 Telus Health가 전자 건강기록(EMR), 원격 모니터링, 가상 약국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지 강화</li><li>OceanMD는 EMR과 연동된 환자 참여 플랫폼을 통해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등 주정부와 e-Referral 계약을 체결해 빠르게 시장 확대 중</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인구 밀도가 높은 메트로폴리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캐나다 내 북부 및 농촌이 주요 타깃 지역</li><li>의료 제품의 경우 캐나다 보건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상데이터 확보와 현지 임상기관 협력 필요</li><li>원격 진료 서비스의 경우 캐나다 의사 면허 보유자 네트워크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현지 파트너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네트워크 확보 필요. 또한 24시간 운영, 다국어 진료, 저비용, AI 기반 진단 등 현지 기업들과 차별화된 전략이 시장 진입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li></ul>

## 건설·인프라

<b>선정사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캐나다 건설 시장은 '25년 기준 약 3,598억 달러 규모이며, '25~'30년까지 연평균 4.2% 성장해 '30년에는 약 4,42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주택, 인프라, 에너지·유ти리티 분야에서 고른 수요 확대가 예상(Mordor Intelligence 보고서)</li><li>'25년 6월 도입된 Building Canada Act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연방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익 프로젝트 선정해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전망</li></ul>
<b>경쟁동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시장 선도 대형 건설사는 PCL Construction, EllisDon, Ledcor Group, Aecon Group, Pomerleau, Graham Construction, Kiewit Canada, Bird Construction 등이며, 주택, 인프라, 산업 프로젝트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업 전개</li><li>투명한 선진 시장 구조로 대부분 건설사업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참가 제한은 없으며,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가 활발. 공개경쟁방식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일반적</li></ul>
<b>진출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캐나다 건설 시장은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확대와 민간·PPP 프로젝트 활성화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음</li><li>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현지 EPC(예: PCL, EllisDon, Aecon)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거나 PPP 프로젝트 입찰에 동반 진출이 효과적. 이를 통해 현지 규제 및 노동 시장 대응과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기대</li><li>연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친환경 건축 자재와 스마트 에너지 관리 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 우위 확보 가능</li></ul>

### 첨부 3

##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 '26년 북미 지역 KOTRA 주요 사업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1	방산	미 육군박람회(AUSA) 한국관	4분기	워싱턴D.C.
2		CANSEC 전시회 연계 한국기업홍보관	5월 27~28일	오타와
3	전력/에너지	한-캐 전력기자재 산업 글로벌파트너링	3분기	토론토
4		한-캐 수소공급망 IR포럼	4월 21~22일	에드먼턴
5	바이오/	BIO USA 한국관	6월	샌디에이고
6	의약품/	한-미 글로벌 바이오파트너십(KBTP)	6월	샌디에이고
7	의료기기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WHXMiami) 한국관	6월	マイ애미
8		뉴욕치과 전시회(GNYDM) 한국관	11월	뉴욕
9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11월	시카고
10	자동차/	북미 미래차 밸류체인 진입지원	1~2분기	디트로이트
11	소재부품	한-미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링	2분기	디트로이트
12		북미 자동차 전략상담회	4분기	디트로이트
13		FORD-Korean Suppliers Day	2분기	디트로이트
14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AAPEX)	11월 3~5일	로스앤젤레스
15		미국 동남부 Auto Tech Plaza	3분기	조지아주
16	건설/	올랜도 건축산업 전시회(IBS)	2월 17~19일	올랜도
17	건축자재	라스베가스 건설기계 전시회 (CONEXPO-CON/AGG)	3월 3~7일	로스앤젤레스
18		시카고 공작기계 전시회	9월	시카고
19		BUILDEX 밴쿠버 전시회	2월 11~12일	밴쿠버
20	전자/IT/통신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제품 전시회(CES)	1월 6~9일	로스앤젤레스
21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ISC WEST)	3월 23~27일	라스베가스
22		라스베가스 국제방송장비 전시회 (NABShow)	4월 19~22일	라스베가스
23		덴버 스마트홈 음향기기 전시회(CEDIA)	9월 1~4일	덴버
24		K-Innovation Pitching Challenge	10월~1월	라스베가스
25		Web Summit 한국관	5월 11~14일	밴쿠버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	장소
26	소비재/화장품/패션	Coterie New York 전시회	2월	뉴욕
27		美 공군 LA기지 한국제품 전용 상설매장 입점지원	2월 19일~8월 18일	로스앤젤레스
28		북미 온라인 플랫폼 다각화 물류 지원	연중	로스앤젤레스
29		애너하임 유기농 전시회(NPEW)	3월 3~6일	애너하임
30		솔트레이크시티 아웃도어용품 전시회	6월 23~25일	솔트레이크 시티
31		라스베가스 반려동물전시회(Superzoo)	8월 12~14일	로스앤젤레스
32		라스베가스 미용전시회(CPNA)	7월 13~15일	라스베이거스
33		월마트방한소싱플라자	1월	서울
34		1무역관 1유통망 협력사업	연중	디트로이트
35		북미유통망플랫폼(RangeMe) 입점지원	2분기	디트로이트
36		캐나다동부유통망프리미엄소비재진출	연중	토론토
37		K-브랜드프리미엄·가성비유통망확대	연중	밴쿠버
38		2026 FIFA월드컵연계 K-브랜드팝업마켓	6~7월	밴쿠버
39		캐나다 코스트코 K-FOOD 로드쇼	2분기	밴쿠버
40	식품	시카고 레스토랑 전시회	5월	시카고
41		SIAL2026전시회연계 한국관운영	4월 29일~5월 1일	몬트리올
42	스포츠/레저	2026 PGAShow 한국관	1월 20~23일	올랜도
43	농업/ICT	스마트팜진출지원거점 무역관운영	연중	토론토
44	공급망/소재부품	2026 GP USA	9/10월	시카고
45		공동물류인프라활용 K-소비재 온라인진출	연중	토론토
46	투자유치	인천국제공항공사 투자유치사절단	3월	로스앤젤레스
47	통상/종합	Select USA 참가	2분기	워싱턴D.C.
48		경제통상협력데스크운영	연중	워싱턴D.C.
49		LA공공조달시장진입지원	상반기	LA
50	해외취업	2026 K-Move Job Fair	2분기	로스앤젤레스
51		K-Move Job Fair	상·하반기 각 1회	토론토

## 첨부 4

#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1. 미국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	'26년 1~2월	워싱턴 D.C.
2026년 미국 중간선거	'26년 11월 3일	
G20 정상회의	'26년 11월	미국 개최 장소 미정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미 행정부 예산안 발표	'26년 2월 초	
무역대표부(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발표	'26년 3월 말	
의회 회계연도 시작/예산 마감	'26년 10월 1일	
2026년 연준/FOMC 정기회의	연중 8회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뉴욕 소매유통업 전시회 (NRF Retail's Big Show)	'26년 1월 11~13일	소매유통업
뉴욕 프레미에르비숑 섬유 전시회 (Première Vision New York)	'26년 1월 13~14일	섬유
뉴욕 텍스월드 (Texworld New York City)	'26년 1월 20~22일	섬유
2026 미국 파워젠 인터내셔널 전시회 (Powergen International 2026, 샌안토니오)	'26년 1월 20~22일	전력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마이애미 북미 뷰티 트레이드 쇼 (COSMOPROF North America Miami)	'25년 1월 27~29일	화장품, 향수, 미용 제품, 액세서리
2026 미국 디스트리뷰테크 전시회 (DISTRIBUTECH 2026, 샌디에고)	'26년 2월 2~5일	전력
뉴욕 춘계 패션 코테리 전시회 (Coterie New York)	'26년 2월 24~26일	섬유·의류
북미 식품 장비 제조협회 쇼 (NAFEM)	'26년 3월 2~5일	식품 장비 및 기술
뉴욕 인터네셔널 뷰티 쇼 (IBS New York International Beauty Show)	'26년 3월 8~10일	화장품
미국 뉴욕 레스토랑 쇼 (New York Restaurant Show)	'26년 3월 8~10일	레스토랑
2026 미국 버티콘 전시회 (2026 Verticon, 애틀랜타)	'26년 3월 9~12일	항공
미국 가정용품 전시회 (International Housewares Association)	'26년 3월 10~12일	가정용품
2026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전시회 (SXSW 2026, 오스틴)	'26년 3월 12~18일	ICT, 첨단기술, 콘텐츠
미국 국제 식음료 엑스포 (IFOB 2026)	'26년 3월 18~21일	미 식음료 협회 주최
2026 해양 기술 전시회 (OTC 2026, 휴스턴)	'26년 5월 4~7일	해양 플랜트, 에너지
미국 레스토랑 전시회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26년 5월 16~19일	레스토랑
미국 뉴욕 팬시 푸드 쇼 (Summer Fancy Food Show)	'26년 6월 28~30일	식품
뉴욕 기능성 섬유 전시회 (Functional Fabric Fair)	'26년 7월 7~9	섬유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FIME)	'26년 6월 17~19일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식품
미국 자동차 로봇 전시회 (Automate Show)	'26년 6월 22~25일	
2026 미국 보스턴 바이오 전시회 (2026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6년 7월 22~25일	의료·제약
뉴욕 추계 패션 코테리 전시회 (Coterie New York)	'26년 9월 8~10일	섬유·의류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미국 공작기계 전시회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	'26년 9월 14~19일	
미국 디트로이트 배터리 전시회 (The Battery Show North America)	'26년 10월(미정)	이차전지, 제조기기
2026 미국 워싱턴 D.C. 육군 전시회 (AUSA)	'25년 10월 12~14일	미 육군 주최
2026 뉴욕 치과 전시회 (GNYDM)	'26년 11월 27일 ~12월 2일	의료·제약
미국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26년 11월 29일 ~12월 3일	
2026 국제 워크보트쇼 (Internation Work Boat Show 2026, 뉴올리언즈)	'26년 12월(미정)	선박

## 2. 캐나다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NDP 연방당 대표 선거 (New Democratic Party Leadership Election)	'26년 3월 29일	연방 제3당인 신민주당 (NDP) 차기 대표 선출
魁벡 주 총선 (Québec General Election)	'26년 10월 5일	주의회 의원 선출
브리티시컬럼비아 지방선거 (British Columbia Municipal Elections)	'26년 10월 17일	BC주 전역 시장·시의원·교육위원 선거
온타리오 지방선거 (Ontario Municipal Elections)	'26년 10월 26일	온타리오주 전역 시장·시의원·교육위원 선거
토론토 시 선거 (Toronto Municipal Election)	'26년 10월 26일	토론토 시장·시의원·교육위원 선거
오타와 시 선거 (Ottawa Municipal Election)	'26년 10월 26일	오타와 시장·시의원·교육위원 선거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USMCA 첫 정례 검토(Joint Review)	'26년 상반기	USMCA의 6년 주기 평가 절차
G20 정상회담	'26년 12월 14~15일	개최지 : 미국 플로리다주
G7 정상회담	'26년 6월 14~16일	개최지 : 프랑스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토론토 국제 보트쇼 2026 (Toronto International Boat Show 2026)	'26년 1월 17~25일	보트, 요트, 수상 스포츠 산업 전시회
토론토 인테리어 디자인 쇼 2026 (IDS Toronto 2026)	'26년 1월 22~25일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흄데코 전문 전시회
밴쿠버 빌덱스(BUILDEX Vancouver)	'26년 2월 11~12일	건축, 부동산, 인테리어·디자인 산업 전시회
캐나다 콘크리트 엑스포 2026 (Canadian Concrete Expo 2026)	'26년 2월 11~12일	콘크리트, 골재, 건설 자재 및 기술 전시회
토론토 아웃도어 어드벤처 쇼 (Outdoor Adventure Show Toronto)	'26년 2월 20~22일	여행, 캠핑 장비, 자전거, 수상 스포츠, 건강·웰니스 전시회
밴쿠버 ESI 쇼 2026 (ESI SHOW 2026 Vancouver)	'26년 3월 8~9일	에스테틱, 스파, 미용 (메이크업·네일·의료미용)
CIM CONNECT 컨벤션 & 엑스포	'26년 5월 3~6일	캐나다 광산·자원개발 기술 및 네트워킹 행사
캐나다 국립 박람회 (CNE, Canadian National Exhibition)	'26년 8월 21일~9월 7일	캐나다 최대 규모 종합 박람회 (농업, 식품,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포함)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채정훈	과장	북미지역본부	+1-646-530-5523	jhchae4922@kotra.or.kr
2	문영주	대리	북미지역본부	+1-202-857-7919	yjmoonktr@kotra.or.kr



# 2026 북미 진출전략



ISBN: 979-11-402-1459-4 (93320)  
979-11-402-1460-0 (95320)(PDF)